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방안

A Study on Creation of Eco-welfare City through Park
and Green space

송인주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방안

A Study on Creation of Eco-welfare City through Park
and Green space

2012



Ⅱ 연구진

연구책임 송 인 주 •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원 김 시 정 •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복지와 자연환경의 시각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생태복지, 산림복지, 환경복지 등의 개념이 논의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서울시의 공원녹지 정책은 ‘사회연대성’을 중요시하여 도시녹화사업에 시민참여를 도모하고, 공원녹지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생태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소외계층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서울시가 생태복지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계로 공원녹지관리에서 생태복지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생태복지 및 생태복지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시민수요를 반영하여 공원녹지 정책수립 시 생태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생태복지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서울시 생태복지의 개념을 정립하였음. 생태복지의 개념 및 생태복지도시 사례에 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공원녹지를 통한 서울시 생태복지의 정의, 기본원칙, 그리고 보장요소를 설정하였음
- 생태복지 현황분석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현재 서울시의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 현황을 보장요소별로 분석하고, 생태복지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 생태복지도시를 위한 공원녹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음. 공원녹지분야 생태복지 정책목표 및 비전을 설정하였고, 추진과제 및 정책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실행을 위한 시민참여형 추진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Ⅱ. 주요 연구결과

1. 생태복지 개념정립

- 생태복지를 ‘생태계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를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복지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 생태복지도시의 구성요소로 도시생태, 건축물/주거, 에너지, 교통, 자원순환, 문화, 커뮤니티 7가지 요소를 도출하였고 생태복지도시의 구성요소별 연계성을 극대화시키고 생태복지도시 구현효과를 가장 잘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는 수단으로 공원녹지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룸
-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를 ‘서울시민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공원녹지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공원녹지가 제공하는 생태서비스의 범주와 서울시의 도시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 생활권내 숲체험, 안전, 휴양, 건강, 문화, 교육, 일자리 창출의 8가지 보장요소를 선정하였음

정의

“서울시민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도시숲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

보장요소

기본원칙



〈그림 1〉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 정의

2. 생태복지 현황분석

○ 공원녹지 분야의 생태복지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보장요소별 생태복지 현황

보장요소	현황
생물다양성	· 서울시 법정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지정 · 관리 · 정기적 생태계모니터링 실시 및 관리계획 수립
생활권내 숲체험	· 에코스쿨 조성,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 옥상녹화 사업,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숲 가꾸기 ·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주민쉼터 조성 · 사회복지시설의 희망숲 조성, 무장애 공원 조성
안전	· 산사태 복구 및 예방 사방사업 실시 ·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및 예 · 경보 전달체계 개선 · 주요 취약공원에 조도 개선 및 방범시설 설치 · 시민단체, 자율방범대원 등 시민참여 순찰 실시 · 책임구역제 지정 운영

〈표 계속〉 보장요소별 생태복지 현황

보장요소	현황
건강	· 서울숲 U-헬스케어센터 설치 · 서울둘레길 조성 · 근교산 자락길 조성
휴양	· 캠핑장 운영(노을공원 캠핑장, 종량캠핑숲 등 5개소)
문화	· 찾아가는 시민녹화교실 운영 · 노들섬 도시농업공원
교육	· 2013년도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 공모 · 유아숲체험장 조성 · 자연생태체험교실 운영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숲 자원화 · 산림서비스 도우미 배치를 통한 산림서비스 증진

3. 생태복지 수요조사

- 서울시정 및 공원녹지 관리사업에 관심있는 성인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항목은 거주지역의 환경에 따른 삶의 질 만족도, 생태복지에 관한 인식수준, 생태복지도시의 구성요소, 생태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함
- 생태복지 수요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 시민수요조사 종합·분석

구분	시민수요조사 결과 및 방향성
삶의 질 만족도	· 응답자 대부분은 거주지역의 삶의 질과 환경쾌적성에 대해 보통이거나 다소 좋다고 생각함 · 거주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문화예술체험공간의 부족'과 '이웃과의 교류단절'을 꼽았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도시생태'와 함께 '문화'와 '커뮤니티' 요소가 연계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생태복지에 관한 인식수준	· 생태복지 개념을 알고 있으며(58%), 생태와 복지의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함(96%) · 생태복지의 혜택은 인간과 동식물을 비슷한 수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또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생태복지 원칙 중 '보편성'이 모든 계층과 동시에 소외계층을 포괄하는 의미로 설정하도록 함

〈표 계속〉 시민수요조사 종합 · 분석

구분	시민수요조사 결과 및 방향성
생태복지 도시 구성요소	· 구성요소 중 만족도는 ‘문화’가 가장 높고 ‘건축물/주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공원녹지를 생태복지도시 조성수단으로 설정하여 ‘도시생태’를 중심으로 ‘문화’, ‘커뮤니티’ 등 다른 요소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함
공원녹지 분야 관리방안	·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보장요소는 ‘건강’, ‘안전’, ‘생활권 내 숲체험’, ‘생물다양성’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가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서울둘레길 조성’과 ‘옥상녹화사업’은 50% 이상이 잘 알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의 희망숲 조성’, ‘유아숲체험장 조성’, ‘무장애공원 조성’은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함 · 생태복지도시를 위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생태적으로 양호한 숲의 보전’, ‘생활권 내 도시숲의 확충’, ‘생물서식처 복원’, ‘치유의 숲 조성 · 운영’이 도출됨 · 생태복지도시를 위한 조성주체로는 ‘서울시+시민단체+일반시민+민간기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생태복지도시 조성에서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생태복지라고 생각함(93%) ☞ 공원녹지분야 관리방안 마련 시 보장요소 및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민간산 협업체 구성을 통한 시민참여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참여방안	· 각종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참여의 방법을 모르거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응답자가 생태복지도시 조성 시 참여할 의사가 있음(89%) ☞ 개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경로를 마련하고 관련정보를 통합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4. 생태복지도시를 위한 공원녹지 관리방안

1) 비전 및 추진과제

- 시민수요조사를 통한 보장요소의 우선순위 및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공원 녹지정책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생태복지도시, 서울’로 설정하였으며, 보장요소별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생태복지도시, 서울’

VISION		
1	건강	숲을 통한 시민생명 보호 및 시민건강 증진
2	안전	자연재해,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원녹지공간 조성
3	생활권 내 숲체험	전 계층의 생활권내 숲 접근성 향상
4	생물다양성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자원 보전·복원
5	휴양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가공간 마련
6	문화	전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숲 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7	교육	숲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생태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8	일자리 창출	다양한 형태의 녹색일자리 창출

* 시민수요조사를 통한 보장요소 우선순위 및 주요내용 반영

〈그림 2〉 정책비전 및 목표

건강	• 자유의 숲 조성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수목그늘 제공 •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장애없는 산책길 조성 확대	휴양	• 체류형 공간 마련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 서울 자연·철인경기 개최
안전	•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예방 • 자연재해 대비 공원녹지 보완 및 모니터링 • 공원내 안전시설 강화 • 공원경찰제도 도입	문화	• 숲문화프로그램 다양화 • 소외계층의 문화프로그램 참여지원 • 도시농업 활성화 • 공원내 가드닝센터 운영
생활권내 숲체험	• 벽면녹화, 옥상정원 등 생활권 내 녹지의 확충 • 사회복지시설의 희망숲 조성 •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아름다운 마을정원 조성	교육	• 연령대별 생태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소외계층의 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지원 • '먹을 수 있는 학교숲' 조성
생물 다양성	• 생태적으로 양호한 숲의 보전 • 생물서식처 복원 • 민관협력 모니터링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 재능기부 등 시민참여기회 확대 • 공원녹지 조성·운영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 • 생태복지 정보화 서비스 구축

굵은글씨 : 시민수요조사 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붉은글씨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규사업임

〈그림 3〉 보장요소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2) 생태복지지표

○ 보장요소별 추진과제의 효율적인 이행과 관리를 위해 정책연관성과 자료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22가지의 공원녹지분야 생태복지지표(안)를 선정하였음

- 공원녹지분야의 생태복지지표는 연간 사업성과를 작성하여 과거연도와의 대비 추세파악을 통해 지표달성도를 분석할 수 있으며 활용예시는 다음과 같음

〈표 3〉 서울시 생태복지정책지표의 활용예시

보장 요소(8)	지표	최근 연도값*			긍정 방향	최근 추세
		12년	13년	14년		
건강	무장애 산책길 연장(km)	12,9	16	20	↗	↗
	서울 둘레길 총연장(km)	61,5	110	178	↗	↗
	치유의 숲 면적(㎡)	-	300,000	300,000	↗	→
	‘쿨 그린존’ 개소수	-	5	15	↗	↗
안전	산사태 발생건수	78(‘11)	20	5	↘	↘
	안전 취약등급 공원개소수	226	189	152	↘	↘
생활권내 숲체험	1인당 공원녹지 면적(㎡)	13,8	13,9	14,2	↗	↗
	생활권 공원면적(㎡)	74,625,465	74,842,231	75,821,075	↗	↗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숲 가꾸기 개소수	24	65	100	↗	↗
	사회복지시설 숲조성 개소수	24	71	100	↗	↗
생물 다양성	생태·경관보전지역 개소수	17	18	18	↗	→
	비오름 1등급지 면적(㎡)	88,200,949	88,130,214	87,820,005	↗	↘
	자연림 면적(㎡)	77,779,792	77,639,542	77,445,964	↗	↘
	발견된 법정보호종수	88	93	95	↗	↗
휴양	캠핑장 면적(㎡)	196,760	230,465	230,465	↗	→
문화	숲문화 프로그램 운영횟수	5,681	6,375	7,059	↗	↗
	텃밭면적	154,308	168,500	185,450	↗	↗
교육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횟수	5,681	6,375	7,059	↗	↗
	유아숲체험 개소수	3	5	6	↗	↗
일자리 창출	녹색일자리 종사자수(명)	880	1,020	1,100	↗	↗
	관련 시민단체수	-	-	-	↗	↗
	관련 사회적 기업수	5	10	15	↗	↗

* 2012년도 값은 현재 데이터값이며, 2013년도 값, 2014년도 값은 계획 또는 추정값임

Ⅲ. 정책건의

1. 민관파트너십 구축 영역 확대

- 공원녹지의 운영뿐 아니라 계획 및 조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당수의 시민들이 생태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주체로 서울시와 시민단체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일반시민의 참여까지도 이루어져야 하고,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등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생태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음
- 기존 민간위탁 형태에서 나아가 민관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민(民)’ 범위를 시민단체를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이 아닌 일반시민과 기업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계획·조성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기존 서울숲의 모델을 토대로 지정관리자제도의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성·관리 및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태복지문화 형성

- 그동안 공원녹지 조성사업들은 전반적으로 관주도의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주민참여형 녹색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 또한 높은 편임
- 개인이 관주도의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옥상, 집 앞 화단 등 생활권내 자투리공간에 대한 능동적 녹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생태복지포털을 구축하여 텃밭 및 정원가꾸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공원에 생태문화센터 등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여 누구나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참여하고 가드닝 정보 등 공원녹지분야 전반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학습의 장을 개설, 운영하여 일반시민의 개인적 참여확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3. 제도개선을 통한 행정적 지원 강화

-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법제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나 현재까지 생태복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실정임
- 관련법제에 생태복지 구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일부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는 2조에 서울시의 환경보전활동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생태복지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2조 2항에 생태복지를 구현하는 도시를, 4조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생태복지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생태복지 개념 및 관련정책	9
제1절 생태복지관련 제도 및 정책	9
제2절 생태복지 개념 및 주요내용	22
제3절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	35
제3장 생태복지 현황분석 및 수요조사	41
제1절 보장요소별 현황분석	41
제2절 생태복지 수요조사	59
제4장 생태복지도시를 위한 공원녹지 관리방안	75
제1절 정책비전 및 목표	75
제2절 추진과제 및 지표	78
제3절 시민참여형 추진방안	108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125
제1절 결과요약	125
제2절 정책건의	128

참고문헌	133
부 록	139
영문요약	151

표 목 차

〈표 2-1〉 생태복지관련 정책 및 사업	9
〈표 2-2〉 산림복지정책 계획의 목표	11
〈표 2-3〉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1
〈표 2-4〉 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사업	14
〈표 2-5〉 환경복지정책의 세부사업 방향	15
〈표 2-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녹화 현황	16
〈표 2-7〉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유형	19
〈표 2-8〉 생명의 숲의 사회복지시설 녹화사업 현황	20
〈표 2-9〉 한국녹색문화재단의 목표와 사업	21
〈표 2-10〉 생태복지 관련 유사개념	26
〈표 2-11〉 생태복지도시 관련문헌 및 사례의 구성요소	33
〈표 3-1〉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42
〈표 3-2〉 서울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현황	44
〈표 3-3〉 생활권 숲조성 관련사업 추진현황 및 내용(1998~2010년)	47
〈표 3-4〉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현황	48
〈표 3-5〉 자치구별 불안요인 발생공원 현황	50
〈표 3-6〉 휴양관련 공원녹지 현황	51
〈표 3-7〉 공원녹지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53
〈표 3-8〉 서울시 공원운영프로그램 현황	55
〈표 3-9〉 주요공원의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2011년)	56
〈표 3-10〉 서울시 공공산림 가꾸기 및 녹색일자리 사업개요(2009년)	58
〈표 3-11〉 조사 개요	59
〈표 3-12〉 설문항목의 구성	60
〈표 3-13〉 거주지역에 대한 삶의 질	61

〈표 3-14〉 거주지역에 대한 환경쾌적성	61
〈표 3-15〉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63
〈표 3-16〉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요도	63
〈표 3-17〉 생태복지 개념의 인식	64
〈표 3-18〉 생태복지 개념의 인식경로	64
〈표 3-19〉 생태와 복지의 관계	64
〈표 3-20〉 생태복지 혜택의 대상범위(인간과 동식물)	65
〈표 3-21〉 생태복지 혜택의 대상범위(인간)	65
〈표 3-22〉 생태복지도시의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65
〈표 3-23〉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 기본원칙에 대한 동의	66
〈표 3-24〉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 보장요소의 우선순위	66
〈표 3-25〉 서울시의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공원녹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	67
〈표 3-26〉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우선순위	68
〈표 3-27〉 생태복지도시의 조성주체	69
〈표 3-28〉 생태복지의 범위(참여의 기회 제공)	69
〈표 3-29〉 재능기부 등 참여경험	70
〈표 3-30〉 미참여 이유	70
〈표 3-31〉 생태복지도시 조성 시 참여의사	70
〈표 3-32〉 시민수요조사 종합 · 분석	70
〈표 4-1〉 자연생태체험교실 운영현황	95
〈표 4-2〉 생태계복지의 요소 및 지표	99
〈표 4-3〉 녹색성장지표	102
〈표 4-4〉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103
〈표 4-5〉 서울시 생태복지의 요소 및 지표(공원녹지 분야)	106

〈표 4-6〉 서울시 생태복지정책지표의 활용예시	107
〈표 4-7〉 일본 종전 운영관리제도와 지정관리자제도의 비교	109
〈표 4-8〉 일본 도쿄도립공원의 지정관리자 평가내용	110
〈표 4-9〉 서울숲의 민관 업무분담	114
〈표 4-10〉 시민참여 서울숲사랑모임 사업예산 내역	114
〈표 4-11〉 동명아동복지센터의 사업개요	116
〈표 4-12〉 생명의 숲과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숲 조성사업 비교	117
〈표 4-13〉 주요 생태공원의 민간위탁 운영·관리 현황	118
〈표 4-14〉 생태복지 관련법제 현황 검토	121
〈표 5-1〉 보장요소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127

그림 목 차

〈그림 1-1〉 서울시 주요 공원녹지정책	4
〈그림 1-2〉 서울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5
〈그림 1-3〉 연구 흐름도	6
〈그림 2-1〉 산림복지정책 비전 개념도	10
〈그림 2-2〉 산림복지사업 흐름도(안)	12
〈그림 2-3〉 산림청 치유의 숲	13
〈그림 2-4〉 녹색사업단의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지원현황	15
〈그림 2-5〉 동작구 시온원 녹화대상지	17
〈그림 2-6〉 사회복지시설 녹지조성 사업현황	17
〈그림 2-7〉 마을공동체 회복의 비전	18
〈그림 2-8〉 동명아동복지센터 녹화대상지	20
〈그림 2-9〉 한국녹색문화재단의 사업	21
〈그림 2-10〉 생태복지의 모델	23
〈그림 2-11〉 생태복지의 개념도	24
〈그림 2-12〉 생태복지 전략계획의 비전	25
〈그림 2-13〉 꾸리찌바의 현황	29
〈그림 2-14〉 토트네스의 현황	30
〈그림 2-15〉 우파파브릭의 현황	31
〈그림 2-16〉 핀드혼의 현황	32
〈그림 2-17〉 생태복지도시의 구성요소	35
〈그림 2-18〉 공원녹지분야 생태복지의 기본원칙	36
〈그림 2-19〉 공원녹지분야 생태복지의 보장요소	37
〈그림 2-20〉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의 개념	37
〈그림 3-1〉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42

〈그림 3-2〉 생태경관보전지역	42
〈그림 3-3〉 서울시 법정보호지역 현황	44
〈그림 3-4〉 중랑천~청계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45
〈그림 3-5〉 서울시 공원녹지 분포현황	46
〈그림 3-6〉 폭우로 인한 피해	48
〈그림 3-7〉 산사태 발생현황(2011년)	48
〈그림 3-8〉 우면산 사방댐 조성현황	49
〈그림 3-9〉 자치구별 불안요인 발생공원 현황	50
〈그림 3-10〉 서울 주요 캠핑장	52
〈그림 3-11〉 서울둘레길 조성 위치도	53
〈그림 3-12〉 서울 근교산자락길 조성 위치도	53
〈그림 3-13〉 노들텃밭 현황	54
〈그림 3-14〉 거주지역에 대한 삶의 질	61
〈그림 3-15〉 거주지역에 대한 환경쾌적성	62
〈그림 3-16〉 거주지역의 문제점	62
〈그림 3-17〉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 보장요소의 우선순위	67
〈그림 3-18〉 서울시 공원녹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	68
〈그림 4-1〉 정책비전 및 목표	76
〈그림 4-2〉 보장요소별 중점추진과제	77
〈그림 4-3〉 산림공간유형에 따른 기분개선 연구결과	79
〈그림 4-4〉 서울숲 U-헬스케어센터	79
〈그림 4-5〉 호주 멜버른의 폭염적응 사례	80
〈그림 4-6〉 파리의 나눔정원	84
〈그림 4-7〉 베를린의 그린호프	86

〈그림 4-8〉 롱아일랜드 기후변화 감시모니터링	88
〈그림 4-9〉 베를린의 ‘도시자연의 긴 하루’ 프로그램	90
〈그림 4-10〉 독일의 ‘도서 숲’ 프로젝트	91
〈그림 4-11〉 영국 첼시 플라워 박람회의 Edible playground	94
〈그림 4-12〉 미국의 공원경찰	96
〈그림 4-13〉 서울시의 복지지수 도출결과	101
〈그림 4-14〉 지브리 미술관	111
〈그림 4-15〉 노리타케의 숲 전경	112
〈그림 4-16〉 생명의숲 사회복지시설숲운동의 추진조직 및 역할	115
〈그림 4-17〉 동명아동복지센터와 시온원의 숲 조성	117
〈그림 4-18〉 생태복지도시의 조성주체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결과	118
〈그림 4-19〉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 · 관리 민관파트너십 체계	119
〈그림 4-20〉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등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결과	120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사회적 이슈이거나 사회적으로 요구가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복지용어를 ‘먹거리 복지’, ‘에너지 복지’와 같이 용어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복지와 자연환경의 시각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생태복지, 산림복지, 환경복지 등의 개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산림청은 2011년 「산림복지 개념정립 및 정책개발 연구」를 통해 마련된 생애주기별 산림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는 2012년 환경복지정책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유엔은 2001년부터 세계 95개국의 생태학자 1,360명을 동원하여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The Well-being of Nations(Robert, 2001)’ 프로젝트에서는 국가복지를 인간복지와 생태계복지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미래형 복지로 확대 설정하여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인간 복지’와 더불어 ‘생태계 복지’를 평가하여 순위를 매겼다. 180개국 중 우리나라는 인간복지가 27위 이나, 생태계복지는 16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The Well-being

of Nations'의 평가기준을 서울시에 적용해보면 인간복지는 Fair 등급, 생태계복지는 Medium 등급으로 생태계복지와 인간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복지정책 방향 설정과 실현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의 공원녹지 정책은 ‘사회연대성’을 중요시하여 도시녹화사업에 시민참여를 도모하고, 공원녹지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도시숲의 생태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소외계층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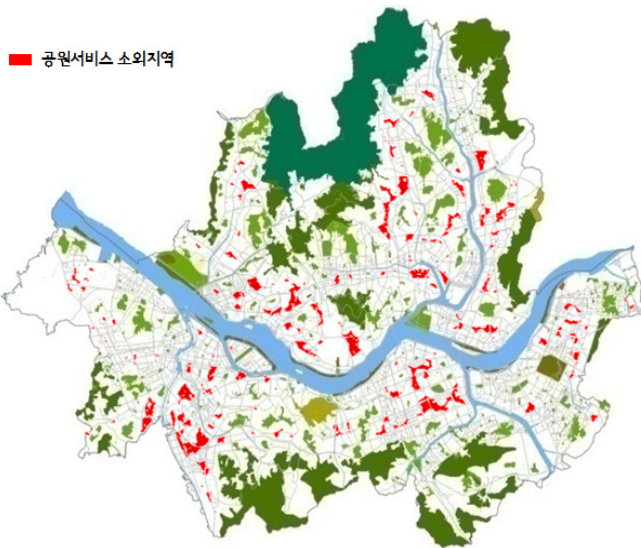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가 생태복지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첫단계로 공원녹지관리에 생태복지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생태복지 및 생태복지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시민수요를 반영하여 공원녹지 정책수립 시 생태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생태복지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 서울’

10분 거리 동네공원 만들기	‘걷고싶은서울길’ 체계적 연결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녹화	안전하고자속가능한 산림관리
• 한뼘동네공원 및 어울림공원 조성 • 경의선·경춘선 선형공원 조성 • 동네뒷산 커뮤니티 가든 에코스쿨 조성 • 도시농업공원, 지역거점공원 조성	• 서울길 마스터플랜 수립 • 서울둘레길 조성 • 근교산자락길 조성 • 쾌적한 가로숲길 조성	•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 추진 • 아파트 열린 녹지, 옥상녹화사업 • 생활주변 자투리 땅 녹화 • 공원을 커뮤니티 중심으로 활용	• 지속가능한 도시숲 관리 종합대책 수립 • 산사태 복구 및 예방 사업 • 사면전수조사 및 피해저감 체계 구축 • 시민과 함께하는 산사태 예방 시스템

출처 : 서울시 푸른도시국, 2012

〈그림 1-1〉 서울시 주요 공원녹지정책



출처 : 서울시, 2012

〈그림 1-2〉 서울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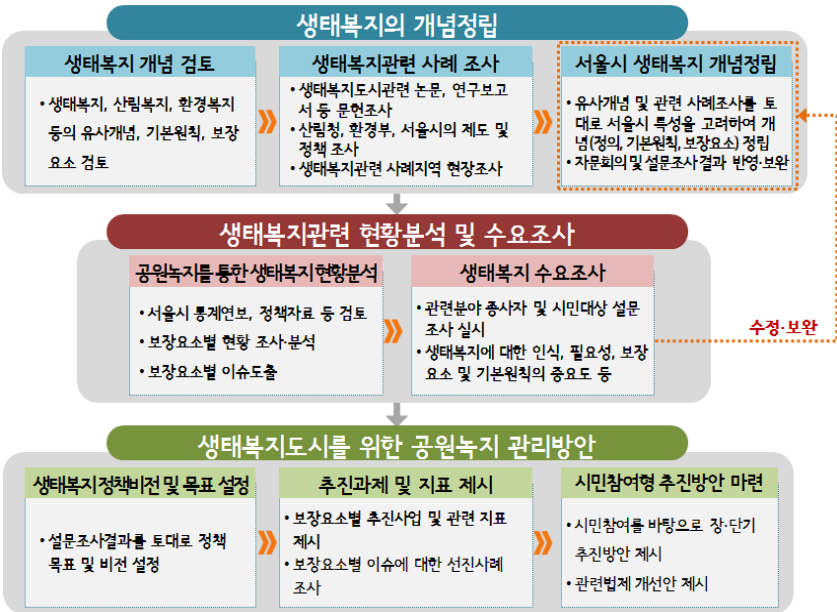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그림 1-3> 참조). 첫째, 서울시 생태복지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생태복지의 개념 및 생태복지도시 사례에 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공원녹지를 통한 서울시 생태복지의 정의, 기본 원칙, 그리고 보장요소를 설정하였다.

둘째, 생태복지 현황분석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서울시의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 현황을 보장요소별로 분석하였고, 생태복지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셋째, 생태복지도시를 위한 공원녹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공원녹지분야

생태복지 정책목표 및 비전을 설정하였고, 추진과제 및 정책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실행을 위한 시민참여형 추진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3〉 연구 흐름도

제2장 생태복지 개념 및 관련정책

제1절 생태복지관련 제도 및 정책

제2절 생태복지 개념 및 주요내용

제3절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

제2장

생태복지 개념 및 관련정책

제1절 생태복지관련 제도 및 정책

생태복지 및 생태복지도시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념 정립에 앞서 현재 국내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해 보았다. 중앙정부, 서울시, 민간단체에서 실시한 생태복지관련 제도 및 정책을 시행 주체에 따라 살펴 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생태복지관련 정책 및 사업

구 분		정책 및 사업	주요 내용
중앙 정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정책의 추진 방향 제시
		치유의 숲	- '09년부터 숲치유 프로그램운영(산음 치유의 숲, 장성 치유의 숲, 청태산 치유의 숲 등 3곳)
		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사업	- 지자체, 사회복지재단, 시민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소외계층 및 일반 인들이 녹색복지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녹지 조성비용을 지원
	환경부	환경복지정책	-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서비스 강화,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세부방향 및 사업내용 제시
서울시		녹색희망나누기	-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치유정원 등 녹지 조성
		마을공동체 만들기	- 기존 마을활동 발굴 및 지원, 마을리더 육성, 환경 및 인프라 구축, 홍보 및 교류 등을 기본방향으로 기본계획 수립

〈표 계속〉 생태복지관련 정책 및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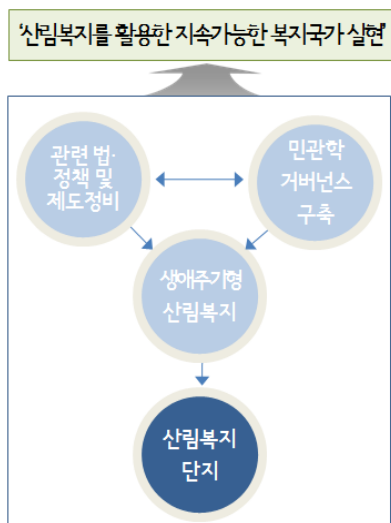
구 분		정책 및 사업	주요 내용
민간 단체	생명의 숲	사회복지시설 녹화사업	- '07년부터 사회적 녹지이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숲을 만들고, 이용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서울소 재 5곳)
	한국녹색 문화재단	나눔의 숲 캠프	-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숲체험프로그램 실시· 운영

1. 중앙정부

1) 산림청

(1) 산림복지정책

산림청의 산림복지정책 비전은 지속가능한 산림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세계 10위 산림관리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으로 개념도와 계획목표가 <그림 2-1>, <표 2-2>와 같다.



〈그림 2-1〉 산림복지정책 비전 개념도

〈표 2-2〉 산림복지정책 계획의 목표

구분	내용	목표
가치있는 국가자원	산림을 경제·환경·사회적으로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산림복지국가 의 기반마련	- 산림가치 ('06)70조원→('17)200조원 - 산림축적 ('06)82m ³ /ha→('17)110m ³ /ha
건강한 국토환경	산림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통해 국토의 균형 적 발전과 한반도 생태계의 영속성과 건강성 증진	- 산림보호지역비율 ('06)11%→('17)15%
쾌적한 녹색공간	산림의 휴양, 문화적 기능확대를 통해 국민의 여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생활권 도시숲 ('06)6.6m ² /인→('17)10.0m ² /인 - 산림휴양 수요 ('06)10억명/년→('17)17억명/년

산림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하에 산림복지의 계층 간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7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표 2-3〉). 또한 산림복지 실행방안은 제도적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제도적으로는 산림휴양법 개정, 사회문화적으로는 산림복지를 안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정치, 경제, 사회 인사들의 산림복지 참여 캠페인, 산림복지 개념 대중화, 온라인 매체 설립 운영, 전국 휴양림 네트워크망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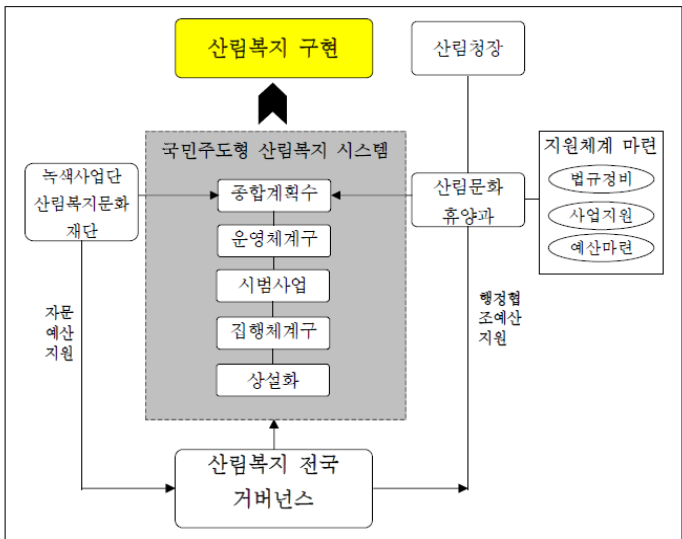
〈표 2-3〉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정책의 추진방향

생애주기 단계	산림복지 내용	추진방향
탄생기	출산활동 지원	- 태교의 숲 확대, 아기탄생목 심기 -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유아기	양육활동 지원	- 숲속 유치원 확대
아동·청소년기	숲 체험과 산림교육 등 제공	- 국립산림교육센터 조성 - 숲속 수련장을 중소형 청소년 시설로 운영 - 산림학교, 그린캠프 등 가족 및 학교 단위 프로그램 개발 - 취약·위기계층 청소년 자활·자립 기반 마련
청년기	레저와 문화활동 지원	- 산촌마을, 자연휴양림 등과 연계한 산악레포츠단지, 레포츠코스 조성 - 숲속결혼식, 공연 및 전시,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산림복지센터 운영 계획

〈표 계속〉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정책의 추진방향

생애주기 단계	산림복지 내용	추진방향
중·장년기	휴양과 치유서비스 제공	- 특성화된 자연휴양림 운영 - 국립 산림치유원 조성 - 전국 트레킹 숲길 네트워크
노년기	산림을 통한 요양기회 제공	- 국립 산림치유원에 노인 전용 치유 및 요양 공간 조성 - 산촌생태마을을 산림요양마을로 조성
회년기	자연으로의 회귀	- 자연친화적 장묘서비스 지원

출처 : 산림청, 2011



〈그림 2-2〉 산림복지 사업 흐름도(안)

(2) 치유의 숲

치유의 숲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치유프로그램 등을 통해 숲을 자연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의 숲, 산림공원 등과 차별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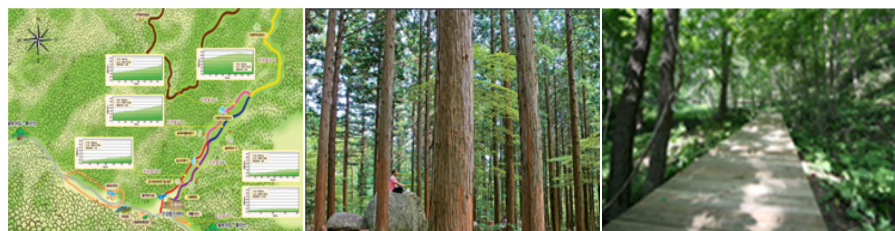
산림청은 2009부터 산음 치유의 숲(경기 양평), 장성 치유의 숲(전남 장성),

청태산 치유의 숲(강원 횡성) 등 3곳을 조성하여 숲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음 치유의 숲은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자연휴양림에 위치해 있고, 건강증진센터, 치유숲길(1.5km), 맨발체험로, 숲속체조실, 자연치유정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치유프로그램으로는 건강체크 및 숲길 걷기, 명상 등 치유의 숲을 체험하는 1일 프로그램,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박2일, 2박3일 숙박형 프로그램이 있다.

장성 치유의 숲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측령산에 위치해 있고, 국내 최대의 편백숲이 조성되어 있으며, 아토피·스트레스 예방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유숲길은 테마별로 하늘숲길, 산소숲길, 숲내음길, 건강숲길, 편백칩, 습지데크 등으로 조성되어 있고, 명상쉼터·하늘바라기쉼터·야외데크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2명과 숲해설가 4명, 등산안내인 1명을 배치해 숲해설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성 치유의 숲은 숙박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청태산 치유의 숲은 강원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 숲체원 안에 위치해 있고, 장애인과 노약자는 물론 누구나 편안하게 숲 속을 거닐며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정상까지 폭 1.2m, 길이 862m의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청태산 치유의 숲은 포레스트 힐링센터를 갖추고 일반 체험형 치유프로그램과 숙박형 스트레스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 산음 치유의 숲

b. 장성 치유의 숲

c. 청태산 치유의 숲

〈그림 2-3〉 산림청 치유의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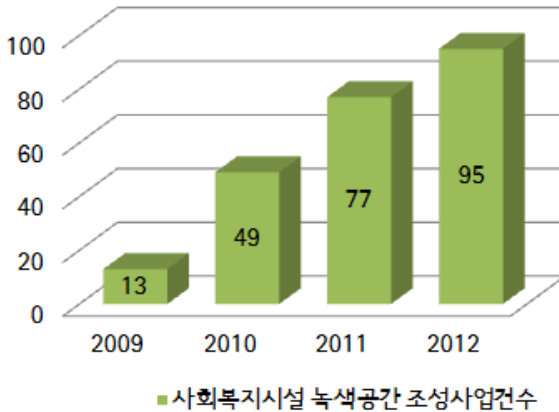
(3) 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사업」

녹색자금사업은 산림청 녹색사업단이 복권판매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녹색자금을 이용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환경기능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지자체, 사회복지재단, 시민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트레일 조성 등의 생활환경림 조성사업과 녹색문화체험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 사회적 소외계층과 일반인들이 녹색복지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나눔의 숲, 공유의 숲, 소통의 숲 등을 조성하는 ‘사회복지나눔숲’ 조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양로원, 아동보호시설 등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에 숲 조성, 옥상녹화, 벽면녹화, 이동식 정원 등의 조성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표 2-4〉 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사업

구분	사업내용	
생활환경림 조성사업	소외계층 녹색복지증진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숲조성으로 계층간의 갈등 해소를 도모함
	녹색건강기반 조성	생활권역 내 일반시민들을 위한 숲 조성으로 정부의 국정지표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함
	트레일 조성	수직적 등산개념을 탈피하여 숲길, 마을길, 논길 등을 걸으며 역사·문화·생태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함
	기타사업	옥상녹화·비오톱·학교숲 등 조성과 생활환경림 조사·연구 등 사업을 실시함
녹색문화체험 교육사업	숲체원 조성지원	청소년 및 소외계층을 위한 숲체험 교육을 목적으로 강원 횡성에 숲체원을 2003년부터 5개년에 걸쳐 조성하고 국내 최대규모의 산림교육센터로서 운영되도록 지원함
	녹색체험교육	청소년, 다문화가정·장애인·게임중독자 등 사회적 약자층,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숲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숲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
	산림문화홍보	기후변화·사막화현상 등으로 훼손되는 지구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산림의 중요성·보전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을 진행함



〈그림 2-4〉 녹색사업단의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지원현황

2) 환경부의 환경복지정책

현재 마련 중인 환경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서비스 강화로 환경정책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며 환경복지정책의 세부사업 방향은 <표 2-5>와 같다.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검토과제인 지역단위의 환경복지 증진사업으로는 지역 내 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사업, 환경복지 목표 설정, 지표개발을 통한 사업 관리, 환경복지를 위한 지자체 우선사업 선정이, 부처별 환경복지 융합정책 및 프로그램으로는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부처별 정책 개발 및 보급, 환경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제시되고 있다.

〈표 2-5〉 환경복지정책의 세부사업 방향

기본방향	세부방향	사업내용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형평성 강화	농어촌 지역 환경서비스 강화	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선, 슬레이트지붕 철거, 댐댐지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대책 강화, 폐기물관리 서비스 개선, 하천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환경위해우려지역 주민 환경성질환 예방·감시	주요 산업지역, 폐광지역 등 위해우려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생활유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노출진단 프로그램 개발

〈표 계속〉 환경복지정책의 세부사업 방향

기본방향	세부방향	사업내용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서비스 강화	취약계층 건강보호 대책 강화	어린이 알레르기성 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저소득층 어린이 치유활동 지원, 어르신 환경성 만성질환 조사·연구, 예방·관리체계 구축, 치유활동 지원
	도시 저소득층 환경서비스 격차 해소	환경보건 불평등 지표 개발·관리, 환경보건모니터링 등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중장기 연구 및 영향저감사업 추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관련 지표개발 추진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2. 서울시

1) 녹색희망나누기 사업

서울시는 2007년부터 녹색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외부 공간을 생태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 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을 받아 현재까지 총 1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옥상텃밭, 생태연못, 정원, 푸른쉼터 조성 등 녹지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었다.

〈표 2-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녹화 현황

기관명	위치	조성면적 (㎡)	조성비용 (만원)	조성시기
시립소년의집	은평구 응암동	8,400	14억8천6백	2008
나눔의 집	양천구 신월동	817		2008
SOS어린이마을	양천구 신월동	483		2008
영락모자원	성북구 정릉동	1,100	3억	2009
늘어난집	노원구 중계동	1,500	2억2천	2010
다니엘복지원	서초구 내곡동	900	1억7천	2010
신아원	송파구 거여동	550	1억1천	2010
선덕원	은평구 응암동	913	1억	2011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장동	480	8천	2011
기쁜우리복지관	강서구 가양동	559	1억3천	2011

〈표 계속〉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녹화 현황

기관명	위치	조성면적 (㎡)	조성비용 (만원)	조성시기
서부장래인종합복지관	은평구 구산동	926	1억6천	2011
시온원	동작구 상도동	500	8천	2011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강북구 삼양동	310	1억	2012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512	1억3천	2012
유자원	동대문구 휘경동	567	1억5천	2012
성민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384	1억3천	2012
청운자립생활관	동작구 상도동	199	8천	2012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구로구 궁동	130	5천	2012
가톨릭데이케어센터	관악구 신림동	124	5천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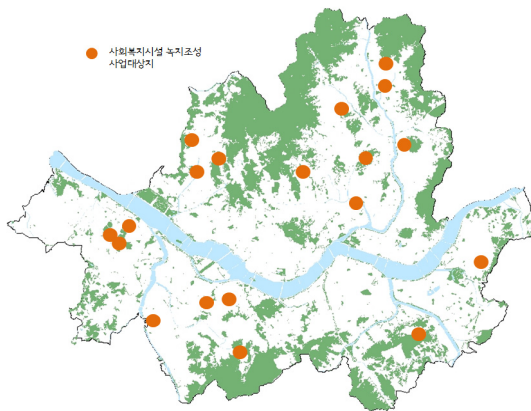


a. 푸른쉼터



b. 놀이터 및 치유정원

〈그림 2-5〉 동작구 시온원 녹화대상지



〈그림 2-6〉 사회복지시설 녹지조성 사업현황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서울시는 지역사회 생활문제의 공동 해결, 마을사업 운영 등 주민과 풀뿌리 단체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총 4개 시책, 27개 부서의 3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기존 마을활동 발굴 및 지원, 마을활동 촉발을 위한 마을리더 육성, 마을활동 발아를 위한 환경 및 인프라 구축, 마을활동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류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림 2-7〉 마을공동체 회복의 비전

〈표 2-7〉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유형

구분	사업유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 구축(5)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교육컨설팅
	마을지향 도시계획제도 마련
함께 나누는 복지 공동체 만들기(11)	서울 품앗이
	취약계층 자활 마을공동체 육성
	어르신과 마을이 어우러지는 세대 통합형 복지건강 마을공동체 사업
	장애인 지원 마을공동체 육성
	건강친화마을 조성
	마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마을청소년 휴카페 조성
	마을안전망 구축
	주거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운영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 공동체 만들기(5)	마을기업 육성
	마을 도시농업 지원
	마을공동체와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 간 교류 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마을 나눔 장터 운영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 만들기(14)	마을 예술창작소 조성
	마을 작은도서관 지원
	마을 북카페 조성 및 운영
	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운영
	마을미디어 육성
	마을학교 운영
	한뼘 마을공원 조성
	갈현도시농업공원 조성
	마을뒷산공원 조성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마을 숲 가꾸기
	한옥마을 공동체 희망사업
	자전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담장 허물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3. 민간단체

1) 생명의 숲의 사회복지시설 녹화사업

생명의 숲은 2007년부터 사회적 녹지이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숲을 만들고, 이용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대상지 선정에서 지속성에 중점을 두어 기업의 후원과 해당시설의 참여를 통한 조성과정을 중요시하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 녹화사업 현황은 <표 2-8>과 같다.

<표 2-8> 생명의 숲의 사회복지시설 녹화사업 현황

기관명	위치	조성비용 (만원)	조성시기	협력기관
지은보육원	강서구 개화동	2천7백	2011	신한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동작구 신대방동	7백	2010	메트라이프 코리아재단
동명아동복지센터	관악구 봉천동	2천2백	2011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카디프생명보험
송죽원	서대문구 홍제동	4천5백	2011	신한은행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라파엘의집	종로구 체부동	1천	2011	삼성증권



a. 푸른쉼터 및 생태정원



b. 옥상텃밭

<그림 2-8> 동명아동복지센터 녹화대상지

2) 한국녹색문화재단의 나눔의 숲 캠프

한국녹색문화재단은 산림환경기능을 증진시키고, 녹색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으로써 산림의 사회적 가치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숲에서의 사회화합, 숲을 통한 건강증진, 숲이 주는 전인교육, 숲이 있는 문화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2-9〉 한국녹색문화재단의 목표와 사업

구분	사업내용
숲에서의 사회화합	소외계층의 정서함양을 위한 나눔의 숲 체험사업
	그린엔젤과 함께 하는 나눔의 숲 체험교실
숲을 통한 건강증진	현대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Healing in Forest
	산림치유원(Forest Therapy Center)의 조성 및 운영
숲이 주는 전인교육	녹색가치의 이해와 활용을 통한 전인교육
	산림문화체험센터 숲체원의 조성 및 운영
숲이 있는 문화확산	Wood 樂 Festival
	숲에ON 국민건강숲길걷기대회

나눔의 숲 체험교실은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숲체험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서함양 산림체험캠프, 저소득가정 정서함양 캠프, 관심가정 관계증진 캠프, 정신건강 및 심리복구 캠프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존감 및 자아정체감 증진 캠프, 스트레스 관리와 개선을 위한 산림치유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운영하고 있다.



a. 나눔의 숲 체험교실(2006년)



b. Wood 樂 Festival(2007년)

〈그림 2-9〉 한국녹색문화재단의 사업

제2절 생태복지 개념 및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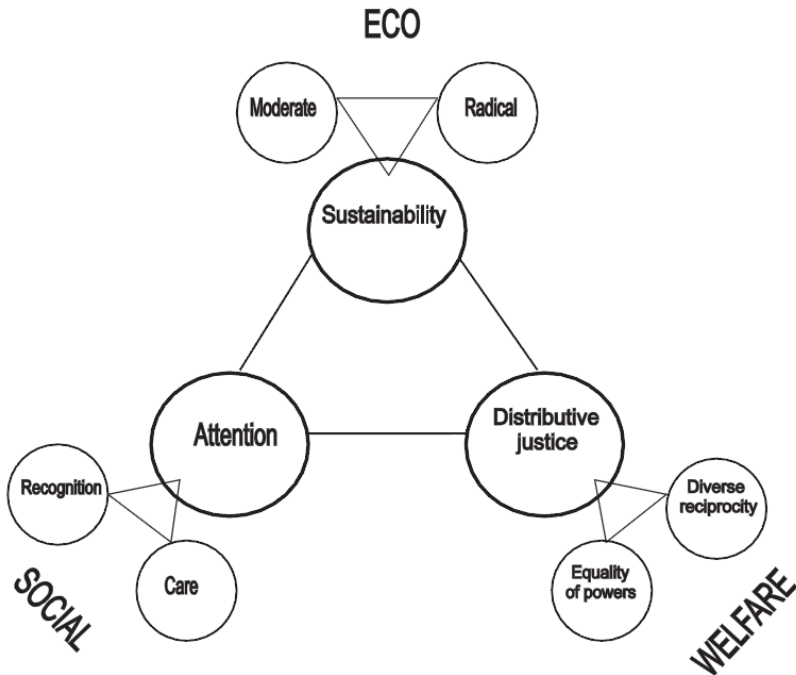
1. 생태복지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을 신자유주의 패러다임과 생태주의 패러다임 등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는 경향이 있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서구적 사고나 세계관이 지배해 온 인간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반면, 생태주의 패러다임은 산업화에 의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라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비판하고, 조화와 공존에 의한 사회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인간중심에서 생태중심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대립보다는 공존과 상생으로, 개발과 풍요보다는 보존과 나눔으로 인류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려는 방식이다. 이러한 생태적 지향은 자신뿐 아니라 사회 전체와 타인, 나아가 생물종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지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적 존재가 생명적 관점에서 동일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생명중심적 평등을 주장한다(박영미, 2004).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제사회는 인간복지와 생태계 복지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형 복지를 추구하고자 ‘밀레니엄에코시스템 평가단(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 MA)’이라는 국제전문가연대그룹을 발족하였고, 생태복지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복지를 둘러싼 연구는 크게 생태주의 이념중심의 생태복지 접근, 생태주의 진영의 국가론적 접근, 복지국가론의 생태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생태주의 이념 중심의 생태복지 접근은 생태주의 이념을 중심에 두고 사회복지를 재평가하여 생태공동체 및 지역자립형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생태주의 진영의 국가론적 접근은 생태국가론(녹색국가론)과 생태복지국가론으로 대별된다(이정필, 2011). 복지국가론의 생태적 접근은 복지국가의 한계를 인식하여 인간과 다른 체계와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중심으로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체계적 관점을 강조한 생태체계모델 등을 제시하고 있다.

Fitzpatrick(2003)은 생태복지를 사회민주주의(social welfare)와 신생산주의

(post-productivism)의 결합인 생태사회적 복지(ecosocial welfare)로 정의하고, 생태복지의 주요특성으로 평등주의, 다문화적 자유주의, 페미니즘, 환경주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미래 세대의 이익과 분배정의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분배정의, 집중(attention), 지속가능성을 생태복지의 3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다.



출처 : Fitzpatrick, 2003

〈그림 2-10〉 생태복지의 모델

최재천 등(2009)은 생태복지를 생태환경과 경제관계를 연계한 기존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에 복지개념을 도입한 확장된 개념으로 보고 ‘생태계와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인간복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협의의 의미로는 건강한 생태계 유지, 인간의 건강복지를 위한 친환경적 생태계의 활용, 그리고 이를 통한 질병 등의 사전예방과 건강한 삶의 추구, 광의의 의미로는 궁극적으로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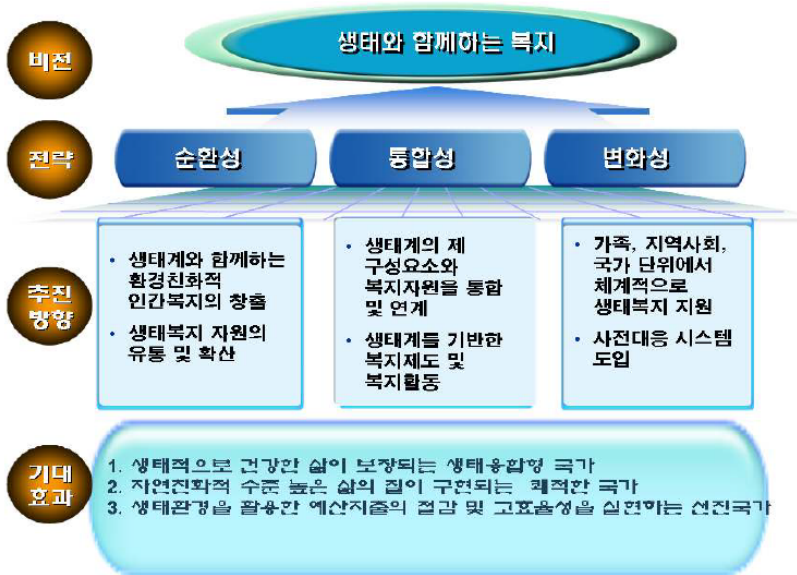
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를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복지가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인간과 환경의 조화, 지속가능성, 평등성, 다양성, 사전대응성과 같은 다섯 가지 개념적 요소들을 토대로 생태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The Well-being of Nations’의 국가복지 지표를 도입해 한국형 생태복지를 실현할 전략계획 모델을 제시하였다.



출처 : 이화여자대학교 등, 2009

〈그림 2-11〉 생태복지의 개념도

또한 한국형 생태복지콘텐츠 발굴을 위해 국내 생태도시들의 생태복지 및 인간복지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형 생태복지를 위한 평가기준 개발을 제안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시한 생태복지 전략계획의 비전은 <그림 2-12>와 같다.



출처 : 이화여자대학교 등, 2009

〈그림 2-12〉 생태복지 전략계획의 비전

생태복지와 관련해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대체로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하나는 환경복지(environmental welfare)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복지(ecowelfare) 또는 녹색복지(green welfare)이며(이화여자대학교 등, 2009), 유사개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10>).

생태복지의 의미와 배경, 관련 유사개념을 살펴본 결과, ‘생태복지’는 인간 중심에서 생태중심으로, 개발과 풍요에서 보존과 나눔의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심층생태주의적 관점과 사회생태주의적 관점을 아우르고 생태, 복지, 경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하도록 하며, 생태계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를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복지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10〉 생태복지 관련 유사개념

구분	개념	주요 내용	비고
환경복지	자연의 한계를 존중하면서 환경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정책 결정과정 참여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고, 환경비용과 편익이 공평하게 배분되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고재경, 2012)	○ 환경복지 정책 추진방향 -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형평성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서비스 강화 -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자연환경복지 ○ 복지의 숲
녹색복지	경제체계, 생태체계, 복지체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데, 사회복지에 생태주의적이나 환경주의적 관점을 접목시키는 포괄적 개념(이정필, 2011)	○ 녹색복지의 정책영역 - 생태체계 : 자연재해, 농업피해 - 복지체계 : 공중보건, 에너지 빈곤 - 경관체계 : 녹색사회적 경제, 기후변화 대응 및 전환기금	○ 나눔의 숲 ○ 환경정의 ○ 생태계서비스
산림복지	국민에게 산림이 제공하는 평등한 자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산림청, 2011)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 탄생기(태교의 숲), 유아기(숲속 유치원), 아동청소년기(숲속수련장), 청년기(산악레포츠단지), 중장년기(자연휴양림), 노년기(산림요양마을), 회년기(친환경 장묘서비스)	○ 생태계복지지수

※ 생태계복지지수(Ecosystem Wellbeing Index, EWI) : IUCN은 국가복지를 평가할 때 인간복지와 생태계복지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었으며, 생태적 발자국과 환경지속가능성지수와 같은 글로벌 지수보다 국가별 환경조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토지, 물, 공기, 생물종과 유전자, 자원이용의 5개 범주 총 51개 지표로 구성

※ 생태계서비스 : 식량, 담수, 기후조절, 홍수방지, 공기정화, 휴양, 심미적 즐거움 등 자연으로부터 오는 혜택으로, 새천년생태계평가는 생태계서비스를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원서비스의 4가지 범주로 구분

2. 생태복지도시

도시관리 차원에서 기존의 생태도시와 유사한 맥락에서 ‘생태복지도시’, ‘녹색복지도시’와 같은 용어가 복지, 생태의 단순병렬식 결합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생태복지의 개념이 적용된 ‘생태복지도시’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및 조성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생태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2006년 스웨덴이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석유독립’ 선언을 발표하면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에너지 낭비와 환경파괴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와 분배의 악순환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인정받아 ‘녹색복지국가’(green welfare state)를 지향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현재 통합진보당의 심상정(2007)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에서 개발주의국가를 지양하고 자연, 인간, 복지가 어우러진 ‘생태복지국가’의 비전이 제시되었고, 홍성태(2009)는 ‘생태복지국가’를 생태적 한계를 존중하는 복지국가로 보고, 민주주의, 복지주의, 생태주의를 핵심적 이념으로 추구하여 토건업보다 환경, 복지, 문화, 교육을 확대·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생태복지국가’ 또한 아직까지는 정치적 슬로건 이상의 실질적 내용이 제시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생태도시 및 생태마을 중 복지 및 경제부문을 고려하여 조성된 사례를 분석하여 생태복지도시의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1) 브라질 꾸리찌바 생태도시

브라질 남부에 위치한 꾸리찌바는 인천시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도시로, 제3세계의 전형적인 대도시이지만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생태도시이다.

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주요 간선교통축을 따라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건설하였고, 지구 간 순환버스 노선을 도입했으며, 지선 노선도 완벽하게 구축했다. 또한 이와 함께 사람들이 간선으로부터 지구 간, 지선이나 위성도시 간 버스를 환승할 수 있는 대형 버스터미널을 5개 주요 교통축의 양끝에 건설하였으며, 각 급행버스 노선을 따라 대략 1.4~2km마다 중형 터미널을 입지시켜 승객들의 환승편의를 획기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특수교통통합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병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전화를 하면 특수차량이 직접 달려가는 수요반응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망이 완비되어 있고, 세계적인 규모의 보행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일명 “꽃의 거리”라 불리는 이 보행자전용공간은 연장이 1km가 넘어 코펜하겐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보행자전용공간인 스트뢰에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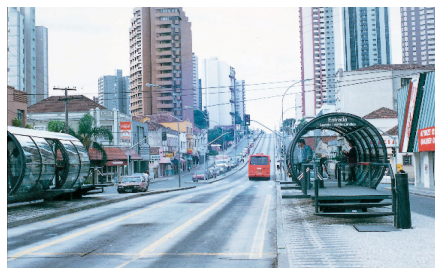
꾸리찌바에는 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혁신적인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이 크게 4가지가 있다. ‘쓰레기 아닌 쓰레기’ 프로그램, ‘쓰레기 구매’, ‘녹색교환’, 그리고 시청이 은퇴자 및 실업자들을 임시로 고용해 쓰레기가 산처럼 누적되어 있는 시의 특별지역이나 나대지를 청소하는 ‘뚜도 림쁘’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모아온 재활용품을 학용품이나 식품백과 교환해 주는 ‘녹색교환’ 프로그램은 도시빈민들에게 경제적 편익을 줄 뿐만 아니라 꾸리찌바와 주변농촌지역에서 생산된 채소, 과일 등 소농의 잉여농산물을 흡수하는 데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꾸리찌바시 근교인 캄뻬마르고의 단결농장에 입지한 재활용공장은 알코올중독자와 극빈층 사람들에게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일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시민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골라낸 생활소품에서부터 누렇게 변한 사진, 동전 및 지폐, 그림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가사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는 ‘쓰레기 아닌 쓰레기 박물관’이 있고, ‘작은 학교’라고 불리는 어린이 환경교육 교실도 있다.

저비용으로 하는 창조적인 노력은 하천관리와 공원·녹지 조성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1971년에 주민 1인당 불과 0.5m²의 녹지만을 가진 황폐한 도시에 지나지 않았던 꾸리찌바가 오늘날에는 52m²의 녹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유엔과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수치의 4배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면적으로 선진국의 도시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이다.

70년대 초반 시장이었던 레르네르는 시 정부가 도시전역에 나무를 심고 그늘을 마련하는 ‘그늘과 신선한 물’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하천 주변지역 까지도 토지이용법률에 따라 철저히 개발을 규제하면서 원형보존하였다. 동시에 홍수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하천과 인접한 지역에 선형공원을 개발하고 우수지 역할을 담당하는 호수를 조성하였다. 그 결과 꾸리찌바에는 브라질의 도시공원 중에 가장 큰 이과수 공원과 동물원, 그리고 자연림, 조깅 코스, 자전거도로 등을 곁고루 갖춘 바리귀 공원과 사웅 로렌소 공원 등 많은 공원이 탄생했으며, 많은 시민이 찾고 있다. 또한 버려진 채탄장과 석산개발이 끝난 부

지를 대상으로 자연복원사업을 벌여 땅구아 공원과 오페라하우스, 환경개방대학 등을 조성하고, 쓰레기 투기장이었던 곳을 식물원으로 개조하기도 했다.



a. 꾸리찌바의 친환경교통시스템



b. 꾸리찌바의 환경개방대학

출처 : <http://www.makehopecity.com/>

〈그림 2-13〉 꾸리찌바의 현황

2) UK 토트네스 전환도시

영국 북동부의 토트네스는 2030년까지의 ‘석유에너지 독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에너지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절반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토트네스 재생가능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6가구 이상을 모아 태양광 설치, 에너지 절약, 단열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우면서 전기와 가스, 수도 요금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토트네스의 경제는 건강한 먹을거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내 중심가의 모든 식료품 가게와 정육점은 로컬푸드를 판매하고, 레스토랑이나 카페도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먹을거리 외에도 가죽구두와 유기농 면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그린파이버와 유기농 슈퍼마켓 그린라이프, 친환경 그린카페 등 녹색상품 판매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토트네스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a. 토트네스 전경



b. 지역식품 판매점

출처 : <http://plug.hani.co.kr/>

〈그림 2-14〉 토트네스의 현황

3) 독일 베를린 우파파브릭(UFA Fabrik) 도심형 문화생태마을

국제문화센터 우파파브릭은 베를린 중심가에 다소 떨어진 외곽지대에 위치하여 젊은 현대예술가의 교류를 지원하고 지역문화를 연계하여 전문 예술인은 물론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복합문화공간과 레저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우파파브릭은 이전에 영화제작소(우파 유니버설 필름스튜디오, Ufa-Universal Film Studio)로 이용되던 유희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형태로 개조하고 1979년 개관하여 예술, 문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 생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매년 20만명의 관람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종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한 500개 좌석을 보유한 야외공연장과 180개, 350개 좌석을 보유한 두 개의 실내 공연장, 녹음실을 갖춘 음악스튜디오, 댄스스튜디오, 마샬(martial arts) 스튜디오, 유기농카페, 게스트하우스, 지역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대안학교(free school) 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서커스 워크숍과 아이들이 직접 농장에서 말, 돼지, 닭, 거위 등을 키우는 동물농장과 유기농농장, 패밀리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커뮤니티를 연계한 유기농 베이커리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파베이커리에서는 주민들이 빵 제조법을 체험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빵은 유기농 전문 숍에서 판매한다. 우파베이커리는 지역자치와 협업하는 전문 유기농 식품 산업으로 성장하여 베를린 시가지 80여개의 전문 베이커

리, 유기농 슈퍼마켓, 레스토랑, 생활협동조합에도 공급하고 있다.

최근 우파파브릭에서는 건물지붕 위에 태양에너지 모듈을 설치하여 내부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붕위에 잔디를 심어 실내 보온을 높이고 자체적으로 수조를 보유하여 빗물을 모아 이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등 환경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파파브릭은 이러한 지역 자치적인 운영과 전문 예술인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적인 문화 고립을 극복하고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우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a. 우파파브릭 전경



b. 어린이농장 체험모습

출처 : <http://www.uffafabrik.de/en/index.php>

〈그림 2-15〉 우파파브릭의 현황

4) 영국 핀드혼 농촌형 생태마을

영국 북동부의 핀드혼 공동체는 지난 60년대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아일린 캐디, 피터 캐디 부부에 의해 시작된 이후,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생태마을 프로젝트를 도입해 마을단위의 풍력발전과 친환경 하수처리 장치, 공동체 농장, 태양광 코하우징 주택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연간 1만 명 이상의 국내외 방문객을 끌어 모으는, 정주민 450여 명의 건강한 마을로 성장했다.

핀드혼 생태마을 프로젝트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친화적인 주거건물을 세울 것, 둘째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출 것, 셋째 지역 단위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넷째 문화적 다양성과

구성원들의 총체적 건강을 지향하는 사회적 가족 공동체를 실현할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오폐수를 처리하는 ‘리빙 머신’이라는 이름의 정화장치를 설치하여 개구리밥과 같은 수생식물과 물벼룩, 물달팽이와 같은 수생동물을 차례로 담아놓은 탱크를 통과하면서 자연 정화한다. 또한, 마을 변두리에 75kW의 전력생산능력이 있는 풍력발전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 하나가 마을 전체 전력소비의 20%를 충당한다. 앞으로 두 기의 풍력발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핀드혼은 생태건축, 재생에너지, 친환경적 하수처리, 숲 가꾸기, 민주적인 의사소통, 유기농업 등 생태적 삶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유기농법, 생태건축, 재생에너지 설계, 하수 처리, 생태마을의 공간 조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 등에 대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천 성소(Open Air Sanctuary), 공원 성소(The Park Sanctuary), 자연 성소(Nature Sanctuary와 같은 명상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다.



a. 핀드혼의 전경



b. 핀드혼 명상센터

출처 : <http://www.findhorn.org/aboutus/ecovillage/>

〈그림 2-16〉 핀드혼의 현황

5) 관련사례 및 문헌에서 도출한 생태복지도시 구성요소

앞서 살펴본 관련사례 및 생태도시조성지침 등 문헌 등에서 다루고 있는 생태복지도시의 요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도시생태, 건축물/주거, 에너지, 교통, 자원순환, 문화, 커뮤니티의 7가지 요소가 생태복지도시의 주요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다.

〈표 2-11〉 생태복지도시 관련문헌 및 사례의 구성요소

구분	브라질 꾸리찌바	영국 토트네스	독일 우퍼파퍼빅 도심형 생태마을	영국 핀드혼 농촌형 생태마을
구성요소	◦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 - 간선교통축 통합 - 간선급행버스(BRT) - 특수교통통합체계(장애인 편의제공) - 자전거도로/보행자전용도로 ◦ 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공원녹지 조성 - 폐채탄장, 쓰레기투기장 복원 - 바이오시티 프로그램 (생물다양성 증진) ◦ 공동체형 문화 - 빈민가 도서관 - 공장, 창고 등 활용 - 근대 문화유산 보존·복원 ◦ 시민맞춤형 사회복지 -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 민중식당 운영	◦ 건축물/주거 - 생태건축 - 코하우징 ◦ 교통 ◦ 농업/먹거리 - 지역 식품 판매점 및 식당 - 가든 세어링(텃밭) ◦ 에너지 - 석유에너지 독립계획 ◦ 문화/교육 - 예술 네트워크 - 커뮤니티 - 내적 전환(영양 등) ◦ 재활용	◦ 아트/문화 ◦ 레저/커뮤니티 - neighborhood center ◦ 아동가족 - 어린이농장/가족농장 ◦ 교육 - 대안학교 ◦ 음식/음료 - 공동체 카페 - 유기농식품 기계 ◦ 생태/지속가능성 - 에너지 - 냉각(cooling) - 소음저감/폐기물 - 빗물관리체계 - 식생/대기(옥상정원 등)	◦ 소셜 디자인 ◦ 생태건축 ◦ 재생가능한 에너지 - 태양광시설 - 윈드파크 ◦ 생태적 패수처리 - 리빙머신 ◦ 유기농 생산품 ◦ 지속가능한 경제 ◦ 생태미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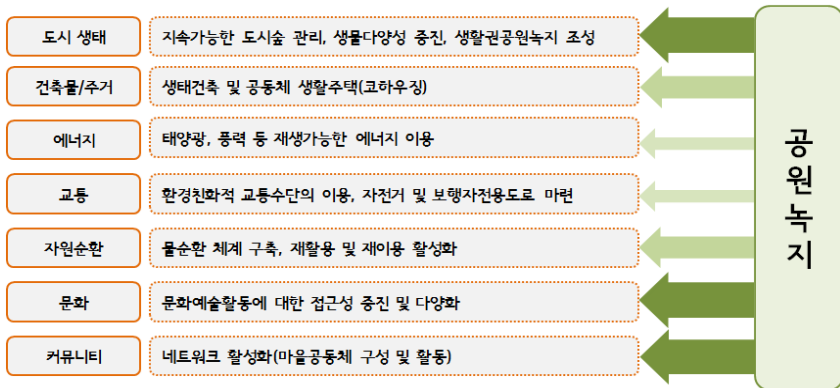
〈표 계속〉 생태복지도시 관련문헌 및 사례의 구성요소

구분	심상정(2007)*	이정필(2011)**	최재천 등(2009)***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지침(2007)
구성요소	○ 국토생태 - 생태주의 재장인프라 ○ 농업/농촌과 먹거리 - 생태복합형 농촌공동체 - 친환경 농업체계 구축 - 친환경 귀농지원사업 추진 -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적응 - 자연재해 - 농업피해 ○ 공중보건 - 기후관련 질병 ○ 에너지 빈곤 - 에너지 복지 ○ 녹색사회적 경제 - 녹색일자리 - 녹색사회적기업 ○ 기후변화 대응 및 변화기금 - 친환경 세제 및 기금	○ 기후변화 대응 - 열대성질환 - 중후군 관리 ○ 저출산고령화 대응 - 환경불임 예방 - 안전먹거리 - 친환경 실버문화 ○ 정신문화복지 - 생태문화 - 생태관광 - 생태교육 - 생태테크레이션 ○ 생태환경 연계 - 지역사회단체 연계 - 분쟁조정 - 통합조사	○ 사회문화적 지속성 - 사회개발커뮤니티, 오픈스페이스 - 사회적 활동을 위한 주택건설 - 역사문화적 지속성 확보 ○ 경제적 지속성 - 자족시설용지 조성 - 개발유보지 확보 - 홍수예방 등을 위한 유수지 조성 ○ 환경적 지속성 - 자연순형 개발, 접근성 제고, 밀도 - 대중교통체계 확립(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 - 에너지이용 및 자원순환 - 생태적 환경조성(공원녹지) - 정경환경 조성 - 첨단정보통신환경 조성 등 ○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한 계획

* 심상정, 2007, 심상정의 녹색약속

** 이정필, 2011, 녹색성장에서 녹색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생태복지의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

*** 최재천 등, 2009, 생태복지의 개념 및 적용모델 개발



〈그림 2-17〉 생태복지도시의 구성요소

7가지 구성요소 중 문화와 커뮤니티는 하드웨어적 특성의 다른 요소들과 다른 소프트웨어적 특성을 가지는 구성요소이므로 다른 요소들과 결합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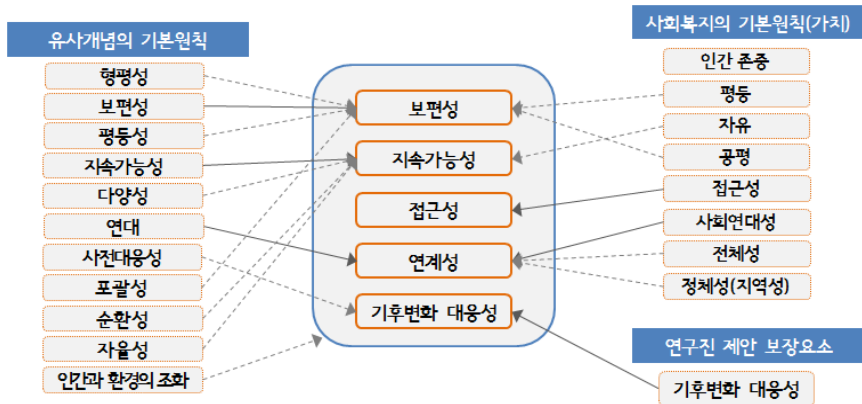
이 중 이 연구에서는 생태복지도시 구성에 중요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요소인 ‘도시생태’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공원녹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¹⁾.

제3절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

1. 공원녹지분야 기본원칙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의 기본원칙은 생태복지 및 관련 유사개념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 및 특성을 종합하고 사회복지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공원녹지는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내의 공원과 조성된 녹지 및 자연녹지를 포함하는 용어이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나무·잔디·꽃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에 한하여 지칭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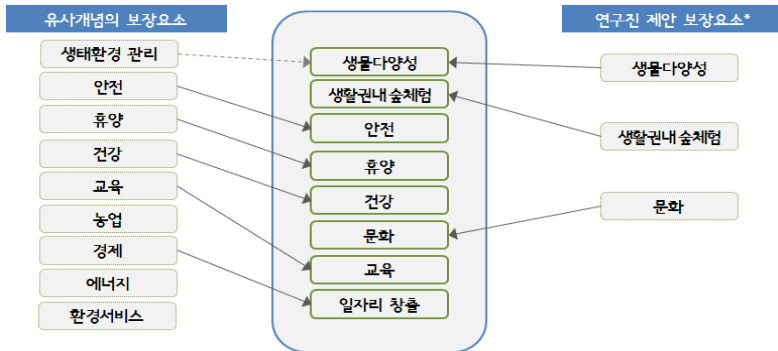


(그림 2-18) 공원녹지분야 생태복지의 기본원칙

- 보편성 : 공원녹지 혜택은 모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지속가능성 : 공원녹지 혜택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접근성 : 공원녹지 혜택은 물리적, 신체적, 경제적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적으로 접근하여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연계성 : 공원녹지 혜택은 공공 및 민간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기후변화 대응성 : 공원녹지 혜택은 기후변화 적응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2. 공원녹지분야 보장요소

보장요소는 유사개념 및 관련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보장요소 중 공원녹지가 제공하는 생태서비스의 범주와 서울시의 도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공원녹지를 통한 서울시 생태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보장요소는 <그림 2-19>와 같다.



* :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보장요소인 생물다양성, 생활권내 숲체험, 문화는 제3장에서 다루어지는 시민수요조사결과를 피드백하여 반영한 것임

〈그림 2-19〉 공원녹지분야 생태복지의 보장요소

3.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 정의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는 서울시민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공원녹지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앞서 도출된 기본원칙을 토대로 각각의 보장요소별 현황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면 <그림 2-20>과 같다.



〈그림 2-20〉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의 개념

제3장 생태복지 현황분석 및 수요조사

제1절 보장요소별 현황분석

제2절 생태복지 수요조사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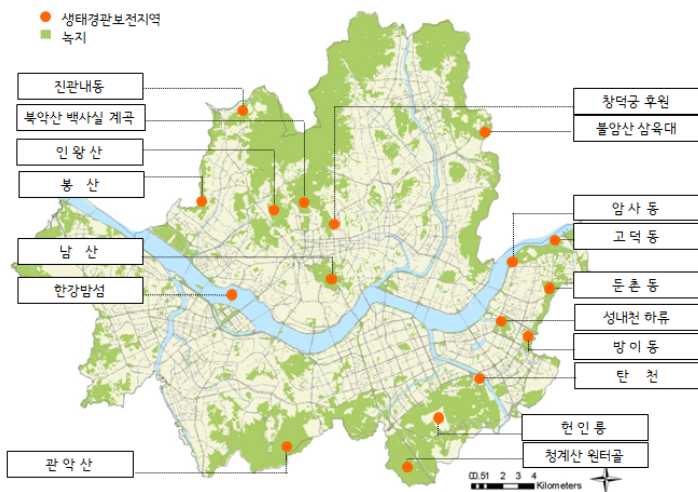
생태복지 현황분석 및 수요조사

제1절 보장요소별 현황분석

1. 생물다양성

1)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울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인위적 훼손 및 오염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현황은 1999년 1개소(한강밤섬), 2000년 1개소(둔촌동), 2002년 4개소(탄천, 방이동, 암사동, 진관내동), 2004년 2개소(고덕동, 청계산 원터굴), 2005년 1개소(현인릉), 2006년 3개소(남산, 불암산 삼육대, 창덕궁 후원), 2007년 2개소(봉산, 인왕산), 2009년 3개소(성내천하류, 관악산, 백사실계곡) 등 총 17개소 4,807,327㎡에 이른다. 그리고 2014년까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격년으로 1개소씩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림 3-1〉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a. 암사생태경관보전지역



b. 고덕생태경관보전지역

〈그림 3-2〉 생태경관보전지역

〈표 3-1〉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구분	위치	면적(m)	지정일	특성(지정사유)	비고
합 계	17개소	4,807,327			
한강밤섬	여의도동 당인동일대	273,503	'99.08.10	도심속 철새도래지(하천생태계)	
둔촌동	둔촌동 212일대	24,696	'00.03.06	습지 및 오리나무림(습지생태계)	
탄천	탄천2교~대곡교	1,151,466	'02.04.15	도심속 자연하천(하천생태계)	
방이동	방이동 443-8일대	58,909	'02.04.15	생물다양성 풍부(습지생태계)	

〈표 계속〉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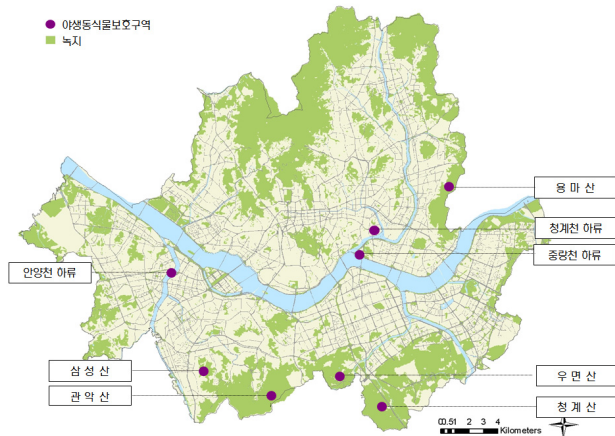
구분	위치	면적(㎡)	지정일	특성(지정사유)	비고
암 사 동	한강 광나루지구	126,844	'02.12.30	한강변 자연호안(하천생태계)	
진관내동	진관내동 78일대	16,639	'02.12.30	생물다양성 풍부(습지생태계)	
고 덕 동	암사취수장~강일IC	320,377	'04.10.20	한강변 자연호안(하천생태계)	
청 계 산 터 골	원지동 산4-38일대	146,281	'04.10.20	낙엽수림대 발달(산림생태계)	
현 인 림	내곡동 산13-1	56,639	'05.11.24	오리나무군집 발달(습지생태계)	
남 산	예장동 산4-38일대	705,101	'06.07.27	신갈나무군집 발달(산림생태계)	
불 암 산 삼 육 대	공릉동 산223-1일대	204,271	'06.07.27	서어나무군집 발달(산림생태계)	
창 덕 궁 후 원	와룡동 2-71일대	440,707	'06.07.27	갈참나무군집 발달(산림생태계)	
봉 산	은평 신사동 산93-16	73,478	'07.12.27	대규모 팔배나무군집(산림생태계)	
인 왕 산	홍제동 산1-1일대	258,098	'07.12.27	수려한 자연경관(기암과 소나무 등)	
성내천하류	방이동 88-6일대	69,566	'09.11.26	도심속 자연하천(하천생태계)	
관악산	신림동 산56-2일대	748,174	'09.11.26	회양목군락 자생지(산림생태계)	
백사실계곡	부암동 산115-1일대	132,578	'09.11.26	자연생태 및 경관 우수(산림생태계)	

※ 경계설정방법 전환에 따른 면적 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50, 2008.12.18) : 한강밤섬, 탄천, 암사동 등 3개소

2)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구역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 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 야생동·식물 보호구역’과 야생동물 포획금지 등 일반적인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군·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는 시·도 보호구역 2개소와 시·군·구 보호구역 7개소 등 모두 9개소의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보호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지정한 시·도 보호구역인 ‘우면동 야생동물(두꺼비 서식지) 보호구역’ 및 ‘수락산(고란초 자생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특정 야생동물과 야생식물을 보호대상종으로 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림 3-3〉 서울시 법정보호지역 현황

〈표 3-2〉 서울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현황

구 분	지 역	소 재 지	설 정 면 적 (ha)				지정 연도
			계	산림	농경지	기타	
총 계	9개소		920	920	-	-	
서울시 보호구역	우면산 두꺼비서식지	서초구 우면동 산34-1외 1필지	1.8	1.8	-	-	2007
	수락산 고란초자생지	노원구 상계동 산153-1 일대	3.1	3.1	-	-	2008
자치구 보호구역	관악산	관악구 신림동 산54외 3필지	300	300	-	-	1991
	삼성산	관악구 신림동 산56-2외 4필지	200	200	-	-	
	청계산	서초구 원지동 산78-5외	301	301	-	-	1991
	우면산	서초구 우면동 산114-1외	110	110	-	-	
	중랑구1	중랑구 면목동 산1-1	1.0	1.0	-	-	2008
	중랑구2	중랑구 면목동 산1-3	2.3	2.3	-	-	
	중랑구3	중랑구 망우동 산57-4	1.0	1.0	-	-	

3) 철새보호구역

서울시는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철새가 많이 관찰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철새의 서식환경 개선과 도심 하천내 철새유입 증진과 함께 주민 및 학생들에게 생

태학습장, 휴식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랑천 하류 등 3개소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005년 2월에 중랑천 하류지역(청계천과 중랑천 합수부~중랑천과 한강의 합수부) 3.3km(591,407m²) 구간이, 2006년 3월에 청계천 하류지역(고산자교~청계천과 중랑천 합수부) 2.0km(361,316m²) 구간이, 2007년 5월에 안양천 하류지역(오목교~목동교) 1.08km(318,800m²) 구간이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철새보호구역의 주요 철새는 오리류(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청둥 오리, 쇠오리 등), 갈매기류, 황조롱이 등으로 매년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철새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 내에서의 포획·채취 및 농약 살포, 형질 변경 등의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림 3-4〉 중랑천~청계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2. 생활권내 숲체험

서울의 공원녹지는 총 14,272.17ha로 전체 숲 면적의 23.6%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과 수목의 도시림 면적은 관악구(764.43ha)가 가장 넓으며 강북구(11.90ha)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법에 의한 공원녹지는 노원구(1,364.27ha)가 가장 넓으며 구로구(29.94ha)가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

〈산림법상의 도시림〉

- 산림
- 학교숲
- 하천변 녹지

〈공인법상의 도시림〉

- 도시자연공원
- 근린공원
- 어린이공원
- 경관녹지
- 완충녹지

또한 2012년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 추진’이라는 목표하에 서울그린트러스트와 동네숲, 주머니텃밭 가꾸기,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숲 가꾸기, 푸른서울 가꾸기 사업 녹화재료 지원, 녹색자금 활용 녹색희망 나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3〉 생활권 숲조성 관련사업 추진현황 및 내용(1998~2010년)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그린웨이 조성	-도로구조 개선(차도축소, 보도확장) 및 수목식재 등을 통해 보행자 위주의 숲길과 같은 길을 조성함	-53개소('99~'10) -연장 27.3km
동네뒷산 공원조성	-동네뒷산에 휴식 및 운동시설 설치, 산책로 정비, 수목식재 등으로 공원을 조성함	-65개소('07~'10) -녹지조성 737,258㎡
지정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성	-구별 지정보호수 주변에 정자마당을 조성하여 인근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만남과 화합을 위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공간으로 활용함	-24개소('98~'09) -녹지조성 18,105㎡
1동1마을 공원조성	-공원이 없는 주택밀집지역에 공원을 조성해 언제든지 운동과 휴식 이 가능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	-16개소('03~'09) -녹지조성 54,494㎡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도로변 녹식물 증진 및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을 그린커뮤니티로 창출함	-122개소('05~'10) -담장철거 25,31km -녹지조성 141,327㎡
옥상공원 조성	-건물 옥상을 공원화하여 도시열섬현상 저감, 냉난방에너지 절약, 소음저감, 건물미관 개선, 식물서식공간,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함	-337개소('02~'09) -녹지조성 151,374㎡
열린 학교 조성 (학교공원화)	-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운동장 주변과 유휴공지에 나무를 심어 녹음이 우거진 푸른 교정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기능을 함	-815개교('01~'10)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녹지조성	-가로변 유휴공지(중앙분리대, 보도 유휴공지, 안전지대)를 발굴하고 녹지로 조성하여 가로변 녹지량을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킴	-102개소('06~'09) -녹지조성 134,917㎡
대학담장 개방 녹지조성	-대학의 담장을 허물고 녹지와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대학 캠퍼스의 개방을 통해 지역 사회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열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	-59개교('03~'10) -담장철거 6.90km -녹지조성 47,332㎡
공공기관 담장녹화	-공공기관의 담장을 허물어 주민휴식공간 및 녹지를 조성함	-80개기관('99~'10) -담장철거 10.32km

3. 안전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면산을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서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와 339세대 약 649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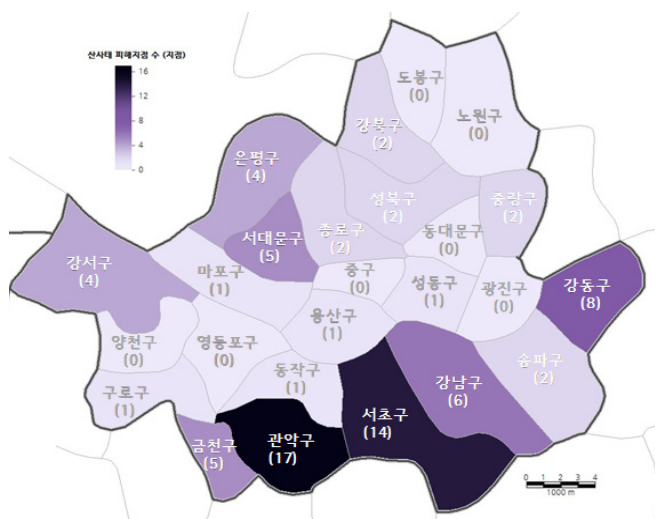


a.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피해

b.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도로 및 주택 피해

출처 : 한국일보

〈그림 3-6〉 폭우로 인한 피해



〈그림 3-7〉 산사태 발생현황(2011년)

〈표 3-4〉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현황

자치구	산사태피해지점수	자치구	산사태피해지점수	자치구	산사태피해지점수
종로구	2	도봉구	0	금천구	5
중구	0	노원구	0	영등포구	0
용산구	1	은평구	4	동작구	1
성동구	1	서대문구	5	관악구	17

〈표 계속〉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현황

자치구	산사태피해지점수	자치구	산사태피해지점수	자치구	산사태피해지점수
광진구	0	마포구	1	서초구	14
동대문구	0	양천구	0	강남구	6
종랑구	2	강서구	4	송파구	2
성북구	2	구로구	1	강동구	8
강북구	2	-	-	-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산림내 위험시설물을 정비하고, 산사태 원인조사를 하고 있으며, 남산과 우면산, 관악산 등 210곳에 사방담과 보막이, 집수정 등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 복구·예방 사방사업을 추진 중이다.



출처 : 연합뉴스

〈그림 3-8〉 우면산 사방담 조성현황

서울시가 지난 6월 자체 공원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65개 공원 중 295곳에서의 불안요인이 592건으로 나타났다. 공원 불안요인은 청소년 탈선 138건, 노숙인 108건, 취객 103건, 고성방가 87건, 기타 순이었으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공원안전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출처 : 서울시, 2012

〈그림 3-9〉 자치구별 불안요인 발생공원 현황

〈표 3-5〉 자치구별 불안요인 발생공원 현황

자치구	발생공원/전체공원	자치구	발생공원/전체공원
종로구	21/66	마포구	7/96
중구	8/57	양천구	19/99
용산구	10/61	강서구	30/152
성동구	7/57	구로구	18/55
광진구	16/44	금천구	10/44
동대문구	4/88	영등포구	4/87
중랑구	16/57	동작구	7/61
성북구	8/74	관악구	16/94
강북구	18/49	서초구	14/121
도봉구	8/51	강남구	10/120
노원구	12/126	송파구	8/131
은평구	4/89	강동구	11/108
서대문구	8/77	과천	1/1

4. 휴양

수목·야생동물·계곡 등 산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파괴시키지 않고 정신순화, 오락 및 휴식처를 제공하는 휴양림으로 볼 수 있는 공원녹지는 수목원, 삼림욕장, 캠핑장 등이며, 휴양관련 공원녹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6〉 휴양관련 공원녹지 현황

구분	명칭	개요
수목원	홍릉수목원	• 동대문구 청량리동 • 국립산림과학원의 학술적 관리
	푸른수목원	• 구로구 항동 • 2013년 개장 예정
캠핑장	종량캠핑장	• 종량구 망우동 • 오토캠핑 47면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 강동구 길동 • 오토캠핑 8면, 일반캠핑 49면
	난지캠핑장	• 마포구 상암동 • 일반캠핑 194면
	노을캠핑장	• 마포구 상암동 • 일반캠핑 50면

홍릉수목원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연구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주말에만 일반인들에 개방된다. 수목원에는 1200여 종의 나무와 꽃이 심어져 있으며 산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산림과학관이 있다.

푸른수목원은 현재 구로구 항동에 조성 중으로, 주택가와 인접한 푸른수목원 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캠핑장 조성을 폐기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환경교육센터와 작물정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환경교육센터와 함께 설치되는 온실전시관은 녹색에너지 기술이 집약된 친환경 건물로 만들어진다. 사면을 깎아 땅에서 발생하는 지열을 온실 관리에 사용하고 지붕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친환경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가드닝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레인가든 조성을 통

한 빗물 사용, 벽면녹화 등 다양한 친환경 요소도 갖출 계획이다.

서울의 캠핑장은 현재 4곳으로 그 중 2010년 여름 개장한 중랑캠핑숲이 겨울철에도 80% 정도의 이용률을 기록하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고, 전체 18만㎡의 공원 내에 가족단위 오토캠핑장(37,200㎡) 이외에도 청소년문화존, 생태학습존, 숲체험존의 4개 구역에 다양한 시설이 함께 갖춰져 있다.



a. 중랑캠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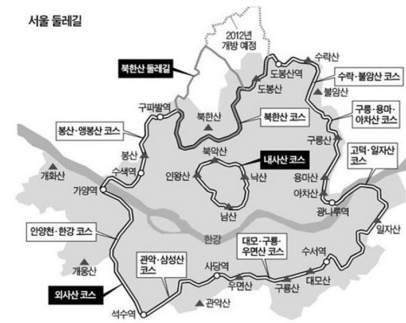
b.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그림 3-10〉 서울 주요 캠핑장

5. 건강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둘레길과 근교산 자락길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둘레길은 역사·문화·자연생태 탐방로 숲길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14년까지 내·외사산길 178km를 연결할 예정으로 크게 남산, 인왕산, 북악산, 낙산을 대상으로 한 서울성곽길(21km)과 관악산, 북한산, 용마산, 봉산을 대상으로 한 외사산둘레길((157km)로 구분하여 경사도를 완화하고, 노면 정비 및 전망대 설치, 수목식재 등을 진행한다. 그 중 북한산 둘레길은 북한산 자락을 가볍게 걸을 수 있도록 다듬은 저지대 수평 산책로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친 전체 71.8km(21개구간)에 물길, 흙길, 숲길, 마을길 형태의 테마로 구성되어 쉽게 자연과 생태를 체험할 수 있다. 근교산 자락길은 장애 없는 산책길을 조성하는 사업

이다. 성북구 북한산 등 총 14개소 30.6km를 대상으로 목재데크(10.6km), 목교 및 전망대 설치, 수목식재, 샛길 폐쇄, 주변 물길정비, 하층식생 보완 등을 추진 중이다. 2011년에는 북한산, 신정산 자락길, 6.4km가 조성되었고, 2012년에는 매봉산, 안산, 관악산 6.5km가 조성 완료될 예정이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그림 3-11〉 서울둘레길 조성 위치도



〈그림 3-12〉 서울 근교산자락길 조성 위치도

6. 문화

시민이 가까운 공원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서 자연생태 체험교실 방식의 프로그램 정착과 함께 대규모 축제 및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표 3-7〉 공원녹지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 로 그 램
남산 벚꽃축제(매년 4월 중순, 남산공원)
보라매가족축제(매년 5월 5일, 보라매공원)
그린플러그드서울(매년 5월, 난지한강공원)
서울숲 별밤축제(매년 7~8월, 서울숲)

〈표 계속〉 공원녹지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 로 그 램
역새축제(매년 10월, 월드컵 하늘공원)
남산걷기대회(매년 9~10월, 남산공원)
서울드림페스티벌(매년 9월, 서울숲)
서울숲 가을페스티벌(매년 10월, 서울숲)
가을풍년축제(매년 10월, 보라매공원)
서울얼음축제(매년 12월 말,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서울팝스 숲속음악회(2012.4~10, 어린이대공원 숲속)
시가 흐르는 서울(2012.5~10, 매주 토요일, 선유도공원)
한여름밤의 꿈(2012.6~8, 서울숲 및 보라매공원, 무용, 중창, 국악 등 공연)
서울숲 꽃사슴 먹이주기(매년 3~10월, 서울숲)
꿈의 숲 구석구석 음악회(2012.7~9, 북서울꿈의 숲)
천호공원 돛자리영화제(2012.5~6, 천호공원)
북한산 아웃도어 페스티벌(2012.5.12~13, 북한산성 제2주차장 등)

최근, 도시농업이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공동체문화, 정서함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구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에서의 문화활동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서울시는 공동체텃밭 및 도시농업 공원 조성, 학교텃밭 조성을 위한 지원, 서울농부의 시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들섬에 조성된 노들텃밭은 노들섬 서측의 테니스장 부지에 22,554m² 규모로 조성되어 2012년 5월 5일 개장되었다. 시민들에게는 총 109구획을 분양하였고, 1,000m²는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맹꽁이논’으로 조성하였다.



a. 노들텃밭 전경



b. 노들텃밭 참여자들의 활동모습

〈그림 3-13〉 노들텃밭 현황

7. 교육

서울시는 1999년부터 서울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대상으로 숲해설 및 생태해설 등 해설중심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프로그램개발실을 두어 영어체험, 계절축제, 창작체험 등 영역과 규모를 확대하였다. 2006년 서울숲공원 개원을 기점으로 공원이용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확대와 동시에 다양화가 이루어져 한강, 청계천, 수목원, 자연관찰원 등 다양한 공원에서 유사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다. 2008년 ~ 2009년에는 공원이용 프로그램 및 행사의 지역별 평준화가 이루어졌으며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차원에서의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었다.

현재 서울의 공원녹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185개로 이 중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30개 정도이다.

〈표 3-8〉 서울시 공원운영프로그램 현황

연 도	운영공원 (개소)	프로그램수 (종)	운영횟수 (회)	참여인원 (명)	예 산 (백만원)	비 고
2005	7	65	1,564	71,084	315	녹지사업소 공원과 통합예산
2006	7	80	1,798	119,628	317	”
2007	8	99	1,898	153,476	350	”
2008	10	115	2,395	246,065	690	통합예산 서울숲 이관으로 예산증가
2009	6	100	3,376	411,520	765	동부푸른도시사업소
2010	5	98	2,523		578	일자리활성화정책으로 행사예산 삭감

출처 : 서울시 푸른도시국, 2010

〈표 3-9〉 주요공원의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2011년)

구 분	프 로 그 램	
서울시 운영 생태 체험 프로 그램	여름방학특별프로그램(종로구)	단체생태탐방(길동생태공원)
	종로구 생태모니터링 자연탐험교실(종로구)	물속에는 누가누가 살까요(길동생태공원)
	인왕산 숲속여행(종로구)	민들레 생태학교(길동생태공원)
	광진구 자연생태체험교실(광진구)	버섯의 신비(길동생태공원)
	광진구 자연생태체험교실(광진구)	새싹생태학교(길동생태공원)
	아차산 숲속여행(광진구)	생태특강(곤충편)(길동생태공원)
	중랑천생태나들이-자연탐사(동대문구)	서울의 산과 하천(길동생태공원)
	곤충아, 중랑천 따라 걷자(동대문구)	식물표본누르미(길동생태공원)
	중랑천애향자-흥부친구, 목화(동대문구)	식물학의 세계(길동생태공원)
	배봉산 숲속여행(동대문구)	역사속 나무이야기(길동생태공원)
	개운산 숲속여행(성북구)	일요가족나들이(길동생태공원)
	성북구 생태모니터링-8월(성북구)	나무액자곤충만들기(길동생태공원)
	오패산 숲속여행(강북구)	지구사랑디자인교실(길동생태공원)
	알록달록 자연만들기교실-진관동 소나무숲 (은평구)	천연염색(길동생태공원)
	앵봉산 숲속여행(은평구)	토요생태학교(길동생태공원)
	용마산자연생태체험교실(중랑구)	한여름, 숲속에선 무슨일이?(길동생태공원)
	숲체험교실(노원구청)	해님이관찰(길동생태공원)
	안산 숲속여행(서대문구)	남산 숲속여행(남산공원관리사업소)
	친환경em환경교실(영등포구청)	여름방학가족식물교실(보라매공원)
	안양천 자연생태체험교실(영등포구)	꿈의 숲 생태체험교실(북서울꿈의 숲)
	안양천초등자연환경프로그램(영등포구)	도자기 물레 체험교실(북서울꿈의 숲)
	신트리공원 자연학습교실(양천구)	생활원에 및 화훼장식(북서울꿈의 숲)
	안양천 자연생태체험교실(양천구)	도자기 페인팅 체험교실(북서울꿈의 숲)
	신정산 숲속여행(양천구)	생태문화교실(서서울호수공원)
	관악산생태탐험대(관악구)	시가 살아있는 공간(서서울호수공원)
	동작구 자연생태체험교실(동작구)	패밀리데이 작은음악회(서서울호수공원)
	청계산 숲속여행(서초구)	창포원 생활원에 및 화훼장식(서울창포원)
	양재천(강남구)	창포원 실내수경재배(서울창포원)
	대모산 숲속여행(강남구)	창포원 여름방학 프로그램(서울창포원)
	일자산 숲속여행(강동구)	서울대공원 숲속여행(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초안산 숲속여행(도봉구)	쭉뽕나라(강서습지생태공원)
	매봉산 숲속여행(구로구)	손수건에 생쪽물들이기(강서습지생태공원)
	호암산 숲속여행(금천구)	배악배악새가 되어보기(강서습지생태공원)
	봉화산 숲속여행(중랑구)	풀꽃세상(숫대만들기)(강서습지생태공원)
	수락산 숲속여행(노원구)	자연물꾸미기(강서습지생태공원)
	개운산 숲속여행(구로구)	집풀공예(강서습지생태공원)
	관악산 숲속여행(관악구)	수생식물 관찰하기(강서습지생태공원)
	곤충들이 뛰하니(길동생태공원)	휘영청 달 밝은 밤에 풀벌레 소리 찌르르 (강서습지생태공원)
	농촌지구체험(길동생태공원)	현미경 관찰교실(선유도공원)
	선유도에서 자연을 느껴보기(선유도공원)	나방 이야기(고덕수변생태복원지)
	재미있는 물과 흙 이야기교실(선유도공원)	두 얼굴 개구리(고덕수변생태복원지)
	자연물로 손수건 물들이기와 창작작품 만들기 (선유도공원)	단체 탐방(고덕수변생태복원지)
	벚꽃을 다루어 공예품 만들기(선유도공원)	습지와 먹을거리(난지생태습지원)
		재미있는 나무이야기(난지생태습지원)

〈표 계속〉 주요공원의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2011년)

구 분	프 로 그 램	
서울시 운영 생태 체험 프로 그램	나뭇잎과 꽃잎을 이용한 장식품 만들기 (선유도공원) 열매 목걸이 만들기(여의도샛강) 손수건 풀물 들이기(여의도샛강) 가족과 함께 생태를(여의도샛강)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여의도샛강) 샛강의 유해식물 배우기(여의도샛강) 샛강 자연 탐사교실(여의도샛강) 나무 곤충 만들기(여의도샛강) 사진 액자 만들기(여의도샛강) 손수건 황토물 들이기(여의도샛강) 자연 그리기(암사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의 식물과 살고 있는 곤충 관찰교실 (암사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생태탐방 원정대(암사생태공원) 여름생생 관찰교실(고덕수변생태복원지) 곤충교실 2탄 물속곤충(수서곤충) (고덕수변생태복원지) 꽃과 나무를 주제로 영어 배우기(선유도공원) 수생식물 탐방교실(선유도공원) 사계절생태놀이(선유도공원) 한강 탐험교실(선유도공원) 곤충이 아닌 거미 이야기(고덕수변생태복원지)	한강 외래생물 바로알기(난지생태습지원) 한지 부채 만들기(난지생태습지원) 꽃심(난지도)에서 꽃심 만들기(난지생태습지원)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난지생태습지원) 한강야생탐구생활 1 벌레들의 진실 혹은 거짓 (난지생태습지원) 남량특집 아간 야생탐험기(난지생태습지원) 난지야생초 그림그림 교실(난지생태습지원) 전문가와 함께 난지한강공원 생물다양성 정밀조사 (난지생태습지원) 창릉천에서 한강까지 야생체험 캠프 (난지생태습지원) 한강야생탐사 길라잡이(난지생태습지원) 산책로 생태탐방(이촌한강공원) 누에데마 체험관 운영(잠원한강공원) 청계천 거미곤충관찰교실(서울시설관리공단) 청계천 수서생물관찰교실(서울시설관리공단) 청계천 맑은물지킴이(천연비누만들기) (서울시설관리공단) 청계천 유아생태탐방(서울시설관리공단) 청계천 현미경관찰교실(서울시설관리공단) 청계천 공작체험교실(서울시설관리공단) 청계천 생태탐방(서울시설관리공단)
국가 운영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우이령숲으로 떠나는 여행(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1박2일 캠프 뒤뜰야영 (북한산국립공원)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아토피 숲 캠프 (북한산국립공원) 초롱이의 환경세상(환경보전협회) 곤충과 친구해요(환경보전협회) 누구의 발자국일까요(환경보전협회)	나무와 친구해요(환경보전협회) 같은 것끼리 모아 버려요(환경보전협회) 물은 돌고 돌아요(환경보전협회) 푸름이이동환경교실(환경보전협회) 초록꾸러기 놀이터(환경보전협회) 여름방학에코스쿨(환경관리공단) 녹색성장체험 체험학습프로그램 (녹색성장체험관·녹색성장위원회)
시민 단체 운영 생태 체험 프로 그램	우면산자락 초록음악회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자원순환의 날 그림그리기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LG와 함께 하는 청소년을 위한 숲교실(생명의 숲) 관악산 숲길 걷기 프로그램(생명의 숲) 흥릉숲 지킴이 활동(생명의 숲) 어린이생태캠프(사단법인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지렁이 EM 지도자 교육 (사단법인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청소년 생명평화캠프 (사단법인 한국교회환경연구소) 그린스쿨(기후변화센터) 기후변화 전문교사 과정(기후변화센터)	숲속편지(서울그린트러스트) 꽃 사슴 먹이주기(서울그린트러스트) 들꽃 속 압화공예(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숲 빨간우체통(서울그린트러스트) 자투리 열린공방(서울그린트러스트) 초록공방-비즈공예(서울그린트러스트) 초록공방-친환경D.I.Y 페인팅강좌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숲 초록글방-동화나무교실 (서울그린트러스트) 어린이공방-엄마짱 아이짱(서울그린트러스트) 자연을 이용한 토피어리(서울그린트러스트) 재미있는 나무이야기(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숲 초록공방-천연염색(서울그린트러스트)

〈표 계속〉 주요공원의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2011년)

구 분	프 로 그 램	
시민 단체 운영 생태 체험 프로 그램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기후변화센터)	타사의 정원(서울그린트러스트)
	어린이환경학교(환경재단)	핸드페인팅(서울그린트러스트)
	숲생태교육(숲연구소)	암사선사유적지 체험생태교실
	숲생태체험교육(햇살숲생태교실)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숲유치원(햇살숲생태교실)	둔촌동습지 체험생태교실
	가족 숲으로의 여행(햇살숲생태교실)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숲치유(햇살숲생태교실)	고덕동습지 체험생태교실
	생태트레킹(햇살숲생태교실)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야생화트레킹(들풀생태마당)	탄천생태교육(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숲유치원(들풀생태마당)	오류초 텃밭수업(여성환경연대)
	생태학교(들풀생태마당)	어린이야생동물학교(녹색연합)
	숲놀이터(들풀생태마당)	생태도시 시민강좌(녹색사회연구소)
	생활체험형 도시녹화 상자텃밭 가꾸기 (서울그린트러스트)	생태 문화체험교실 (환경을 사랑하는 종량천 사람들)

8. 일자리 창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및 4개의 사업소에서 공공산림가꾸기 등 산림 녹색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에는 숲가꾸기, 풀베기, 병해충예찰, 산림재난 감시활동 등이 포함된다.

〈표 3-10〉 서울시 공공산림 가꾸기 및 녹색일자리 사업개요(2009년)

구 분	공공산림 가꾸기	숲길조사 관리원	산림보호 감시원	병해충 예찰단	산불전문진화대
사업내용	숲가꾸기 (가지치기, 솎아 베기, 잡목제거)	등산로 조사 및 관리, 데이터 구축	산림재해분야 (산림훼손, 산불, 산사태 등) 감시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산불위험지역 순찰 진화
계획/선발인원	700/728	6/6	92/109	32/39	50/50
사업기간	'09.1~10	'09.1~12	'09.1~12	'09.1~12	봄철 : 2.1~5.15 가을철 : 2.1~5.15
임금단가/일(원)	40,000	35,000	35,000	별채요원 58,000 기타요원 49,000	50,000
보조수당(원)	5,000	5,000	5,000	5,000	-
사업형태	10개월 일일고용	10개월 일일고용	10개월 일일고용	10개월 일일고용	160일 일일고용
예산(백만원)	9,219	60	879	747	597

제2절 생태복지 수요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범위

생태복지 개념 및 생태복지도시의 구성요소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수준, 공원 녹지를 통한 생태복지 조성의 원칙 및 보장요소에 관한 시민들의 동의정도, 기존 서울시의 공원녹지 분야 사업에 관한 인지여부, 서울시 생태복지도시 정책의 방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정 및 공원녹지 관리사업에 관심있는 성인 남녀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개요는 <표 3-11>과 같다.

〈표 3-11〉 조사 개요

항 목	내 용
조사대상	관련종사자 및 일반시민
표본크기	561명
조사기간	2012년 9월 24일 ~ 10월 9일
조사방법	온라인 서베이(서울연구원 메일링 서비스,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 서울의 공원 뉴스레터 10월호 배너)

2) 설문항목의 구성

거주지역의 환경에 따른 삶의 질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가 느끼는 거주지역에 대한 삶의 질, 환경 쾌적성, 지역의 문제점, 환경관리 항목별 만족도,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요요소를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생태복지에 관한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생태복지 개념 인지여부, 인지경로, 생태와 복지의 관계, 생태복지의 혜택 대상범위 등을 설문항목으로 하였고, 서울 생태복지도시의 구성요소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구성요소별 중요도 및 만족도를 설문항목으로 만들었다. 공원녹지를 통한 서울 생태복지도시 조성방안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생태복지의 기

본원칙에 관한 동의, 보장요소에 대한 우선순위, 기존 서울시의 공원녹지 관련 사업에 관한 인지정도,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생태복지도시의 조성주체 등을 설문항목에 포함하였다. 그 외 재능기부에 관한 참여경험 및 참여 의사 등을 설문항목에 넣었다.

〈표 3-12〉 설문항목의 구성

구 분	조사항목
삶의 질 만족도	거주지역에 대한 삶의 질/환경 쾌적성/지역의 문제점/지역의 항목별 만족도/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항목별 중요도
생태복지에 관한 인식수준	생태복지 개념인지여부/인지경로/생태와 복지의 관계/ 복지혜택 대상범위
생태복지도시의 구성요소	구성요소별 중요도/구성요소별 만족도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방안	기본원칙에 대한 동의정도/보장요소의 우선순위/서울시 관련사업에 대한 인지도/향후 추진사업의 우선순위/조성주체/참여의 기회 제공에 대한 인식
기타	재능기부 참여경험/미참여 이유/ 생태복지도시 조성 시 참여의사/그 외 의견서술
응답자 특성	거주 및 활동지역/연령대/직업

3)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거주 및 활동지역은 서울시가 71%, 그 외 지역이 29%(2), 연령대는 20대가 10%, 30대가 31%, 40대가 29%, 50대가 25%, 60대가 3%, 70대 이상이 1%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직업은 환경, 생태, 복지 등 관련분야 종사자가 41%, 일반 시민이 59%로 조사되었다.

2. 조사결과

1) 삶의 질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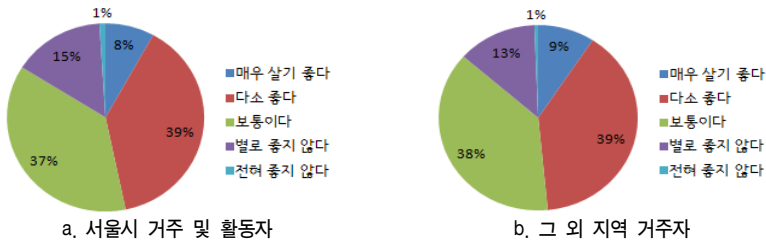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응답자가 생각하는 삶의 질 수준은 매우 살

-
- 2) 조사대상자의 거주 및 활동지역을 서울시로 제한하지 않고, 서울시정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음

기 좋다 8%, 다소 좋다 39%, 보통이다 37%, 별로 좋지 않다 14%, 전혀 좋지 않다 1%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거주 및 활동자가 체감하는 삶의 질과 그 외 지역 거주자가 체감하는 삶의 질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거주지역에 대한 삶의 질

항 목	응답수	응답비율
매우 살기 좋다	47	8%
다소 좋다	218	39%
보통이다	210	37%
별로 좋지 않다	81	14%
전혀 좋지 않다	5	1%
합 계	561	100%



〈그림 3-14〉 거주지역에 대한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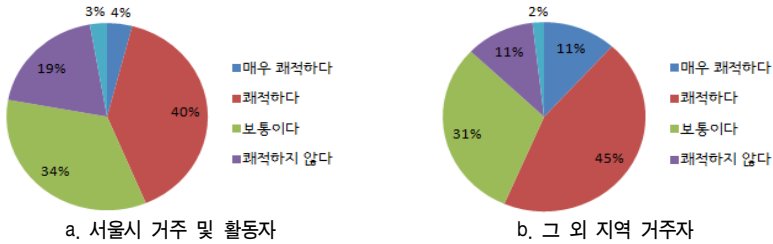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기나 숲 등 환경쾌적성에 대한 의견은 매우 쾌적하다 6%, 쾌적하다 41%, 보통이다 33%, 쾌적하지 않다 17%, 전혀 쾌적하지 않다 2%로 조사되었다. 거주 및 활동지역별 삶의 질은 서울시 거주 및 활동자의 환경쾌적성이 그 외 지역 거주자의 환경쾌적성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거주지역에 대한 환경쾌적성

항 목	응답수	응답비율
매우 쾌적하다	35	6%
쾌적하다	231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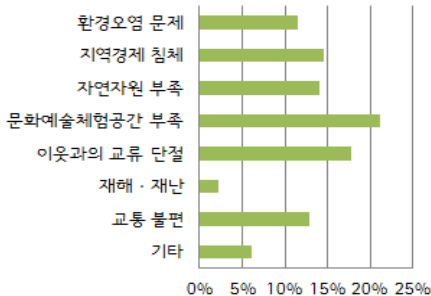
〈표 계속〉 거주지역에 대한 환경쾌적성

항 목	응답수	응답비율
보통이다	186	33%
쾌적하지 않다	95	17%
전혀 쾌적하지 않다	14	2%
합 계	561	100%



〈그림 3-15〉 거주지역에 대한 환경쾌적성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문화예술 체험공간 부족이 21%, 이웃과의 교류 단절이 18%, 지역경제 침체가 15%, 숲·공원 등 자연자원 부족이 14% 순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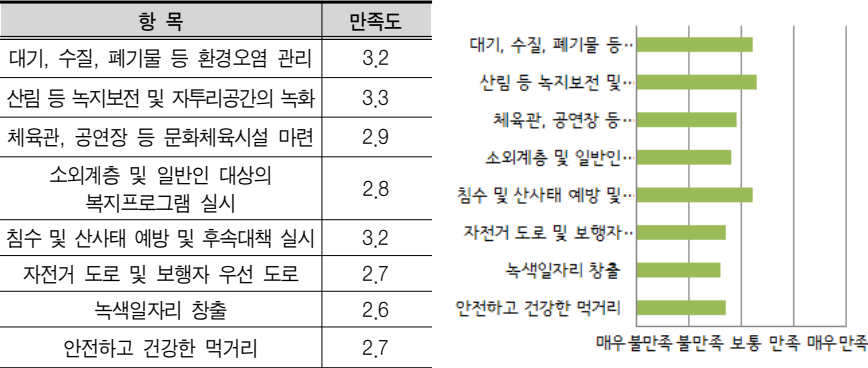


〈그림 3-16〉 거주지역의 문제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과 불만족 사이로 나타났으며, 산림 등 녹지보전 및 자투리공간의 녹화 3.3, 대기, 수질 등 환경오

염 관리 3.2, 침수 및 산사태 예방 및 후속대책 실시 3.2, 체육관, 공연장 등 문화체육시설 마련 2.9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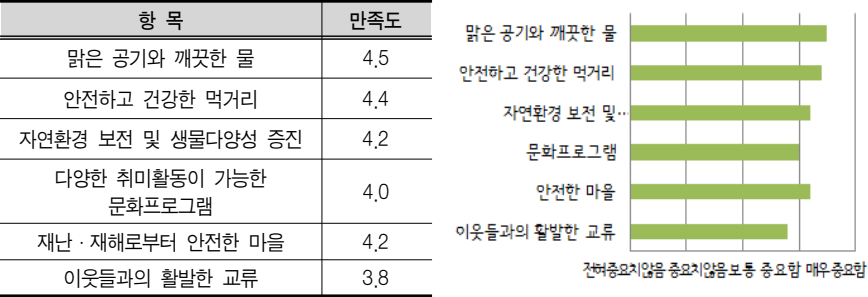
〈표 3-15〉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 만족도 점수는 5점척도방식으로 산출함(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

또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4.5,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4.4,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4.2,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마을 4.2, 다양한 취미활동이 가능한 문화프로그램 4.0, 이웃들과의 활발한 교류 3.8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6〉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요도



* 중요도 점수는 5점척도방식으로 산출함(전혀 중요치 않음 1, 중요치 않음 2, 보통 3, 중요함 4, 매우 중요함 5)

2) 생태복지에 관한 인식수준

생태복지에 대한 개념 인지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예가 58%, 아니오는 42%로 나타났으며 관련분야 종사자는 예가 68%, 아니오는 32%로 조사되었다. 일반시민은 예가 52%, 아니오는 48%로 조사되어 관련종사자의 생태복지 인식수준이 높았으나 일반시민도 50% 이상이 생태복지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생태복지 개념의 인식

항 목	관련분야 종사자	일반시민
예	68%	52%
아니오	32%	48%
합 계	100%	100%

〈표 3-18〉 생태복지 개념의 인식경로

항 목	응답수	비율
논문, 연구보고서 등 연구자료	163	49%
TV, 신문 등 언론매체	112	34%
인터넷	48	14%
기타	9	3%
합 계	332	100%

생태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의견은 생태와 복지는 연관성이 매우 크다 56%, 생태와 복지는 비교적 연관성이 있다 40%, 생태와 복지는 무관하다 4%로 파악되었다. 응답자의 96%가 생태와 복지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생태복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9〉 생태와 복지의 관계

항 목	응답수	비율
생태와 복지는 연관성이 매우 크다	317	56%
생태와 복지는 비교적 연관성이 있다	223	40%
생태와 복지는 무관하다	21	4%
합 계	561	100%

생태복지의 혜택을 받는 대상범위(인간과 동식물)는 인간 중심적이어야 한다 12%, 인간과 동식물이 비슷한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5%, 인간 중심으로 하되, 동식물도 고려하여야 한다 43%로 나타났다.

생태복지의 혜택 대상범위(인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보편적 복지)가 46%,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선택적 복지)가 6%, 두 항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보편적 복지+선택적 복지)는 48%로 조사되었다.

〈표 3-20〉 생태복지 혜택의 대상범위(인간과 동식물) 〈표 3-21〉 생태복지 혜택의 대상범위(인간)

항 목	응답수	비율	항 목	응답수	비율
인간중심	65	12%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	257	46%
인간과 동식물이 비슷한 수준으로 고려	255	45%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4	6%
인간 중심으로 하되, 동식물도 고려	241	43%	두 항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70	48%
합 계	332	100%	합 계	332	100%

3) 서울 생태복지도시의 구성요소

생태복지도시의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는 도시생태, 자원순환, 건축물/주거, 에너지, 교통, 문화, 커뮤니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요소별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과 불만족 사이이며, 문화, 도시생태, 교통, 에너지, 자원순환, 커뮤니티, 건축물/주거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22〉 생태복지도시의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항 목	중요도*	만족도*
도시생태	4.5	3.1
건축물/주거	4.2	2.7
에너지	4.2	2.8
교통	4.1	3.0
자원순환	4.3	2.8
문화	3.9	3.2
커뮤니티	3.9	2.8

* 중요도 및 만족도는 5점척도 방식으로 산출함(전혀 중요치 않음 1, 중요치 않음 2, 보통 3, 중요함 4, 매우 중요함 5 /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함 4, 매우 만족함 5)

4) 공원녹지를 통한 서울 생태복지도시 조성방안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의 기본원칙에 대한 동의정도는 5가지 원칙에 대해 매우 동의함에서 동의함 사이로 확인되었다.

〈표 3-23〉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 기본원칙에 대한 동의

항 목	동의 정도*
보편성	4.6
지속가능성	4.7
접근성	4.5
연계성	4.3
기후변화 대응성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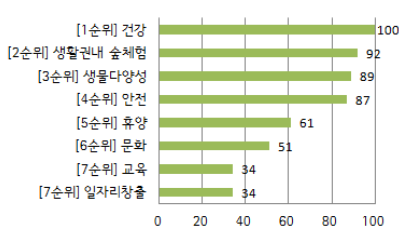
* 동의 정도는 5점척도 방식으로 산출함(전혀 동의하지 않음 1, 동의하지 않음 2, 보통 3,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5)

또한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의 보장요소 중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장요소는 건강, 안전, 생활권내 숲체험, 생물다양성, 휴양, 문화, 교육, 일자리 창출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분야 종사자는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는 반면, 일반시민은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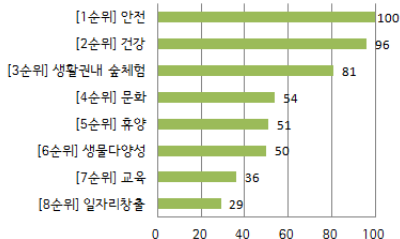
〈표 3-24〉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 보장요소의 우선순위

항 목	우선순위 점수*
[1위] 건강	100
[2위] 안전	97
[3위] 생활권내 숲체험	87
[4위] 생물다양성	66
[5위] 휴양	56
[6위] 문화	54
[7위] 교육	36
[8위] 일자리 창출	32

* 항목별로 획득한 순위점수(선택자수*순위요율)를 합산한 뒤 최고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100으로 하여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상대점수를 산출함



a. 관련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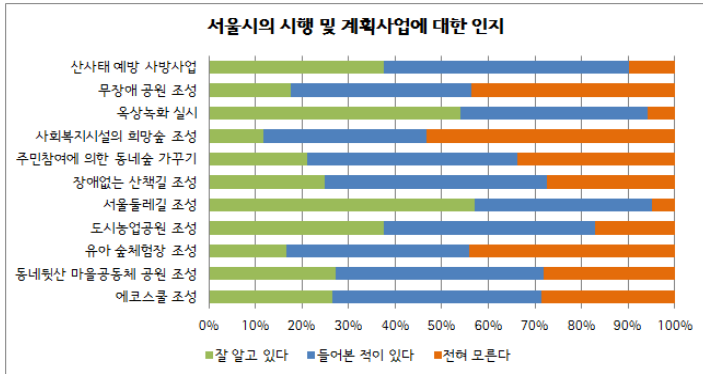
b. 일반시민

〈그림 3-17〉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 보장요소의 우선순위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를 확인한 결과, 11개 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가 30%, 들어본 적이 있다가 43%, 전혀 모른다가 27%로 나타났으며, 관련종사자와 일반시민 간의 인지도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인지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서울둘레길 조성’, 가장 낮은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희망숲 조성’으로 조사되었다.

〈표 3-25〉 서울시의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공원녹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

항 목	관련분야 종사자			일반 시민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에코스쿨 조성(학교공원화)	37%	44%	19%	19%	45%	36%
동네뒷산 마을공동체 공원 조성	35%	44%	21%	22%	45%	33%
유아 숲체험장 조성	23%	42%	35%	12%	37%	51%
도시농업공원 조성(노들, 갈현텃밭)	48%	39%	12%	30%	49%	21%
서울둘레길 조성	61%	35%	4%	54%	41%	5%
장애없는 산책길 조성	31%	48%	21%	20%	48%	32%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숲 가꾸기	31%	46%	23%	14%	44%	42%
사회복지시설의 희망숲 조성	16%	36%	48%	9%	34%	57%
옥상녹화 실시	63%	32%	5%	48%	45%	7%
무장애 공원 조성(여의도 공원)	23%	43%	34%	14%	36%	51%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42%	51%	7%	34%	54%	12%



〈그림 3-18〉 서울시 공원녹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생태적으로 양호한 숲의 보전, 생활권내 도시숲의 확충, 공원녹지의 생물 서식처 복원, 수목훼손 및 산사태 예방, 치유의 숲 조성·운영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6〉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우선순위

항목	우선순위 점수
[1위] 생태적으로 양호한 숲의 보전	100
[2위] 벽면녹화 등 생활권내 도시숲의 확충	68
[3위] 도시숲의 생물서식처 복원	61
[4위] 폭우·태풍에 의한 수목훼손 및 산사태 예방	49
[5위] 치유의 숲 조성·운영	27
[6위] 폭염대비 수목그늘 제공	23
[7위] 숲캠핑장 등 체류형 공간 조성·운영	22
[7위] 전 계층 대상 생태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22
[7위] 취약계층의 숲접근성 향상	22
[10위] 도시숲 관리 등 녹색일자리 창출	19
[11위] 도시농업 텃밭부지 마련	17
[12위] 북콘서트 등 숲문화프로그램 운영	16
[13위] 숲속 유치원 등 생태교육기관 마련	13
[14위] 재능기부 등 참여기회 확대	12
[15위] 도시숲내 간이 체력검사 장비 설치	7
[16위] 산악자전거 등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	6

생태복지도시를 위한 조성주체에 대한 의견으로는 서울시+시민단체+일반시민+민간기업이 56%로 행정주체인 서울시와 함께 민간영역의 참여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27〉 생태복지도시의 조성주체

항 목	응답수	비율
서울시	35	6%
일반시민	12	2%
시민단체	2	0%
서울시 + 시민단체	26	5%
서울시 + 일반시민	54	10%
서울시 + 시민단체 + 일반시민	85	15%
서울시 + 시민단체 + 민간기업	32	6%
서울시 + 시민단체 + 일반시민 + 민간기업	315	56%
합 계	561	100%

생태복지도시 조성에서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생태복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예가 93%로 참여의 기회 제공도 주요한 복지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8〉 생태복지의 범위(참여의 기회 제공)

항 목	응답수	응답비율
예	519	93%
아니오	42	7%
합 계	561	100%

기타 각종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의 참여경험에 대해 확인한 결과, 참여한 적이 있다가 58%, 참여한 적이 없다는 42%로 나타났다.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참여의 방법을 몰라서 36%,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36% 등으로 참여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생태복지도시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의 참여의사를 확인한 결과, 예가 87%, 아니오는 13%로 나타났다.

〈표 3-29〉 재능기부 등 참여경험

항 목	응답수	비율
참여한 적이 있다	324	58%
참여한 적이 없다	237	42%
합 계	561	100%

〈표 3-30〉 미참여 이유

항 목	응답수	비율
참여의 방법을 몰라서	85	36%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86	36%
자원봉사나 재능기부와 관련된 소질이 없어서	46	19%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8	3%
기타	14	6%
합 계	239	100%

〈표 3-31〉 생태복지도시 조성 시 참여의사

항 목	응답수	비율
예	486	87%
아니오	75	13%
합 계	561	100%

5) 종합 · 분석

시민수요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종합 · 분석하면 <표 3-32>와 같다.

〈표 3-32〉 시민수요조사 종합 · 분석

구분	주요결과 및 방향성
삶의 질 만족도	- 응답자 대부분은 거주지역의 삶의 질과 환경쾌적성에 대해 보통이거나 다소 좋다고 생각함 - 거주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문화예술체험공간의 부족’과 ‘이웃과의 교류단절’을 꼽았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도시생태’와 함께 ‘문화’와 ‘커뮤니티’ 요소가 연계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생태복지에 관한 인식수준	- 절반 이상이 생태복지 개념을 알고 있으며, 대부분이 생태와 복지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함 - 생태복지의 혜택은 인간과 동식물을 비슷한 수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또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생태복지 원칙 중 ‘보편성’이 모든 계층과 동시에 소외계층을 포괄하는 의미로 설정하도록 함

〈표 계속〉 시민수요조사 종합 · 분석

구분	주요결과 및 방향성
생태복지도시 구성요소	- 구성요소 중 만족도는 ‘문화’가 가장 높고 ‘건축물/주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공원녹지를 생태복지도시 조성수단으로 설정하여 ‘도시생태’를 중심으로 ‘문화’, ‘커뮤니티’ 등 다른 요소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함
공원녹지분야 관리방안	-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보장요소는 ‘건강’, ‘안전’, ‘생활권내 숲체험’, ‘생물다양성’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가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서울둘레길 조성’과 ‘옥상녹화사업’은 50% 이상이 잘 알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의 희망숲 조성’, ‘유아숲체험장 조성’, ‘무장애공원 조성’은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함 - 생태복지도시를 위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생태적으로 양호한 숲의 보전’, ‘생활권내 도시숲의 확충’, ‘생물서식처 복원’, ‘치유의 숲 조성 · 운영’이 도출됨 - 생태복지도시를 위한 조성주체로는 ‘서울시+시민단체+일반시민+민간기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대부분(93%)의 응답자가 생태복지도시 조성에서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생태복지라고 생각함 - 공원녹지분야 관리방안 마련 시 보장요소 및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민관산 협의체 구성을 통한 관련사례 조사를 통해 시민참여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기타	- 각종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참여의 방법을 모르거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89%)의 응답자가 생태복지도시 조성 시 참여할 의사가 있음 - 개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경로를 마련하고 관련정보를 통합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제4장 생태복지도시를 위한 공원녹지 관리방안

제1절 정책비전 및 목표

제2절 추진과제 및 지표

제3절 시민참여형 추진방안

제 4 장

생태복지도시를 위한 공원녹지 관리 방안

제1절 정책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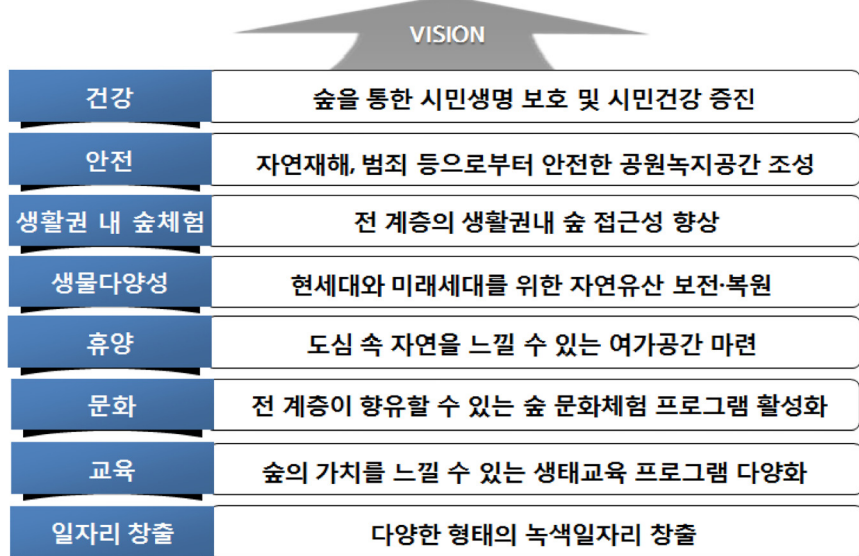
1. 비전 및 목표

시민수요조사를 통한 보장요소의 우선순위 및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공원녹지정책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생태복지도시, 서울’로 설정하였으며, 보장요소별 목표를 <그림 4-1>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생태복지도시를 위한 공원녹지정책의 기본원칙은 보편성, 지속가능성, 접근성, 연계성, 기후변화 대응성으로 각 기본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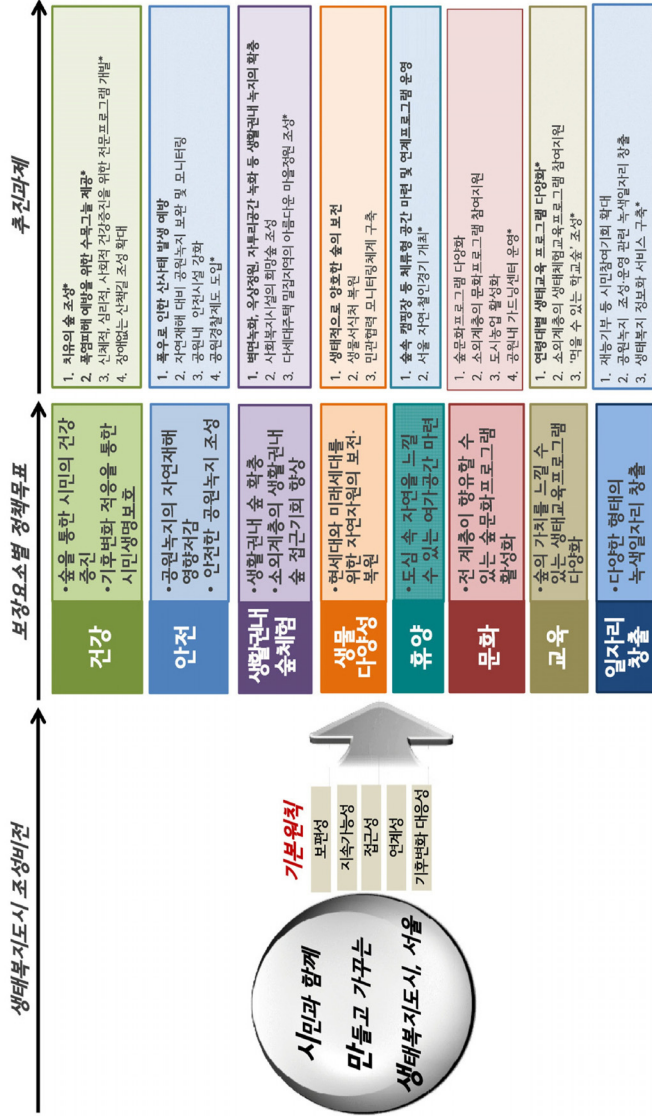
- 보편성 : 공원녹지 혜택은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지속가능성 : 공원녹지 혜택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접근성 : 공원녹지 혜택은 물리적, 신체적, 경제적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적으로 접근하여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연계성 : 공원녹지 혜택은 공공 및 민간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기후변화 대응성 : 공원녹지 혜택은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생태복지도시, 서울’



〈그림 4-1〉 정책비전 및 목표

2. 중점추진과제



붙임 1: 시민수요조사 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규사업

(그림 4-2) 보장요소별 중점추진과제

제2절 추진과제 및 지표

1. 보장요소별 추진과제

1) 건강

추진방향

»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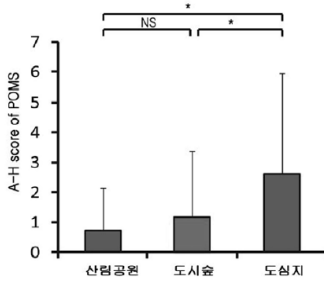
숲에서의 치유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폭염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예방하도록 함

1

(1) 정책목표 1 : 숲을 통한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가. 관련사례

- 일본 나가노현 시나노마치 치유의 숲은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민관협력체제로 메디컬 트레이너 제도를 도입하여 방문객에게 숲에서의 면역요법을 안내하고 산에서 직접 채취한 재료로 음식을 제공하며 산림세라피검진 프로그램 및 산림의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독일뵐프스호펜시를 벤치마킹하여 시마노마치에 치유의 숲 담당부서를 설치함(송태갑·안기완, 2010)
- 도시공원에서의 체류는 도시숲과 동일하게 도시환경과 비교하여 쾌적감, 자연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으며, 긴장, 불안감, 혼란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산림공원과 도시숲은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유발하기 쉬운 우울을 개선하는 효과는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치유의 숲으로 조성된 휴양림 등과 같은 곳에서의 체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김경목 외 3인,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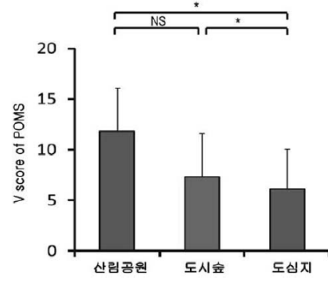


〈그림 6〉 분노의 변화(N=50, Kruskal-Wallis test, *: p(0.05)

a. 분노의 변화

N=50, Kruskal-Wallis test, *: p(0.05)

출처 : 김경목 외 3인, 2012



〈그림 9〉 활력의 변화(N=50, Kruskal-Wallis test, *: p(0.05)

b. 활력의 변화

〈그림 4-3〉 산림공간유형에 따른 기분개선 연구결과

나. 서울시 현재 추진사업

○ 서울숲 U-헬스케어센터

- 2008년 조성, 2012년 6월 보완
- 공원방문객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서비스하며, 검사항목은 신장, 체중, BMI (신체질량지수), 체지방률, 체지방량, 혈압,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등임



〈그림 4-4〉 서울숲 U-헬스케어센터

○ 서울둘레길 조성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내·외사산길 178km를 연결함. 남산, 인왕산, 북악산, 낙산을 잇는 서울성곽길 21.5km 조성을 끝냈고, 관악산, 북한산, 용마산 봉산 등을 연결하는 외사산둘레길 157km를 조성 중임

○ 근교산 자락길 조성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산 등 총 14개소 30.6km에 목재데크, 목교 등을 설치하여 장애없는 산책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북한산, 안산, 관악산 등 5개소에 12.9km 조성을 완료하였음

다. 보완과제

○치유의 숲 조성

—숲을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치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치유평간 개발이 필요함

—치유의 숲 사업부지 확보, 치유센터 마련, 치유프로그램 개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개발

—등산로 입구에 개인맞춤별 등산코스 안내를 위한 간이 체력검사 장비 설치

—서울숲 U-헬스케어센터의 확대·보급

○장애없는 산책길 조성 확대

(2) 정책목표 2 :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시민생명보호

가. 관련사례

○호주 멜버른시는 보행로주변 건물에 차양막을 설치하여 한여름 무더위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가로수 등 도시지역 내 녹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보행로를 가로수 캐노피로 덮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그림 4-5〉 호주 멜버른의 폭염적응 사례

○수목피도 10% 증가는 여름철 온도 0.6℃ 저감 효과가 있음(조현길 등, 2001)

나. 서울시 현재 추진사업

○서울시 공원서비스는 생활권녹지의 지속적인 양적 확충을 이루어 왔으나 폭염을 대비하여 도심의 수목그늘 제공을 위한 녹화사업 등 폭염취약지역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 보완과제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도심공간의 수목그늘 제공
 - － 폭염 시 기온상승 정도가 높은 나지, 주차장, 건축물주변 등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쿨그린존’을 조성하여 그늘제공 및 주변지역 온도저감 효과를 도모하도록 함
 - － 수관, 피도를 고려하여 수목을 선정·식재하고, 연장과 폭을 결정함

2) 안전

추진방향

» 안전

자연재해 저감과 공원녹지 인근지역의 범죄예방을 통해 안전한 공원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함

2

(1) 정책목표 1 : 공원녹지의 자연재해 영향저감

가. 관련사례

- 일본 돗토리현의 웹지도를 통한 방재·안전·방법 정보 제공
 - － ‘돗토리 Web맵’은 지도상에 방재나 관광, 도시계획 등 여러 정보를 제공하며, 지자체가 인터넷에 공개하는 지리정보로는 일본 최대 규모임
 - － 재난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인터넷뿐 아니라 무선통신을 이용한 정보제공(SMS 서비스)도 적극 시행 중임

나. 서울시 현재 추진사업

- 산사태 복구 및 예방 사방사업 시행
 - － 남산, 우면산, 관악산 등 210곳에 사방담과 보막이, 집수정 등 설치
-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및 예·경보 전달체계 개선

- 산사태 위험지 및 피해 영향범위 지도작성 : 169개소
-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대상자 선정 : 4,856명
- 산사태 피해우려지 대피장소 및 관리자 지정 : 96개소
- 산사태 위험 예·경보는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발령

다. 보완과제

○ 폭우로 인한 산사태발생 예방

- 지속적 산사태 위험지 조사·관리, 산사태 발생현장 및 위험지역 DB 구축 및 취약성 평가를 통한 위험등급 등 정보공개
- 호우경보/수해대책 시스템, 산림청의 산사태 예·경보발령체계와 연계한 통합운영망 구축, 산과 연결되는 주택지 등 위험지 우선 예방사업 추진 강화
-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현장특수성을 고려한 위험지역의 DB 구축

○ 자연재해 대비 공원녹지 보완 및 모니터링

- 여름철 공원녹지 주변 배수시설 점검 및 관리
- 절개지 및 산사태 지역 등 훼손된 산림 복원 시 재해에 강한 수종 식재

(2) 정책목표 2 : 안전한 공원녹지 조성

가. 관련사례

- 영국의 노스햄튼셔 경찰은 지자체와 협의해 기존범죄예방계획을 발전시킨 ‘부가실시계획 가이드(SGP)’를 만들어 공원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 출입구수를 1~2개로 제한하고, 투시형 담장 설치 및 어린이 놀이터 길가쪽 배치 등이 규정되어 있음(안성훈, 2012)

나. 서울시 현재 추진사업

- 주요 취약공원에 조도 개선 및 방범시설 설치
- 중구 서소문공원, 서대문 창천근린공원 등 169개소

- CCTV(110대), 비상벨(240대), 공원등(314본) 교체·설치
- 시민단체, 자율방범대원 등 시민참여 순찰 실시
 - 171개 시민단체 8,336명, 370개 방범대 10,047명 활동
 - 시직영 ‘공원사랑 시민모임’ 현황 : 10개 공원, 11개 모임, 312명 활동
- 책임구역제 지정 운영
- 공원안전종합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공원녹지에서의 범죄에 대한 예방적 관리 노력이 미흡하고 방범 시설 설치 등 지자체별로 관리현황이 상이한 실정임

다. 보완과제

- 공원내 안전시설 강화
 - 공원별 방범시설, 환경, 우범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도를 점검하고 등급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방범시설 보강, 수목정비 등 공원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등급별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안전한 공원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조성 공원 에 대한 범죄예방환경 설계 도입
 - 방범용 CCTV, 조명, 비상등 등 방범시설 확충
 - 주민·지자체·경찰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방범활동 실시

3) 생활권내 숲체험

추진방향

» 생활권내 숲체험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생활권 공원녹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자발적으로 생활권 녹지 조성·관리에 참여하도록 함

3

(1) 정책목표 1 : 생활권 녹지의 양적 · 질적 확충

가. 관련사례

- 런던시는 수준 높은 시민녹지공간을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 재개발 · 정비해 ‘100대 시민공간 확충사업’(Mayor’s 100 Public Spaces Programme)의 일환으로, 타워브리지와 시청 인근 포터스 필즈 공원(Potters Fields Park)을 새로 단장해 개장함. 포터스 필즈 공원은 수목식재 및 잔디정비, 산책로와 공원의자 설치, 조명 설계 및 설치 등을 시행함. 공원 내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계절별로 다양한 허브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강변 산책로에서 내부로 들어가면 ‘정숙 정원(quieter garden)’도 있음
- 파리시는 교육, 사회통합,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목적으로 정원 가꾸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리 정원인 ‘나눔정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참가자에게 매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 다른 문화 간, 세대 간의 만남과 교류를 촉진하고 학교, 양로시설, 병원 등 서로 다른 삶의 공간을 이어주는 데 기여함. 또한 녹지를 확충하고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



a. 파리13구획의 나눔정원



b. 파리의 나눔정원 현황

출처 : 서울연구원, 2011, 세계도시동향

〈그림 4-6〉 파리의 나눔정원

나. 서울시 현재 추진사업

○ 에코스쿨 조성

— 2001년 ~ 2010년 : 825개교

— 2013년부터 천연잔디운동장, 옥상녹화(태양광발전), 벽면녹화, 빗물이용 시설을 도입하고 주변 공원녹지, 체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에코스쿨존 시범사업 추진 예정

○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 2005년~ 2011년 : 432개소 76,784m²

— 2012년 : 19개소 조성 중

○ 옥상녹화 사업

— 2002년 ~ 2011년 : 547개소 243,097m²

— 2012년 : 36개소 조성 중

○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 1999년 ~ 2012년 : 937개소 153,802m

○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숲 가꾸기

— 생활주변 자투리공지, 골목길 등을 주민공동체에 의한 녹화 실시

— 2012년 24개소(2014년까지 100개소 추진 계획)

○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주민쉼터 조성

— 2011년 : 천호동성당 녹지활용계약 쉼터 3,600m² 조성(제1호)

— 2012년 : 노원구 상계동 등 4개소 118,391m² 조성 중

다. 보완과제

○ 벽면녹화, 옥상정원, 자투리공간 녹화 등 생활권내 녹지 확충

— 기존 생활권녹지 확충사업들을 지속하되 서울시와 시민의 공동관리방식을 채택하여 일정기간에 해당녹지를 관리할 관리자를 모집함으로써 주택내 정원이 없어도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해 참여를 도모

(2) 정책목표 2 : 소외계층의 생활권내 숲 접근기회 향상

가. 관련사례

○ 베를린시는 시민들의 도시녹화 참여와 장려 방안으로 그동안 호프 조경운동을 벌여온 그뤼네리가 협회와 함께 ‘그린 호프’(GRÜNE HÖFE)란 공모전을 실시함.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다세대 주택 등 낙후된 환경을 적은 비용으로 아름답게 개조하여 작은 카페나 레스토랑, 공방이 들어서는 등 도심의 한가운데서 문화와 휴식을 위한 숨은 공간으로 관광객과 시민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병렬식 연립임대주택 간 호프 울타리를 없애고 녹화를 추진한 공동체 호프, 반지하의 화분정원 등 다양한 호프 조성사례가 선보임



a. 베를린 주택의 호프 구조



b. 새롭게 단장한 하계셰 호프

출처 : 서울연구원, 2011, 세계도시동향

〈그림 4-7〉 베를린의 그린호프

나. 서울시 현재 추진사업

○사회복지시설의 희망숲 조성

-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외부 녹지환경이 열악한 곳에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도시숲 조성
- 2008년 ~ 2011년 : 12개소 17,128㎡(녹색자금 2,836백만원)
- 2012년 : 7개소 2,228㎡(녹색자금 690백만원)

○무장애 공원 조성

- 시직영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공원시설 정비
- 2012년 : 여의도공원 1개소

다. 보완과제

○사회복지시설의 희망숲 조성

- 기존의 서울시 직접 조성방식보다 민관협력 방식을 채택하여 조성 및 사후 프로그램 운영에 실질적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의 참여로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도모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아름다운 마을정원 조성

-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의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 지원

4) 생물다양성

추진방향

» 생물다양성

남아있는 자연자원을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도록
보전·복원하도록 함

4

(1) 정책목표 :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자원 보전·복원

가. 관련사례

- 브라질 산타페도술시는 자기 집에 있는 나무를 잘 보존하는 주인에게 가옥세를 감해주는 ‘녹색가옥세’ 제도를 실시하여 상파울루주에서 녹지대가가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힘

—또한 소로카바시는 집 앞 인도에 나무를 심고 사진을 찍어 시청에 제출하면 토지가옥세(IPTU)를 5%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임

○뉴욕 롱아일랜드 기후변화 감시모니터링 프로그램

—기후변화 감시 모니터링 프로그램(SMCCO : The Sentinel Monitoring for Climate Change in Long Island Sound Program)은 롱아일랜드지역 하구와 해안생태계, 생물종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하여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기후변화 영향을 감시하는 것으로 시와 주, NGOs, 전문가 등의 참여로 이루어짐



〈그림 4-8〉 롱아일랜드 기후변화 감시모니터링

나. 서울시 현재 추진사업

○서울시 법정보호구역 추가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 : 17개소(2012년) → 19개소(2014년), 격년으로 1개소씩 추가지정할 예정임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9개소

—철새보호구역 : 3개소

○정기적 생태계모니터링 실시 및 관리계획 수립

—한강생태계 조사, 도시숲생태계 조사, 생태경관보전지역 조사, 도시생태 현황도 정비 등 실시

—도시림조성관리계획, 지역산림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야생동식물 보호세부계획 등 수립

다. 보완과제

○생태적으로 양호한 숲의 보전

—생태적으로 양호한 사유지에 대한 녹지활용계약 체결 및 지원책 마련

—보전지역 관리의 시민관리자를 지정하여 시민참여 유도

- 생물서식처 복원
- 민관협력 모니터링체계 구축
 - － 각종 생태계 조사 시 민관협력 조사팀 구성
 - － 기존 서울시 생태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생태계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일반시민의 제보도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함

5) 휴양

추진방향

» 휴양

도시숲 속 여가공간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5

(1) 정책목표 :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가공간 마련

가. 관련사례

- 독일에서 가장 큰 자연·체육 이벤트인 ‘자연·철인경기’가 2007년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 숲에서 시작해 1800km 떨어진 베를린까지의 여정으로 열림
 - － 자연·철인경기는 8개 팀 32명이 독일 전역의 여러 숲에서 사이클, 수영, 인라인 스케이트, 조정, 마라톤 등의 종목을 통해 강인한 체력을 겨루는 행사임. 팀 화합도와 자연적응 능력이 경기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베를린시 자연보호재단은 2008년 제2회 ‘도시 자연의 긴 하루’(Langer Tag der StadtNatur) 행사를 개최함. ‘26시간 티켓’을 구입한 시민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6시간 동안 공원산책, 허브와 곤충 찾기, 별밤에 보트타기, 새벽에 호수에서 조류 탐방하기 등 베를린의 142곳에서 열리는 450여 가지의 다양한 자연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

민에게 베를린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풍부함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도시의 자연 보전과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a. 자전거 산책



b. 보트타기

출처 : Radtour zu den Waldweideflächen im Hobrechtswald, 2012

〈그림 4-9〉 베를린의 ‘도시자연의 긴 하루’ 프로그램

나. 서울시 현재 추진사업

○캠핑장 운영

- 현재 노을공원 캠핑장, 중랑캠핑숲, 서울대공원 자연캠핑장, 난지캠핑장,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등 5개소 운영

다. 보완과제

○숲속 캠핑장 등 체류형 공간 마련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도시 자연의 1박2일(가칭)’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서울의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공원 산책, 별밤 산행 및 보트타기, 새벽 조류탐방 등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난지캠핑장 등 기존의 체류형 공간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함

○서울 자연·철인경기 개최

- 남산, 한강, 월드컵경기장을 연결하는 코스로 사이클, 수영, 마라톤 등의 종목을 서울시 자연과 더불어 진행하도록 함

6) 문화

추진방향

» 문화

다양한 숲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숲의 정서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함

6

(1) 정책목표 : 전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숲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가. 관련사례

- 독일의 ‘도서 숲’(Buecherwald) 프로젝트는 독일연방 직업교육연구원이 산림경영 프로그램의 하나로 독일연방 교육부의 지원 아래 베를린 건축여성 전문가협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임. 거리에 설치된 책장은 산림경영, 목공, 가구디자인, 인쇄, 서점 경영 등의 분야 직업교육생이 모여 아이디어를 짜고, 한 목재회사가 제공한 나무를 직접 가공해 디자인한 것임. 참여한 직업교육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전문분야를 넘어 ‘숲-나무-책’의 연결고리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양한 응용가능성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음



a. 거리에 설치된 책장 1



b. 거리에 설치된 책장 2

출처 : <http://g1.globo.com/planeta-bizarro/noticia/2011/10/>

〈그림 4-10〉 독일의 ‘도서 숲’ 프로젝트

나. 서울시 현재 추진사업

○찾아가는 시민녹화교실 운영

—2001년 ~ 2011년 : 1,399회, 35,043명 참여

○노들섬 도시농업공원

—노들섬부지를 시민 600가족과 7개 도시농업단체에 텃밭 분양

—화학비료, 농약, 비닐멀칭, 매점, 쓰레기통, 취사가 없는 6무(無)공원, 자가거름 만들기, 전통농사법, 공동체농사 지향

다. 보완과제

○숲문화프로그램의 다양화

—시민 도서기부를 통한 숲속 도서관 운영(근린공원내 휴식공간에 자율적 간이도서관 마련)

—공연, 시낭송회, 전시회, 결혼식 등 창의적 소규모 숲속 문화콘텐츠 개발

○소외계층의 문화프로그램 참여 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숲속 문화프로그램 참여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을 통한 경관 형성, 원예치료 등 먹거리 외 부가적 기능 연계

—도시농업 실태조사를 통한 DB 구축

○공원내 가드닝센터 운영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에 가드닝센터를 설치하고 교육, 관련물품 판매, 공원내 가드닝 교육부지 마련

7) 교육

추진방향

» 교육

어린이뿐 아니라 청소년과 중장년층 등 계층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 계층이 숲과 생태환경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7

(1) 정책목표 : 숲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생태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가. 관련사례

- 영국 자연보존청은 성인의 40% 이상이 어린시절에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에 살았다면 요즘 어린이는 10%만이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림교육단체인 ‘Forest Education Initiative’와 함께 ‘숲에서 놀기’란 주제로 여는 지역단위 숲 학교(Forest School)를 활성화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및 어린이 체험학습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
- 런던시는 일정기간에 런던 북부 햄스테드 히스(Hampstead Heath) 공원에서 초등학교생 수천 명에게 무료 생태체험 교육을 실시함. 복권기금, 왕립 조류보호협회, 런던시가 예산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조류와 야생동물 관찰, 수생태계 탐사, 숲 견학 등을 위해 생태 해설가 4명과 공원 자원봉사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공원 인근 자치구의 68개 초등학교 학생 7000여 명부터 교육하기 시작하여, 점차 런던 시내 초등학교로 참여 범위를 넓혀갈 예정임
- 영국의 유명 시리얼 제조회사가 ‘식용 놀이터 프로그램’(Edible Playgrounds Scheme)을 진행해 초·중·고교에 채소와 과일을 기를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할 계획임. 초·중·고교 100개를 선정하고, 정원을 처음 만들 때 필요한 장비와 종자를 제공하며, 정원 가꾸기에 대한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하고, 월

간소식지를 발간함. 기존 학교 교과과정과 식용작물 재배를 연계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이용한 조리법 정보제공은 지속가능한 식품소비와 환경교육 체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출처 : <http://www.treehugger.com/culture/>

〈그림 4-11〉 영국 첼시 플라워 박람회의
Edible Playground

나. 서울시 현재 추진사업

○2013년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 공모

-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선정된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운영비용을 지원

○유아숲체험장 조성

- 강서구 우장공원, 관악구 관악산공원, 용산구 응봉공원 등 3개소 개장

○자연생태체험교실 운영

- 생태경관보전지역, 산, 하천, 공원 등 27개소에서 자연생태, 문화 등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린이, 청소년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을 운영
- 자연생태 해설가(111명) 자치구 지원('11년 3월)

〈표 4-1〉 자연생태체험교실 운영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운영횟수(회)	320	749	831	1,094	1,105
참여인원(명)	10,356	17,100	18,867	22,294	22,705

다. 보완과제

○ 연령대별 생태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 청소년층, 중장년층 등 연령대별 생태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서함양을 위한 전인교육과 더불어 인재양성에도 기여하도록 함

○ 소외계층의 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지원

○ ‘먹을 수 있는 학교숲’ 조성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먹을 수 있는 정원’ 조성

— 기존 ‘생명의 숲’을 중심으로 녹색자금을 이용해 수목식재 등에 중점을 둔 ‘학교 숲 운동’을 식품관련 기업과 연대하여 진행

8)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

» 일자리

소외계층의 녹색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가 연계된

인력풀 형성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도록 함

8

(1) 정책목표 : 다양한 형태의 녹색일자리 창출

가. 관련사례

○ 미국의 공원경찰제도는 공원방문객과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환경관리와 공원순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Park Ranger를 배치하게 됨. Park Ranger는 연방법과 공원관리지침에 따라 안전유지, 불법

행위 단속 및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법률집행레인저(Law Enforcement Ranger)와 공원생태해설을 포함한 환경교육과 안내 등을 담당하는 해설레인저(Interpretive Range)로 구분됨



출처 : <http://aparkrangerslife.blogspot.kr/>

나. 서울시 현재 추진사업

〈그림 4-12〉 미국의 공원경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숲 자원화

-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목을 의자, 계단 등으로 재활용할 때 도시숲자원 화사업단을 구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도시숲자원화사업단 시범운영 대상 자치구 선정 : 4개구(도봉구, 은평구, 구로구, 강동구)

○산림서비스 도우미 배치를 통한 산림서비스 증진

- －주요 산림에 숲해설가, 숲길조사관리원, 숲길안내인,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배치
- －2011년(17명) : 숲해설가, 숲길안내인, 숲길조사관리원 배치
- －2012년(30명) : 도시녹지관리원 및 학교숲코디네이터 분야에 추가 배치

다. 보완과제

- 공원녹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재능기부 등 시민참여기회 확대
 -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 일반시민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형태의 참여 유도
- 공원녹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
 - －기존 녹화사업 실시 후 유지관리에 노인층 등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작은 녹색일자리 창출
 - －공원경찰제도 도입
- 생태복지 정보화 서비스 구축

—공원녹지 운영정보, 체험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정보, 텃밭 및 정원 가꾸기 정보 등 각종 정보수집·관리를 위한 시민기자단 모집

2. 생태복지 지표

보장요소별 추진과제의 효율적인 이행과 관리를 위해 요소별 정책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지표를 검토하고 정책연관성과 자료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분야의 생태복지지표(안)를 선정하였다.

1) 관련지표의 검토

(1) WoN 지표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The Well-being of Nations(Robert, 2001)’ 프로젝트에서는 국가복지를 인간복지와 생태계복지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미래형 복지로 확대 설정하고 생태복지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WoN 지표를 검토하였다.

복지지수는 인간복지지수(HWI : Human Wellbeing Index)와 생태계복지지수(EWI : Ecosystem Wellbeing Index)의 교차지점으로 지속가능지표의 대표지수로 산출하며, 인간복지지수는 건강/인구, 부, 지식/문화, 커뮤니티, 평등의 5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생태계복지지수는 토지, 물, 대기, 종과 유전자, 자원사용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복지지수(HWI)는 ‘평등’을 제외한 4가지 차원지수의 가중평균값 혹은 ‘평등’을 포함한 5가지의 단순평균값 중 낮은 점수를 고르고, 생태계복지지수(EWI)는 ‘자원사용’을 제외한 4가지 차원지수의 단순평균값 혹은 ‘자원사용’을 포함한 5가지 차원지수의 단순평균값 중 낮은 점수를 택한다.

요소별 지수는 하위요소 지수들의 가중평균값이거나 단순평균값이거나 낮은

값을 선택하여 도출하며 요소별 지수의 산출기준은 <WoN-The Wellbeing of Nations, 2001>에서 제시하고 있다. 공원녹지분야의 생태복지지표와 연관성이 있는 생태계복지의 요소 및 지표는 <표 4-2>와 같다.

〈표 4-2〉 생태계복지의 요소 및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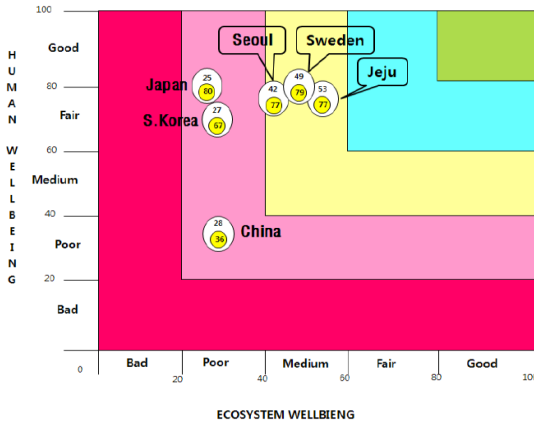
차원	요소		지표	
토지	토지 다양성	토지변형 및 전환	총토지 대비 전환된 토지비율	
			총토지 대비 자연토지 비율	
			자연산림면적의 변화율	
		토지보호	토지면적비율	
	다양성			
토지 질			파괴된 토지비율=경작된 토지와 변형된 토지의 합	
물	육수	육수 다양성	댐에 의한 하천전환(총 공급량에 대한 댐용적 비율)	
			댐 유량 중 수력발전에 의한 비율	
			댐 용적	
			이론적 수력발전 총 용적	
			총 용적 중 허용된 용적	
			재생에너지로서의 총 수자원 중 순수 국내수자원	
		취수	가정, 농업 및 산업용으로 사용된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하천 취수량	
			국내 재생에너지로서의 수자원에 대한 하천취수량의 비율	
		육수의 질	산성도	
			미생물 오염	
			비소, 중금속 농도(As, An, Cr, Cu, Ni, Pb, Cd, Hg)	
			총 질소량	
			BOD, COD, DO	
			부유물질의 총량	
	해양		-	
	대기	지역 공기질		SO ₂ 농도의 연간평균
				SO ₂ 대기중 농도가 WHO 지침을 초과한 연간일수
				NO ₂ 농도의 연간평균
				NO ₂ 의 대기 중 농도가 WHO 지침을 초과한 연간일수
				지상 O ₃ 의 대기 중 농도가 WHO 지침을 초과한 연간일수
CO의 대기 중 농도가 WHO 지침을 초과한 연간일수				
대기 중 미세먼지(PM)의 연간평균				
대기 중 지름10 _{μm} 이하 미세먼지(PM)의 연간평균				
대기 중 Pb 농도의 연간평균				
지구 대기		온실 가스	총 CO ₂ 방출량	
			헥타르당 CO ₂ 방출량	
			1인당 CO ₂ 방출량	
		오존 파괴 물질	오존파괴가능물질 중 오존파괴물질(ODS)의 연간사용량	
			헥타르당 ODS	
			1인당 ODS	

〈표 계속〉 생태계복지의 요소 및 지표

차원	요소		지표
종과 유전자	야생 생물 다양성	야생 식물종	총 야생식물종 중 멸종위기식물종의 비율
		야생 동물종	총 야생동물종 중 멸종위기동물종의 비율
	가축 및 작물 다양성		총 국내서식종(고유종)
			멸종위기종(멸종직전종/멸종우려종/위급종)
			선택된 종수
			총 종수
			DAD-IS에 등재된 종 중 사육종의 수
자원이용	에너지 및 물질(E)		지역 내 헥타르당 에너지 소비량(EC/ha)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자원 분배	임업	삼림의 임목축적
			산림의 순임목생장량
			연간 벌목량
			용재생산량
			통나무, 제재목, 목판 수입량
		농업	식량작물 수확면적
			식량작물 생산량
			수확면적당 식량작물 생산량
			비료사용량
			수확면적당 비료사용량
			8개 농작물 그룹의 생산량/공급량
		어업	평가종 중 과평가 혹은 저평가된 종
			FP 생산면적당 어획량
			어류포획가능량에 대한 실어획량
			FSR 공급량에 대한 어류 및 해산물 생산량

WoN의 평가결과, 180개국 중 우리나라는 인간복지가 27위이나, 생태계복지
는 16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재천 등(2009)은 ‘생태복지의 개념 및 적용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WoN의
평가기준을 서울시와 제주도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는 인간복지 Fair
등급, 생태계복지 Medium 등급으로 도출되었다.



출처 : 최재천 등, 2009

〈그림 4-13〉 서울시의 복지지수 도출결과

하지만 국가수준의 지표를 그대로 사용해 국가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는 ‘자유’, ‘평화’와 같은 하위요소의 지표들은 시차원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지표의 단위가 다르거나 자료가 없어 해당지표가 평가 시 누락되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WoN에서 다루는 차원들을 고려하되 서울시에 적합한 차원과 요소들을 선별하고 적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녹색성장지표

녹색성장지표는 녹색성장정책의 기본철학과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의 ‘3대 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지표 작성틀로 적용하였으며, 30개 핵심지표와 관련 참고지표들을 통해서 녹색성장의 변화 추이를 통계적으로 기술하였다.

녹색성장지표 선정 시 아래 5가지의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된 지표는 2년 주기로 갱신되어 지속적으로 국내 녹색성장이행수준을 평가하여 정책 수립, 이행, 환류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정책연관성 : 녹색성장 정책을 반영하는지
- 자료가용성 : 자료 이용이 가능한지, 자료가 충분한지
- 자료가측성 : 측정이 가능한지, 비용 대비 효율이 있는지
- 비교가능성 : 국제적 혹은 지역적 합의가 이뤄져 있어 국제적 혹은 지역적으로 통계가 작성·비교 가능한지

녹색성장지표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비교가 용이하나, 에너지,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표를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생태복지지표 선정 시 정책방향별 지표를 제시하는 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녹색성장지표

3대분야	10대 정책방향	세부지표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림 온실가스 흡수량
	탈석유 에너지자립 강화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식량자급률
		강수예보 정확도
		정부예산 중 재해예방투자
신성장 동력 창출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정부 R&D지출 중 녹색R&D
		GDP대비 국내 총R&D 지출
		국제특허 출원건수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GDP단위당 국내물질소비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
		신재생에너지 산업
	산업구조의 고도화	서비스업 총부가가치 비중
		지식서비스산업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정보통신산업 총부가가치 비중
	녹색경제 기반 조성	정부구매 온실가스 감축량
		ISO14001 인증 기업수
		환경세 세수 비중

〈표 계속〉 녹색성장지표

3대분야	10대 정책방향	세부지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녹색국토 · 교통 조성	1인당 생활권 도시립
		지역 간 대중교통 여객수송 분담률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생활의 녹색혁명	1인당 가정에너지 소비
		1인당 생활용수 사용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CDM 온실가스 감축인증
		GNI 대비 ODA
		ODA 중 녹색ODA

(3) 지속가능발전지표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구체화하고 실천지침으로 「의제 21」을 채택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경제·사회·환경의 3대 분야에 건강, 교육, 생물다양성, 소비생산 등 14개 영역, 34항목의 77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이 지표는 지난 5년간 혹은 10년간 변화를 한눈에 보고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표 4-4〉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분야	영역	항목	지표명
사회	형평성	빈곤	빈곤인구비율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실업률
		노동	근로시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남녀평등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건강	영양실태	유소년 영양 상태
		사망률	영아 사망률

〈표 계속〉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분야	영역	항목	지표명
사회	건강	수명	기대여명
		식수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건강관리	건강보험보장률
			사회복지지출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교육	교육수준	중등학교 순졸업률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공교육비 지출
	주택	생활환경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주택 수(인구 1천 명당)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재해/안전	범죄, 재해	범죄발생률
			자연재해 피해
	인구	인구변화	인구 증가율
			인구 밀도
			고령인구비율
환경	대기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오존층	오존층파괴물질 소비량
		대기질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토지	농업	농지면적 비율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식량자급률
			화학비료 사용량
			농약 사용량
		산림	국토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목재 벌채 정도
		도시화	도시화율
			수도권 인구 집중도
	해양/연안	연안지역	연안오염도
			폐기물 해양 투기량
			갯벌 면적 증감

〈표 계속〉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분야	영역	항목	지표명
환경	담수	어업	수산자원량
			어업양식량
		수량	취수율
			1인당 1일 물소비량
		수질	4대강 수질오염도
			하수도 보급률
	생물 다양성	생태계	자연보호지역비율
			국가생물종 수
			멸종위기종 수
경제	경제구조	경제이행	국내총생산(GDP)
			1인당 GDP
			경제 성장률
			GDP 대비 순 투자율
			소비자물가지수
		무역	무역수지
		재정상태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
		대외원조	GNI 대비 공적대외원조(ODA) 비율
	소비/생산	물질소비	자원생산성
		에너지 사용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총에너지 공급량
			재생가능에너지자원 소비 비중
			에너지 원단위
		폐기물 관리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지정폐기물 발생량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교통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자전거 도로 총 연장
			자동차 사고건수
	정보화 등	정보접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PC보유 가구비율
		정보인프라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
		과학기술	GDP 대비 R&D 지출 비율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속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가치에 부합하는 해당지역의 수용능력, 제도적 기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2) 공원녹지분야 생태복지지표(안)

WoN지표, 국가녹색성장지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검토하고, 이 연구를 통해 정립한 생태복지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정책연관성과 자료가용성 등을 고려한 공원녹지 분야의 생태복지지표를 제시하면 <표 4-5>와 같다.

<표 4-5> 서울시 생태복지의 요소 및 지표(공원녹지 분야)

보장요소(8)	정책목표(10)	지표	현황('12년)
건강	숲을 통한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무장애 산책길 연장(km)	12.9
		서울 둘레길 총연장(km)	61.5
		치유의 숲 면적/이용객수	-
안전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시민생명 보호	'쿨 그린존(폭염대비 숲그늘)' 개소수	-
	공원녹지의 자연재해 영향저감	산사태 발생건수	78('11)
	안전한 공원녹지 조성	안전 취약등급 공원개소수*	226
생활권내 숲체험	생활권내 숲의 양적·질적 확충	1인당 공원녹지 면적(m ²)	13.77
		생활권 공원면적(m ²)	74,625,465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숲 가꾸기 개소수	24
	소외계층의 생활권내 숲 접근기회 향상	사회복지시설 숲조성 개소수	24
생물 다양성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유산 보전·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개소수	17
		비오톱1등급지 면적(m ²)**	88,200,949
		자연림 면적(m ²)	77,779,792
		발견된 법정보호종수***	88
휴양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가공간 마련	캠핑장 면적/이용객수(m ² /명)	196,760
문화	전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숲 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숲문화 프로그램수	5,681
		텃밭면적(m ²)	154,308
교육	숲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생태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생태교육프로그램수/운영횟수	5,681
		유아숲체험 개소수/이용객수	3
일자리 창출	다양한 형태의 녹색일자리 창출	녹색일자리 종사자수(명)	880('09)
		관련 시민단체수	-
		관련 사회적 기업수	5

1) 2012년도 현황은 서울시 공원녹지국 주요업무현황(2012.9), 도시생태현황도(2010), 서울시 공원녹지 현황 내 부자료(2012) 등을 참고함

2) 서울경찰청이 서울시 공원 실태조사를 통해 방법시설·공원환경·우범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Red), 우려(Yellow), 관심(Green) 등급으로 구분함

3)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주기에 따라 5년마다 확인 가능한 지표임

4) 환경부 멸종위기동식물 및 서울시 보호종을 의미함

지표는 연간 사업성과를 작성하여 과거연도 대비 추세과약을 통해 지표달성도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일부 지표는 현재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구축될 필요가 있거나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이다.

〈표 4-6〉 서울시 생태복지정책지표의 활용예시

보장 요소(8)	지표	최근 연도값*			긍정 방향	최근 추세
		'12년	'13년	'14년		
건강	무장애 산책길 연장(km)	12.9	16	20	↗	↗
	서울 둘레길 총연장(km)	61.5	110	178	↗	↗
	치유의 숲 면적(㎡)	-	300,000	300,000	↗	→
	'쿨 그린존' 개소수	-	5	15	↗	↗
안전	산사태 발생건수	78('11)	20	5	↘	↘
	안전 취약등급 공원개소수	226	189	152	↘	↘
생활권내 숲체험	1인당 공원녹지 면적(㎡)	13.8	13.9	14.2	↗	↗
	생활권 공원면적(㎡)	74,625,465	74,842,231	75,821,075	↗	↗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숲 가꾸기 개소수	24	65	100	↗	↗
	사회복지시설 숲조성 개소수	24	71	100	↗	↗
생물 다양성	생태·경관보전지역 개소수	17	18	18	↗	→
	비오름1등급지 면적(㎡)	88,200,949	88,130,214	87,820,005	↗	↘
	자연림 면적(㎡)	77,779,792	77,639,542	77,445,964	↗	↘
	발견된 법정보호종수	88	93	95	↗	↗
휴양	캠핑장 면적(㎡)	196,760	230,465	230,465	↗	→
문화	숲문화 프로그램 운영횟수	5,681	6,375	7,059	↗	↗
	뒷밭면적	154,308	168,500	185,450	↗	↗
교육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횟수	5,681	6,375	7,059	↗	↗
	유아숲체험 개소수	3	5	6	↗	↗
일자리 창출	녹색일자리 종사자수(명)	880	1,020	1,100	↗	↗
	관련 시민단체수	-	-	-	↗	↗
	관련 사회적 기업수	5	10	15	↗	↗

* 2012년도 값은 현재 데이터 값이며, 2013년도 값, 2014년도 값은 계획 또는 추정값임

제3절 시민참여형 추진방안

1. 시민참여형 추진방안

1) 시민참여의 유형과 참여형태

공원녹지관리에 주민참여는 관리의 효율성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치성 증대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녹지확보 및 정비가 관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공원녹지 관련계획에서 시민참여가 계획의 주요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는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의 참여와 같은 소극적인 참여와 회원가입, 자원봉사 등 적극적인 참여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박을진 2010).

이러한 추세 속에서 최근 공원녹지 관리서비스에 대해서도 민관 파트너십의 형태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의 대상도 기업, 산업체, 학계, 비영리단체(NPO), 비영리법인 등 공공부문 이외의 모든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민관협력의 형태로는 민간위탁, 민간투자, 민간에 대한 지원, 민영화 등이 있으며, 이 경우 민간의 개념에는 기업, 산업체, 학계, NGO 등 공공부문 이외의 모든 대상을 포함한다. 또한 주체의 논리와 영향력 정도에 따라 시장주도형, 관주도형, 시민사회 주도형으로 구분되며(정규호 · 문순홍, 2000), 민간의 참여단계에 따라 계획단계, 집행단계(조성/운영 · 관리주체), 평가단계의 참여로 구분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간위탁과 유사하나 계약관계가 아니고 지정된 단체가 보다 자율적인 관리권을 갖는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서울숲 조성 · 운영의 전 과정 참여 및 부분적 민간위탁관리, 생명의 숲의 민자유치를 통한 민간파트너십 구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

지정관리자제도는 일본이 2003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추진해오던 공원의 관리·운영을 일반기업, 재단법인, 시민단체 등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공의 영역으로만 인식되던 공원관리에 민간의 참여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관에서 민으로’라는 행·재정운영의 구조개혁 및 규제완화의 관점, 주민서비스의 향상과 경비삭감의 관점,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의 경영건전화와 통폐합의 관점으로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위탁은 공공이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단체의 출자법인에 한정되었지만, 이 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을 제외하고 영리기업이나 NPO법인(특정비영리활동법인), 지역단체 등을 포함한 민간사업자에게도 가능하게 되었다(경기개발연구원, 2007).

지정관리자제도는 공공시설관리에서 민간의 아이디어나 기획을 도입하여 시민의 요구에 보다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며 지정관리자가 최종 관리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위탁제도보다 지자체와 평등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경비도 절감될 수 있다.

〈표 4-7〉 일본 종전 운영관리제도와 지정관리자제도의 비교

구분	관리위탁제도(종전)	지정관리자제도(법개정 후)
관리운영주체 (시가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대상)	· 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 · 공공적 단체(농협, 자치회 등) · 공공이 출연·출자하는 단체 등	·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폭넓은 단체(개인은 제외) ·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
권한과 업무의 범위	· 시설의 설치자인 자치단체와 계약에 근거하여 업무 집행 · 시설의 관리권한 및 책임은 자치단체가 갖고, 시설의 사용·허가권한은 위탁하지 못함	· 시설의 관리권한을 지정관리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며 시설의 사용허가도 가능함 · 설치자인 자치단체는 관리권한의 행사를 하지 않고 설치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입장에서 필요에 따라 지시 등을 함
조례 규정내용	· 위탁의 조건, 상대 · 관리자 등	· 지정관리자 지정 절차 · 지정관리자의 관리기준 및 업무범위
이용승인 등의 처분	· 관리수탁단체가 단독으로 이용승인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음	· 이용자로부터의 이용요금을 독자적으로 자체 수입으로 수수함 · 조례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 자치단체 승인을 얻어 요금 설정 · 개개의 사용허가를 함

〈표 계속〉 일본 종전 운영관리제도와 지정관리자제도의 비교

구분	관리위탁제도(종전)	지정관리자제도(법개정 후)
계약의 형태 (시와 관계자의 관계)	· 위탁계약	· 지정(협정) · 지정관리자의 지정은 지방자치법상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찰 대상이 아님
이점	· 사업자와 연계가 쉽고 지역의 의향을 시설관리운영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음	· 시설의 사용허가 등이 가능함 · 질 좋은 서비스 공급이 가능함 · 경비절감 가능성이 높음
단점	· 시설의 사용허가 권한은 부여되지 않아 시설의 일원	· 효율성과 이윤추구로 인한 서비스의 질, 계속성, 안전성이 약화될 수 있음 · 지자체의 공적인 책임회피 수단이 될 수 있음

출처 : 이데이 노부오 저, 이정만 번역, 2006

도쿄도는 2005년 지정공모자를 공모해 도쿄도의회 의결을 거쳐 67개 독립 공원에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였고, 2007년과 2009년에 추가지정하여 총 75개소의 도립공원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관리기간은 5년으로 하고, 매년 적절한 관리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심사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지정관리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시하는데,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단체의 능력, 경영상태, 관리운영수준, 관리운영효율화 등을 평가한다.

〈표 4-8〉 일본 도쿄도립공원의 지정관리자 평가내용

항목	세부항목	내용
관리상태	적절한 관리이행	· 협정이나 사업계획에 따른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업무이행, 인원배치, 사업계획에 따른 관리)
	법령준수	· 개인정보 보호, 보고 등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보고의 적절성)
	안전성 확보	· 시설의 안전성은 확보되었나
	재산의 적절한 관리	· 도유재산(물품 등)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사업효과	이용상태	· 사업계획대로 이용되고 있는가
	서비스 향상	· 사업내용, 직원대응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반응은 어떠한가(민원상황, 이용자 만족도)
사업자의 건전성	재무상황	· 사업자의 재무상황은 문제가 없는가(경영기반, 안전성)

출처 : 김효정, 2006

공원녹지의 조성 후 관리운영에서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인식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지정관리자제도는 지정관리자의 지정에서부터 성과모니터링까지 까다로운 심의·평가제도가 마련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질높은 공원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민간참여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일본의 민간공원 조성·관리 : 민관파트너십(민간기업)

민간기업이 공원녹지의 조성·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 또한 일본의 민간공원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공원부지에 미술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 일본 미타카시의 지브라미술관과 민간기업이 사유지를 공원형태로 조성해 민간에게 개방한 일본 나고야시의 (주)노리타케의 숲 등이 대표적이다.

지브라미술관은 민간기업과 도쿄도가 협의하여 건립한 문화시설로 10년이 채 안된 기간에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 및 문화체험시설로 발돋움하였다. 이는 지자체와 공존하는 성공적인 민간공원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브라미술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품 전시 및 작가 기획전, 제작 스튜디오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입장료뿐만 아니라 도서관람실, 캐릭터숍, 카페 등을 운영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a. 지브리미술관 모형 매표소



b. 지브리미술관 입구

〈그림 4-14〉 지브리 미술관

노리타케의 숲공원은 일본의 도자기회사 노리타케사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공장터를 다양한 문화시설을 구비한 공원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노리타케사는 값싼 노동력확보를 위해 공장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빈 공장부지에 현재의 공원을 조성하였다. 숲공원은 48,000m² 부지 공장 건물을 재활용하여 노리타케 박물관, 크래프트센터, 웰컴센터 등의 전시시설과 아트 갤러리, 판매장, 그리고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굴뚝을 중심으로 남측에는 다양한 전시와 문화예술시설을, 북측에는 잔디밭, 오솔길 등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자기와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하여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태공간이 공원 내에 조성되어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노리타케라는 기업은 환경, 문화, 산업, 경제 등 지역적 특징요소와 연계한 친환경 기업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이면서 성공적으로 대외에 알려 기업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출처 : <http://www.noritake.co.jp/eng/mori/walk/ikou/>

〈그림 4-15〉 노리타케의 숲 전경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고려하면 민간참여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10만m² 이상 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제도를 10만m² 미만 공원으로 확대해야 하며 기부채납비율 조정 등 인센티브의 탄력적인 운영

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기부채납된 공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민간의 자유로운 진입이 용이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서울숲 조성·관리 : 민관파트너십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서울숲 공원운영 참여는 시민이 공원의 계획 입안부터 조성과 관리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공원운영 업무분야에서도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부터 이용홍보, 다양한 자원봉사시스템 개발, 기금모금, 공원환경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까지 참가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운영의 시범적 모델로(서울연구원, 2008) 평가받는다. 이는 지정관리자제도와 유사한 형태이나 서울시와 민관협치로 운영되며 계획 및 조성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공원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서울숲이 2010년 1위, 2011년 2위로 지속적으로 상위에 랭크되고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서울숲의 시민참여는 계획과정에서는 워크숍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고, 조성과정에서는 서울그린트러스트를 통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져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5회에 걸쳐 4만8천주의 나무를 시민들이 직접 식재하였다.

서울숲의 관리·운영은 서울그린트러스트 산하 서울숲사랑모임과 서울시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숲사랑모임은 주로 생태교육,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운영 등 서울숲의 보호활동 및 문화공간 조성, 숲 가꾸기에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서울시는 시설물 및 재산관리 등의 하드웨어 분야를 맡고 있다.

〈표 4-9〉 서울숲의 민관 업무분담

기 초 행 정 적 ↑ ↓ 공 공 서 비 스 적	일반행정	시설관리	조경/생태관리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 서무, 재무, 회계 · 계획, 예산, 재산 관리	· 기계전기관리 · 건축물시설 유지 보수	· 식생 · 토양관리	· 홍보 · 대외언론/매체 · 소식지 제작 · 홈페이지 관리	
	· 공원질서 및 안전 관리	· 청결, 위생	· 조경설계/안전관리	· 기금조성 · 기금개발 · 후원자 관리	· 방문자서비스 · 방문자센터 · 프로그램 개발
	· 시설사용승인 · 시설위탁관리		· 생태관리 · 모니터링 · 습지생태원 관리 · 생태교육	· 커뮤니케이션 · 이벤트기획 · 지역사회 연계	· 자원봉사자 관리 · 교육
					· 교육프로그램 연계 운영

기존공원관리 노하우 ← → 새로운 공원가치 창출

시 고유영역
 시와 민간 공동영역
 민간 전문영역

출처 : 서울그린트러스트, 2006

2010년 서울숲 조경 및 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한 총 운영관리비는 63억 원이며, 프로그램 진행과 서울숲 가꾸기를 위한 시민의 참여가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서울숲 운영의 사업예산 내역은 <표 4-10>과 같다.

〈표 4-10〉 시민참여 서울숲사랑모임 사업예산 내역(2010.2~20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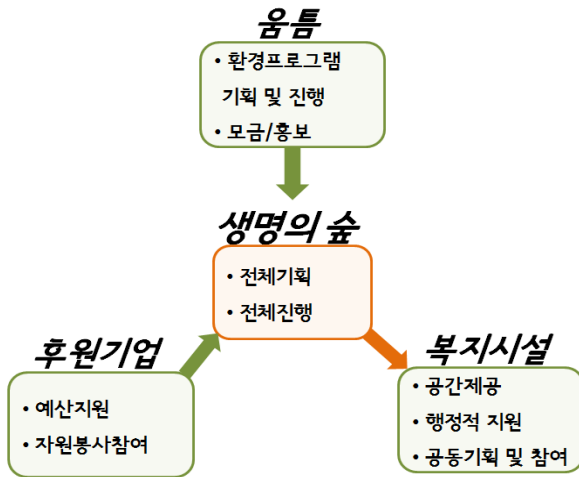
수입		지출		
기업 · 단체후원금	119,060,860	사업비 (보조금)	공익캠페인 등	103,022,105
개인후원	16,317,970		교육프로그램	19,983,720
기타특별후원	5,872,664		자원봉사프로그램	18,307,160
인타인드	48,093,390		홍보	15,198,240
서울시보조금	156,511,225	인카인드		
		인건비		
		운영비, 자체부담 사업비		
합계	345,856,109	합계		

출처 : 서울그린트러스트, 2011

(4) 생명의 숲의 사회복지시설숲 조성 · 관리 : 민간파트너십

사단법인 생명의숲국민운동은 2007년부터 사회적 녹지이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숲을 만들고, 이용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사업추진 대상지 선정 시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인지, 프로그램에 아동뿐 아니라 구성원(사회복지사 등)들의 주체적 참여의지가 있는지, 사후 지속적 관리·운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지역사회와 교류의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선정한다.

사업추진 시 민간기업체의 후원 및 자원봉사 참여로 기금이 마련되고 사회복지시설 직원 및 아동의 참여로 폐쇄된 시설공간을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시설녹지를 조성하고 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그림 4-16〉 생명의 숲 사회복지시설숲운동의 추진조직 및 역할

2011년까지 서울지역 5개소, 경기도 및 인천지역 4개소 등 총 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그 중 2011년 동명이동복지센터에 조성된 꿈꾸는 동명숲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4-11〉 동명아동복지센터의 사업개요

구분	내용
기간	2011.2 ~ 11(10개월)
후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카디프생명보험
목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생태적 감수성 회복 및 정서함양에 기여
목표	· 생활공간에 생태교육, 놀이공간 마련 · 생활아동들의 정서안정 및 생태적 감수성 향상 도모 · 지역사회 소통의 장 마련
이전 현황	·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시설 앞마당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식당과 연계된 옥상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캠프 등 일회적인 프로그램에는 참여한 적 있으나 정기적, 자체적인 환경 프로그램은 없음
추진 사항	· 시설녹지 - 앞마당 숲 조성, 옥상텃밭 조성 · 센터 직원 및 아동, 카디프생명임직원, 생명의 숲 회원 및 활동가가 참여하여 교·관·목 250주, 초본류 450본 식재, 옥상텃밭에 600본 모종 식재 · 프로그램 - 환경프로그램(방과후교실) : 초등학교 약 25명을 대상으로 5~11월까지 총 11회 환경프로그램 진행 - 동명작은잔치 : 자원봉사자 및 센터 구성원이 모여 천연염색티셔츠 만들기, 나눔손수건만들기, 바비큐파티 등 진행
향후 추진계획	· 센터 아동뿐 아니라 지역주민 대상 숲, 텃밭프로그램 진행 · 지역사회와 교류하기 위한 텃밭 수확물나누기, 김장담그기 등 계획

출처 : 생명의숲국민운동, 2011

2) 시민참여형 공원녹지 조성 · 관리방안

(1) 공원녹지 조성 · 관리의 민간영역 참여확대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원녹지의 운영뿐 아니라 계획 및 조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민간영역은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처능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아 시민참여형 공원녹지사업 전개에서 운영 노하우의 실무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계획 및 조성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참여를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에서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서울시가 추진하는 ‘녹색희망 나누기’ 사업은 약 4배의 자금이 소요되었으나 생명의 숲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시설숲 조성 · 관리에 비해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도가

낮고, 시설의 내부녹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주변지역과의 교류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체측의 사후모니터링 및 피드백과정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계획 및 조성단계에서의 민간참여가 요구된다.

〈표 4-12〉 생명의 숲과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숲 조성사업 비교

구분	생명의 숲의 사회복지시설숲운동	서울시 녹색희망나누기
사례지	동명아동복지센터 (관악구 봉천동)	시온원 (동작구 상도동)
조성시기	2011	2011
사업비용	2천2백만원	8천만원
비용출처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카디프생명보험	녹색자금(산림청)
조성기관	생명의 숲, 자원봉사자, 시설구성원	서울시 용역업체
프로그램 운영기관	시민지원 모임 움툼 (생명의 숲 회원모임)	시설구성원(사회복지사)



a. 동명아동복지센터의 동명숲
(생명의 숲 주관)



b. 시온원의 꿈이 큰 정원
(서울시 주관)

〈그림 4-17〉 동명아동복지센터와 시온원의 숲 조성

서울시는 2012년 1월부터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제’를 도입해 위·수탁 계약체결 전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위탁비용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5개월간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민간위탁사업 투명성 향상, 민간위탁사업 품질향상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관리 중인 생태공원은 고덕수변생태공원, 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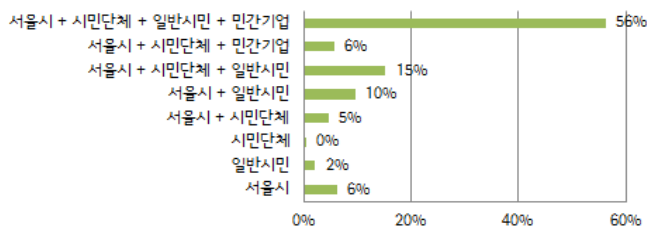
생태습지원, 한강야생탐사센터, 암사생태공원 등이며, 민간위탁업체는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참여의 관리운영협의회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참여 자원 활동가 모집·양성 등 관리운영체계 구축,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모니터링,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위해식물 집중관리 및 해설판 관리 등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표 4-13〉 주요 생태공원의 민간위탁 운영·관리 현황

생태공원	위탁기관	운영기간	연간 활동비(천원)
고덕수변생태공원	생태보전시민모임	2005년~현재	95,000
난지생태습지원	녹색미래	2011년~현재	95,000
한강야생탐사센터	생태보전시민모임	2011년~현재	95,000
암사생태공원	시민환경포럼	2012년~현재	9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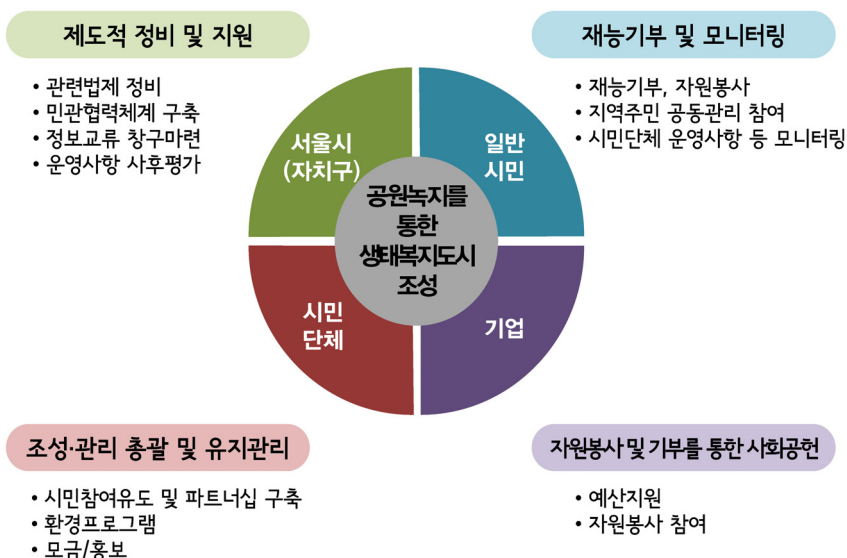
서울시와 민간위탁업체의 관계는 연1회 프로그램 위탁사업계획에 따른 서울시와 갑을 형태의 계약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서울시와 민간단체가 공동출자방식을 통해 파트너십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서울숲의 관리·운영은 법적인 제도가 없어 부분적 위탁형태에 의존하고 있다.

이 연구의 시민수요조사 결과, 상당수의 시민들이 생태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주체로 서울시와 시민단체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일반시민의 참여까지도 이루어져야 하고,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등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생태복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8〉 생태복지도시의 조성주체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결과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민관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민(民)’ 범위를 기존의 시민단체를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이 아닌 일반시민과 기업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획·조성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기존 서웁숲의 모델을 토대로 지정관리자제도의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성·관리 및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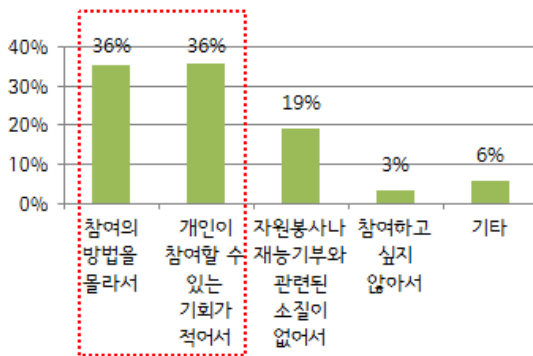


〈그림 4-19〉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관리 민관파트너십 체계

(2) 생태복지 정보인프라의 형성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가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 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관성대로 하드웨어적인 공원녹지의 신규창출과 같은 공간에 대한 투자와 가시적 지원보다는 기존에 조성된 공원녹지를 채우고 확대해나갈 수 있는 인재와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문화와

시스템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함께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에 시행하는 주요사업에 시민참여를 도모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참여를 위한 생태복지 정보인프라 구축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인프라가 온라인으로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 허브, 또는 플랫폼으로서 ‘서울 가꾸기(가칭)’라는 생태복지포털을 마련할 수 있다. 시민수요조사 결과, 자원봉사나 재능기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참여의 방법을 몰라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하면 ‘서울 가꾸기(가칭)’ 생태복지포털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등 다양한 정보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4-20〉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등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결과

또한 서웁숲과 같은 주요공원에 생태문화센터 등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여 누구나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참여하고 가드닝 정보 등 공원녹지분야 생태복지활동 전반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학습의 장을 개설, 운영하여 일반시민 개인적 참여확대를 통한 시너지를 만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제도적 개선방안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생태복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실정으로 검토한 관련법제를 토대로 생태복지 구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일부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4〉 생태복지 관련법제 현황 검토

법제명	주요 내용	비고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자치구·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사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생태도시의 조성과 자연생태계의 복원,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 도시녹화계획, 녹지활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설립·운영,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조례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환경교육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서울시민의 시청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 예산편성, 시정정책 토론 등에 주민참여 원칙 및 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적격자 심의위원회,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는 2조에 서울시의 환경보전활동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생태복지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조 2항에 생태복지를 구현하는 도시를, 4조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생태복지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조(기본이념) ① 시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 개선안

제2조(기본이념) ① 시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복지를 구현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생태복지”라 함은 생태계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를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복지에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과요약

제2절 정책건의

제1절 결과요약

최근 복지와 자연환경의 시각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생태복지, 산림복지, 환경복지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서울시의 공원녹지 정책은 ‘사회연대성’을 중요시하여 도시녹화사업에 시민참여를 도모하고, 공원녹지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생태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소외계층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가 생태복지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계로 공원녹지 관리에 생태복지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생태복지 및 생태복지도시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시민수요를 반영하여 공원녹지 정책수립 시 생태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생태복지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서울시 생태복지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생태복지의 개념 및 생태복지도시 사례에 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공원녹지를 통한 서울시 생태복지의 정의, 기본원칙, 그리고 보장요소를 설정하

였다. 둘째, 생태복지 현황분석 및 수요조사를 시행하였다. 현재 서울시의 공원 녹지를 통한 생태복지 현황을 보장요소별로 분석하였고, 생태복지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생태복지도시를 위한 공원녹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공원녹지분야 생태복지 정책목표 및 비전을 설정하였고, 추진과제 및 정책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실행을 위한 시민참여형 추진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복지를 ‘생태계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를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복지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생태복지도시의 구성요소로 도시생태, 건축물/주거, 에너지, 교통, 자원순환, 문화, 커뮤니티의 7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생태복지도시의 구성요소별 연계성을 극대화시키고 생태복지도시 구현효과를 가장 잘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는 수단으로 공원녹지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둘째,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를 ‘서울시민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공원녹지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공원녹지가 제공하는 생태서비스의 범주와 서울시의 도시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 생활권내 숲체험, 안전, 휴양, 건강, 문화, 교육, 일자리 창출의 8가지 보장요소를 선정하였다.

셋째, 시민수요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생태와 복지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였으며,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보장요소는 건강, 안전, 생활권내 숲체험, 생물다양성 순으로 나타났다. 생태복지도시를 위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생태적으로 양호한 숲의 보전’, ‘생활권내 도시숲의 확충’, ‘생물서식처 복원’, ‘치유의 숲 조성·운영’이 도출되었으며, 생태복지도시를 위한 조성주체로는 ‘서울시+시민단체+일반시민+민간기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생태복지도시 조성에서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생태

복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민수요조사를 통한 보장요소의 우선순위 및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공
원녹지정책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생태복지도시, 서울’로 설정
하였으며, 보장요소별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보장요소별 추진과제의 효
율적인 이행과 관리를 위해 정책연관성과 자료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
분야의 생태복지지표(안)를 선정하였다(<표 5-1>).

다섯째, 보장요소별 추진과제 실행을 위해 공원녹지 조성·관리의 민간영역
참여확대와 생태복지 정보인프라의 형성을 제안하였다. 민관파트너십을 구축
할 때 ‘민(民)’ 범위를 기존의 시민단체를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이 아닌 일반시
민과 기업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
획·조성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기존 서웁숲의 모
델을 토대로 지정관리자제도의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성
·관리 및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
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복
지 정보인프라 형성과 관련해서는 ‘서울 가꾸기(가칭)’ 생태복지포털 마련을 통
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
그램, 자원봉사 등 다양한 정보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5-1〉 보장요소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연번	보장 요소	정책목표	주요사업
1)	건강	숲을 통한 시민생명 보호 및 시민건강 증진	- 치유의 숲 조성*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수목그늘 제공* -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개발* - 장애없는 산책길 조성
2)	안전	자연재해,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원녹지공간 조성	-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예방* - 자연재해 대비 공원녹지 수목 및 시설물 보완 - 공원내 안전시설 강화 - 공원경찰제도 도입*
3)	생활권내 숲체험	전 계층의 생활권내 숲 접근성 향상	- 벽면녹화, 옥상정원, 지투리공간 녹화 등 생활권내 녹지의 확충* - 사회복지시설의 희망숲 조성* -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아름다운 마을정원 조성*

〈표 계속〉 보장요소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연번	보장 요소	정책목표	주요사업
4)	생물 다양성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자원 보전복원	- 생태적으로 양호한 숲의 보전* - 생물서식처 복원 - 민관협력 모니터링체계 구축
5)	휴양	도시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가공간 마련	- 숲속 캠핑장, 수련장 등 체류형 공간 마련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 서울 자연·철인경기 개최*
6)	문화	전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숲 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 숲문화프로그램 다양화 - 소외계층의 문화프로그램 참여지원 - 도시농업 활성화 - 공원내 가드닝센터 운영*
7)	교육	숲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생태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연령대별 생태교육프로그램 다양화* - 소외계층 참여의 문화프로그램 참여지원 - '먹을 수 있는 학교숲' 조성*
8)	일자리 창출	다양한 녹색일자리 창출	- 재능기부 등 시민참여기회 확대 - 공원녹지 조성·운영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 - 생태복지 정보화 서비스 구축*

* 우선과제 : 시민수요조사 결과 우선순위가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

제2절 정책건의

1. 민관파트너십 구축 영역 확대

공원녹지의 운영뿐 아니라 계획 및 조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당수의 시민들이 생태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주체로 서울시와 시민단체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일반시민의 참여까지도 이루어져야 하고,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등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생태복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민간위탁 형태에서 나아가 민관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민(民)’ 범위를 시민단체를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이 아닌 일반시민과 기업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획·조성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기존 서울숲

의 모델을 토대로 지정관리자제도의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성·관리 및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태복지문화 형성

그동안 공원녹지 조성사업들은 전반적으로 관주도의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관주도의 주민참여형 녹색사업은 참여인원이 제한적이고 대상지에서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이 배제되는 한계가 있다. 최근 주민참여형 녹색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 또한 높은 편이다. 따라서 개인이 관주도의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옥상, 집앞 화단 등 생활권내 자투리공간에 대한 능동적 녹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생태복지포털을 구축하여 텃밭 및 정원가꾸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공원에 생태문화센터 등 오프라인 공간을 설치하여 누구나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참여하고 가드닝 정보 등 공원녹지분야 생태복지활동 전반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학습의 장을 개설·운영하여 일반시민의 개인적 참여확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3. 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적 지원 강화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법적 제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생태복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실정으로 검토한 관련법제를 토대로 생태복지 구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일부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환경기초조례」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는 2조에 서울시의 환경보전활동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생태복지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조 2항에 생태복지를 구현하는 도시를, 4조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생태복지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강문수, 2011,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권혁주, 2011, 「무상복지 논쟁과 한국복지국가의 과제」, 한국행정학회, 제133권, 7~9
- 김경목 · 신원섭 · 박범진 · 오도교, 2012, 「산림공간유형이 기분 개선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6(1), 87~92
- 김동영, 2011, 「복지국가의 자치와 진정성」, 사람과 정책 Vol.1
- 김원주, 2007,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방안」, 서울연구원
- 김지애 · 임승빈, 2011, 「치유환경 구성요소 및 설계기준에 관한 연구 : 종합병원 옥상정원을 중심으로」,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81~86
- 김홍열, 주은연, 2008, 「원예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정서발달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물 · 인간 · 환경학회지 11(1), 45~50
- 김효정, 2006, “도시공원 특성에 따른 적정 관리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미, 2004, 「복지개념의 생태주의적 접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1), 333~354
- 박울진, 2010, 「도시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의식 - 익산시 일반이용자와 환경단체의 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박홍순, 2012,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사업의 기반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 산림청, 2011, 「산림복지 개념정립 및 정책개발 연구」
- 생명의숲국민운동, 2011, 사회복지시설숲운동 현황과 과제토론회 자료
- 서울그린트러스트, 2006, 도시숲 심포지엄 자료집
- 서울그린트러스트, 2011, 서울숲 2010 사업보고서
- 서울시, 2012,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청회자료집

- 서울시, 2012,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 서울시 푸른도시국, 2012, 주요 업무계획
- 서울연구원, 2008~2011, 세계도시동향
- 서태성, 2002, 『지역발전과 주민참여형 거버넌스체제 구축방안』, 국토 통권252호, 20~27
- 서해정, 2009, 새로운 녹색경기도를 위한 생태복지 실현 정책방안, 경기도 이슈브리프
- 성종상, 2005, 『산업시설 재생의 방향과 전략연구 : 그린과 문화를 통한 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17, 105~141.
- 송태갑·안기완, 2010, “전남 치유의 숲 조성 및 실행프로그램 개발방향”, 전남발전연구원 리전인포 제196호
- 신원섭·연평식·이정희, 2007, 『숲 체험이 인간 심리안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3), 37~43
- 심상정, 2007, 심상정의 녹색약속, 국회의원 후보공약자료
- 안성훈, 2012, 안전한 공원만들기 경찰이 나섰다
- 이양주·김태현, 2010,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체계 구축방안”, Policy Brief 2010, No.22, 1~20
- 이양주·이현이, 2009,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원경찰제도 도입방안”,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7, 1~12
- 윤은주, 2011, “민간참여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 방안”,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공원정책의 발전방향 심포지엄 발표문
- 이데이 노부오 저, 이정만 번역, 2006, 『지정관리자제도』, 경기개발연구원

- 이정필, 2011, “녹색성장에서 녹색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생태복지의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
- 이준상·김만호, 2004,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이념의 이념의 분석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Vol.20, 323~350
- 이지운, 2012, 환경복지 기본구상과 방향, KEI 환경복지 토론회 발표자료
- 이한아, 2008, “서울숲 공원문화 형성과정과 시민조직의 역할”,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9, 『생태복지의 개념 및 적용모델 개발』
- 정지웅, 2008, 『생태주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 조현길·안태원·김성훈, 2001, 『수목의 CO₂ 흡수 및 대기정화 가치』,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발표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이슈페이퍼 1월 1주 일본콘텐츠 동향보고
- 홍성태, 2009, 『생태복지국가 연대를 향하여』, 환경과생명 통권 61호, 48~63

- Bookchin, Murray, 1995, The Philosophy of social Ecology : Essays on Dialectical Naturalism, Black Rose Books
- Prscott-Allen, Robert,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 A Country-by-Country Index of Quality of Life and the Environment, Island Press
- Fitzpatrick, Tony, 2003, After the new social democracy : social welfar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http://www.noritake.co.jp/eng/mori/walk/ikou/>(노리타케)
<http://www.makehopecity.com/>(세계도시라이브러리)
<http://plug.hani.co.kr/>(한겨레신문)
<http://www.e-jangbook.net>(이장)
<http://www.findhorn.org>(핀드혼)
<http://www.ufafabrik.de/en/index.php>(우파파브릭)
<http://www.kgpa.or.kr>(산림청 녹색사업단)
<http://www.forestfd.or.kr>(한국녹색문화재단)
<http://aparkrangerslife.blogspot.kr/2010/09/>
<http://www.treehugger.com/culture/>
<http://g1.globo.com/planeta-bizarro/noticia/2011/10/>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부 록



부 록 : 생태복지도시에 관한 설문조사

생태복지도시 서울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민, 전문가, 관련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생태복지도시 서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서울시가 생태복지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생태복지의 개념정립과 향후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해 2012년 10월 9일(화)까지 응답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협주해 주시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답례품(문화상품권 1만원)을 보내드립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 설문조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 ~ 10월

연구진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책임 송인주 (02-2149-1165)

연구원 김시정 (02-2149-1169)

문 의 김시정 (02-2149-1169/sijeongkim@si.re.kr)

a. 삶의 질 만족도

a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삶의 질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살기 좋다 2) 다소 좋다 3) 보통이다 4) 별로 좋지 않다
5) 전혀 좋지 않다

a2.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기나 숲 등 환경 쾌적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쾌적하다 2) 쾌적하다 3) 보통이다 4) 쾌적하지 않다
5) 전혀 쾌적하지 않다

a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을 고른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선택 가능)

- 1) 환경오염 문제 2) 지역경제 침체 3) 숲, 공원, 호수 등 자연자원 부족
4) 문화예술 체험공간 부족 5) 이웃과의 교류 단절 6) 재해·재난
7) 교통 불편 8) 기타 ()

a4.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별로 해당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관리					
2) 산림 등 녹지보전 및 자투리공간의 녹화					
3) 체육관, 공연장 등 문화체육시설 마련					
4) 소외계층 및 일반인 대상의 복지프로그램 실시					
5) 침수 및 산사태 예방 및 후속대책 실시					
6)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우선 도로					
7) 녹색일자리 창출					
8)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a5.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 중요치 않음
1)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2)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3)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4) 다양한 취미활동이 가능한 문화프로그램					
5)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마을					
6) 이웃들과의 활발한 교류					

b. 생태복지에 관한 인식수준

□ 생태복지의 정의

○ '생태계와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인간복지'

- 생태계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를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복지가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

b1. 귀하께서는 '생태복지'라는 개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1) 예 2) 아니오

b1-1. 알고 계신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1) 논문, 연구보고서 등 연구자료 2) TV, 신문 등 언론매체 3) 인터넷
4) 기타(_____)

b2. '생태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 1) 생태와 복지는 연관성이 매우 크다
2) 생태와 복지는 비교적 연관성이 있다
3) 생태와 복지는 무관하다

b3. 생태복지의 **혜택을 받는 대상범위**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 1) 생태복지의 대상은 인간중심적이어야 한다
- 2) 생태복지의 대상은 인간과 동식물이 비슷한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3) 생태복지의 대상은 인간 중심으로 하되, 동식물도 고려되어야 한다

b4. 생태복지의 **혜택을 받는 (인간의) 대상범위**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 1)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보편적 복지)
- 2)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선택적 복지)
- 3) 1)과 2)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보편적 복지 + 선택적 복지)

c. 서울 생태복지도시의 구성요소

□ 생태복지도시의 구성요소

○ 문헌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함

- 1) 도시생태 : 지속가능한 도시숲 관리, 생물다양성 증진, 생활권공원녹지 조성
- 2) 건축물/주거 : 생태건축 및 공동체 생활주택(코하우징)
- 3) 에너지 :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
- 4) 교통 :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이용, 자전거 및 보행자전용도로 마련
- 5) 자원순환 : 물순환 체계 구축, 재활용 및 재이용 활성화
- 6) 문화 : 문화예술활동의 다양화 및 접근성 증진
- 7) 커뮤니티 : 네트워크 활성화(마을공동체 구성 및 활동)

c1. 귀하께서는 생태복지도시의 다음 각 구성요소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항목별로 해당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 중요치 않음
도시생태					
건축물/주거					
에너지					
교통					
자원순환					
문화					
커뮤니티					

c2. 귀하께서는 생태복지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구성요소별 수행능력에 대해 얼마
나 만족하십니까** 항목별로 해당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도시생태					
건축물/주거					
에너지					
교통					
자원순환					
문화					
커뮤니티					

d. 공원녹지를 통한 서울 생태복지도시 조성방안

□ 도시숲을 통한 생태복지

-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 : 서울시민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도시숲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
-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의 기본원칙
 - 보편성, 지속가능성, 접근성, 연계성, 기후변화 대응성
-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의 보장요소
 - 생물다양성, 생활권내 숲체험, 휴양, 건강, 안전, 문화, 교육, 일자리 창출

d1. 귀하께서는 도시숲을 통한 생태복지의 기본원칙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항목별로 해당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동의함	동의함	보통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 하지 않음
1) 보편성 : 도시숲 혜택은 모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 지속가능성 : 도시숲 혜택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세대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 접근성 : 도시숲 혜택은 물리적, 신체적, 경제적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적으로 접근하여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 연계성 : 도시숲 혜택은 공공 및 민간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5) 기후변화 대응성 : 도시숲 혜택은 공공 및 민간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d2. 귀하께서는 도시숲을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중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보장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생물 다양성	생활권내 숲체험	안전	휴양	건강	문화	교육	일자리 창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d3. 다음 항목들은 도시숲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가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다음 항목별로 해당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1) 에코스쿨 조성(학교공원화)			
2) 동네뒷산 마을공동체 공원 조성			
3) 유아 숲체험장(우장공원, 응봉공원, 관악산 공원) 조성			

항목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4) 도시농업공원(노들텃밭, 갈현텃밭) 조성			
5) 서울둘레길 조성			
6) 장애없는 산책길(북한산, 관악산 등) 조성			
7) 주민참여에 의한 동네숲 가꾸기			
8) 사회복지시설의 희망숲 조성			
9) 옥상녹화(텃밭, 심터 등) 실시			
10) 무장애 공원(여의도 공원) 조성			
11)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우면산, 관악산 등)			

d4. 귀하께서는 도시숲을 통한 생태복지도시를 위해 다음 중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1위	2위	3위	4위	5위
① 생태적으로 양호한 숲의 보전					
② 도시숲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물서식처 복원					
③ 벽면녹화, 옥상정원, 자투리공간 녹화 등 생활권 내 도시숲의 확충					
④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시숲의 접근기회 향상					
⑤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수목훼손 및 산사태 예방					
⑥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도심공간의 수목그늘 제공					
⑦ 숲속 캠핑장, 수련장 등 체류형 공간 및 프로그램 조성·운영					
⑧ 도시숲에서의 산악자전거 등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					
⑨ 치유의 숲 등 도시숲에서의 치유공간 마련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⑩ 개인맞춤형 등산코스 안내를 위한 등산로 초입의 간이 체력검사 장비 설치					
⑪ 도시숲에서의 북콘서트, 공연·전시, 숲속결혼식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⑫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텃밭부지 마련					
⑬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숲에서의 생태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⑭ 숲속 유치원 등 생태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 마련					
⑮ 도시숲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재능기부 등 참여기회 확대					
⑯ 도시숲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					

d5. 귀하께서는 도시숲을 통한 **생태복지도시**를 위한 **조성주체**는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서울시 2) 일반시민 3) 시민단체 4) 서울시 + 시민단체
5) 서울시 + 일반시민 6) 서울시 + 시민단체 + 일반시민
7) 서울시 + 시민단체 + 민간기업 8) 서울시 + 시민단체 + 일반시민 + 민간기업

d6. 귀하께서는 생태복지도시 조성에 있어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생태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2) 아니오

e. 기타

e1. 귀하께서는 각종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1) 참여하 적이 있다 2) 참여하 적이 없다

e1-1. 참여하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참여의 방법을 몰라서 2)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3) 자원봉사나 재능기부와 관련된 소질이 없어서 4)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5) 기타()

e2. 생태복지도시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1) 예 2) 아니오

e3. 도시숲을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제안하시고 싶은 사업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f. 일반적 사항

거주지역 (거주 및 활동)	○서울시 ○그 외 지역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직업	○관련분야 종사자(환경, 생태, 복지 등) ○일반 시민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답례품(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우송해 드릴 예정이오니, 성함과 연락처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기록 사항	1) 응답자 성명 : 2) 응답자 연락처 : 3) 응답자 주소 :

※ 본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문요약 (Abstract)



A Study on Creation of Eco-welfare City through Park and Green space

In-Ju Song · Si-Jeong Kim

Recently, concepts such as eco-welfare, forest-welfare, and environmental-welfare are appearing as their effort to combine welfare and natural environment. Urban Green Space Policy of Seoul city attaches importance to “Solidarity” to draw citizens’ anticipation to urban ecological business and to solve imbalance of green space distribution. It is approaching as “universal welfare” to provide ecological service of urban forest to all citizens but consideration for a neglected class of people is actually insufficient.

This research is conducted to adopt the concept of eco-welfare to park management as the first step for Seoul city to become an eco-welfare city. To actualize this, concepts of eco-welfare and eco-welfare city are defined, the concept of eco-welfare is adopted when founding green space policy based on citizens’ demands, and the direction to develop as eco-welfare city is proposed in this study.

The research is in three steps. Firstly, the concept of eco-welfare in Seoul city is found. The definition, basic policies, and guarantee element of eco-welfare in Seoul city through park green space are established by documentary survey on concepts of eco-welfare and cases of eco-welfare cities. Secondly, eco-welfare status analysis and demand survey are conducted. Current eco-welfare status through park green space in Seoul city is analyzed by guarantee elements and eco-welfare demand survey was performed. Thirdly, park green space management measures are established for eco-welfare cities. Purposes and visions of park green space eco-welfare policy

are found, projects and policy indicators are established, and plans which citizens can participat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action is proposed.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written below.

Firstly, eco-welfare is defined as “to make eco system depending human kinds’ welfare sustainable by realizing welfare of both eco system and human beings simultaneously” and seven components of eco-welfare city which are urban eco system, buildings and houses, energy, transportation, resource circulation, culture, and community are drawn. Park green space was the main subject as the mean for maximizing relations between components of eco-welfare cities and for representing realization effects of eco-welfare cities.

Secondly, eco-welfare through park green space is defined as “Seoul citizens are guaranteed to receive sustainable benefits from urban park green space” and eight guarantee elements which are biodiversity, urban forest experience, safety, leisure, health, culture, education, and job creation while considering eco service range that park green space provides and urban characteristics are selected.

Thirdly, citizen demand survey shows that citizens consider relations of ecosystem and welfare are strong and primary guarantee elements that Seoul city has to deal with are in order of health, safety, urban forest experience, and biodiversity. The business that Seoul city has to promote primarily for eco-welfare cities are “preservation of ecologically fine forests”, “expanding urban forests”, “restoration of habitats”, and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healing forests” and “combination of Seoul city + citizen groups + citizens + private businesses” are the most voted for the construction subject. Mos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eco-welfare provide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volunteering and donation when it comes to composing eco-welfare cities.

Fourthly, the vision of park green space policy is settled as “Seoul, the citizen-made eco-welfare city” by reflecting guarantee elements and the major businesses based on citizens’ demand survey and promotion projects by

guarantee elements are proposed. Additionally, eco-welfare indicator plans of park green space are settled while considering policy relations and data availability for effective conduction and management of promotion projects by guarantee elements.

Fifthly, expanding civilian participation in composing and managing park green space and forming eco-welfare information infrastructure are proposed to practice promotion projects by guarantee elements. When establish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ange of “public” as a broad sense which includes citizens and enterprises instead of an existing narrow sense which only means citizen groups. To form eco-welfare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formation accesses such as diverse programs and volunteering have to be utilized to connect activities by founding eco-welfare portal, “Raising Seoul (tentative name)”.

Table of Contents

Chapter I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2. Contents and Method

Chapter II Concept and Related Policy of Eco-welfare

1. System and Policy Related to Eco-welfare
2. Concept and Content of Eco-welfare
3. Eco-welfare in Park and Green Space

Chapter III Status Analysis and Demand Survey of Eco-welfare

1. Status analysis of Eco-welfare
2. Demand Survey of Eco-welfare

Chapter IV Management Plan of Park and Green Space for Eco-welfare City

1. Vision and Purpose
2. Project and Indicator
3. Action Plan for Citizen Participation

Chapter V Conclusion and Suggestion for Policy

1. Conclusion
2. Suggestion for Policy

References

Appendices

서울연 2012-PR-53

공원녹지를 통한 생태복지도시 조성방안

발 행 인 이창현

발 행 일 2012년 12월 31일

발 행 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6,000원 ISBN 978-89-8052-931-5 935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